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N EVANGELIZATION STRATEGY FOR THE AUSTIN KOREAN COMMUNITY IN TEXAS

written by

EUN KYU PARK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Jung S. Rhee

Yea Sun E. Kim

Seyoon Kim

August 10, 2004

**AN EVANGELIZATIONS STRATEGY FOR THE AUSTIN
KOREAN COMMUNITY IN TEXAS**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EUN KYU PARK

AUGUST 2004

어스틴 지역 한인 복음화 전략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이정석 교수

박 은 규

2004년 8월

Abstract
Evangelization Strategy For Austin Korean Community in Texas
Eun Kyu Park
Doctor of Ministry
2004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more than two thirds of the Korean people in America attend the Christian churches. However, only one third of the Koreans living in Austin area have church membership. This reveals that the Korean evangelization ratio in Austin is only a half in contrast to the other areas. Upon the 14 years of ministry experience in this area, I attempted to answer to this critical question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Korean community in Austin, Texas: Why only the half of the average Korean church attendance here in Austin? And, what is the practical and effective strategy to increase the evangelization ratio of this area?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it begins with the attempt to understand the context: Austin area and Austin Korean community in particular. Chapter 2 is the introduction to the Austin area: its formation, politics as the capital city of Texas, its economy and industry, the University of Texas and educational system, its population and transportation, and finally its religious situation. Chapter 3 is a study of the Austin Korean community: its formation, its history from 1950s to the present, its characteristics, and then its religious composition. Chapter 4 is a short but first attempt to write a history of the Korean churches in the Austin area. Of course, it includes assessment of each church's present strength for the evangelization of this area Koreans. It concludes with the data that only 2 thousands of 6 thousands total Koreans in this area attend church, and also with the preliminary diagnosis for the task of

evangelization: its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Second, it presents and analyzes the results of the Korean Evangelization Survey conducted in the November and December of 2004 to the Koreans in Austin area. 216 responses were collected. 11 questions were asked concerning the evangelization of the Austin Korean community. In chapter 5, all those responses were analyzed, and the data was presented with the visible charts for each question.

Third, it composes and presents an effective strategy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Austin Korean community in response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In chapter 6, each point of opinion suggested in the survey has been sincerely and carefully taken either to accelerate the positive factors or alleviate the negative factors. The strategy includes 5 strategic points: strengthening personal evangelism, modernizing church education, improving church relations, upgrading pastoral leadership, and maturing church members.

In this study, it is found that church reform is the best policy of community evangelization. It concludes with a plan that 20 Korean churches in this area will cooperate for the realization of this project.

Theological Mentors: Jung S. Rhee, Ph. D.

Yeasun Eum Kim, Ph. D.

감사의 글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부족한 저를 복음서와 요한계시록과 상담 분야에서 자상한 지도와 가르침을 주신 김세운 박사님과 엄예선 박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로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한 격려로 논문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이정석 박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어스틴 지역 한인 교포의 성공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실시한 설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 지역 교역자님들과 저희 교회를 비롯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항상 바쁘신 교회 업무 중에서도 논문을 위하여 컴퓨터와 이메일로 수고해 주신 정순옥 집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216명의 설문 응답 내용을 세밀하게 그래프로 그려 주신 조성호 박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늘 순결한 백합화 같이 아름다운 미소로 맞아주며, 저의 건강을 위하여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아내 선애와 언제나 묵묵히 멀리서 지켜보며 기도와 사랑으로 믿어주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아들 Peter 가족, John 가족, Paul 가족과 딸 Jasmine 가족에게 감사 드립니다.

2004년 6월 12일

박 은 규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논문의 동기	1
제 2 절 연구과제 설정과 방법론	2
제 2 장 어스틴 지역의 이해	4
제 1 절 어스틴의 도시 형성	4
제 2 절 어스틴 지역의 정치	5
제 3 절 어스틴 지역의 경제와 산업	9
제 4 절 어스틴과 텍사스 대학교	10
제 5 절 어스틴의 인구와 교통	11
제 6 절 어스틴의 교육	12
제 7 절 어스틴의 종교	15
제 3 장 어스틴의 한인 사회	21
제 1 절 어스틴 한인 사회의 형성	21
제 2 절 어스틴 지역의 한인 유입	22
1. 어스틴 지역의 이민	22
2. 어스틴 지역의 유학	23
제 3 절 어스틴 지역의 한인 사회 형성사	24
1. 초기: 1950-1960년대	24
2. 중기: 1970-1980년대	24
3. 한인 이민 사회의 현재: 1990-2003년	24
제 4 절 어스틴 한인 사회의 종교	25
1. 기독교인	25
2. 불교	26
3. 유교	26

4 무종교	26
제 5 절 어스틴 한인 사회의 특성	27
1 어스틴 지역 한인회의 구성	27
2 어스틴 지역 한인 사회의 특성	28
제 4 장 어스틴 지역의 한인 교회	31
제 1 절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형성	31
1 어스틴 지역 최초의 한인 교회들	31
2 남 장로교의 영향	32
3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증가	33
제 2 절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현황	34
1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34
2 어스틴 한인 연합 감리교회	41
3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	44
4 늘푸른 교회	46
5 라운드락 한인 장로교회	49
6 하이드팍 한인 침례교회	51
7 말쑤의 교회	53
8 예수 찬양 교회	54
9 기타 한인 교회들	56
제 3 절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복음화 과제	58
1 어스틴 지역 한인 복음화의 실태	58
2 어스틴 지역 한인 복음화의 전망	59
가. 복음화를 위해 긍정적인 면	59
나. 복음화를 위해 부정적인 면	60
다. 종합적 판단	61
제 5 장 어스틴 지역의 복음화 분석	63

제 1 절 어스틴 지역 복음화 설문 조사	63
1. 설문 작성 배경과 절차	63
2. 설문 내용	63
3. 설문 조사 대상	64
제 2 절 설문 조사 결과 분석	64
1. 응답자들의 연령	64
2. 응답자들의 교회 직분	65
3. 교회 적정수	66
4. 복음화 장애 요인	68
5. 복음화의 공헌 요인	69
6. 복음화를 위한 개선사항	70
7. 교역자의 변화	71
8. 효과적인 전도 방법	72
9. 신자들의 변화	73
10. 교회간의 관계 개선	74
11. 교회 교육제도의 개선	75
제 6 장 어스틴 지역 한인 복음화 전략	77
제 1 절 복음화 전략의 필요성	77
제 2 절 개인 전도의 강화	78
1. 개인 전도의 중요성	78
2. 개인 전도의 원리	79
3. 신약에 나타난 개인 전도 방법	80
4. 전도의 올바른 이해	81
5. 개인 전도의 실용적 방법	87
제 3 절 교회 교육의 현대화	92
1. 설문 응답 내용	93
2. 교회학교 행정의 현대화	93

3 교회학교 행정의 기능 확대	96
4 교회학교 행정의 학교식 행정 탈피	97
5 교회학교 행정의 미래적 지향	98
6 예수님의 교육방법 활용	99
7 교회학교 교육방법에 대한 특강	105
제 4 절 교회 간의 관계 개선	106
1. 설문 응답 내용	106
2 지역교회 간의 코이노니아 회복	107
3 성경의 코이노니아 개념	108
4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	111
5 어스틴 지역교회들의 두레공동체 형성	112
제 5 절 교역자의 목회지도력 향상	114
1. 설문 응답 내용	114
2 지도력의 정의	115
3 성경적인 리더십의 형성	116
4 도덕적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	121
제 6 절 신자들의 신앙 성숙	126
1. 설문 응답 내용	126
2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모범	127
3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	128
4 신자들의 인격적 변화	131
제 7 절 어스틴 지역 복음화운동의 진행과정 요약	134
제 7 장 결론	136
참고문헌	139
Vita	14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논문의 동기

한국인에게 미국 이민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세계 강대국에서 안전과 자유와 번영을 향유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아가 기독교 국가로의 이주라는 종교적 의미가 있다. 한국에도 복음화율이 20 퍼센트에 달하지만, 미국에 이민 온 한인들은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심지어 70 퍼센트를 상회한다는 보고도 있다. 물론, 이러한 복음화율은 미국의 종교적 경향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전도에 열심인 한인 교회들의 노력도 이런 결실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인 교회들은 한인 사회에 불미스러운 인상을 주는 잘못을 적지 않게 범해 왔다. 교회에 분규가 자주 발생하고 지도자들의 부덕한 행위들도 자주 거론되며, 또한 개교회주의나 교파주의 같은 병폐들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완전 복음화의 여건이 조성된 미국에서 이를 실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현대 미국의 여건이 그리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한인의 복음화를 완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들은 한인 교회 자체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강한 무신론자나 열성적인 타종교인 소수를 제외하고는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출석한 경험이 있으나 교회의 문제로 인해 거부감을 느껴 출석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인의 복음화는 교회 자체의 문제 해결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한인 교회들은 성장을 지향하면서도 한인들의 문제 인식을 들으려 하지 않고 독단적인 복음화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실제적인 상황을 무시한 방법으로는 성공적인 복음화

를 기대할 수 없으며, 설령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불안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필자는 오랜 세월 텍사스의 수도인 어스틴에서 대표적인 교회를 목회하고 은퇴하면서, 어스틴의 복음화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이다. 어스틴에는 약 6천명의 한인들이 있는데,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은 2천명에 불과하여 복음화율이 3분의 1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복음화율은 미국 한인 전체의 복음화율에 크게 저조할 뿐 아니라 미국 전체의 복음화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만일 흔히 말하는 대로 미국 한인의 복음화율이 70 퍼센트라면, 어스틴은 그 반밖에 되지 못한다는 결론이 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스틴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과 지도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본 논문의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이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어스틴 복음화의 장애 요인은 무엇일까? 교회는 한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한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어스틴의 한인 복음화를 실현해야 한다. 필자는 은퇴의 시점에서 어스틴 한인 사회와 한인교회의 역사와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어스틴 복음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이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어스틴 한인들을 복음화 하는데 도움을 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제 2 절 연구 과제와 방법론

어스틴의 한인 복음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몇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어스틴의 지역적 특성은 무엇인가? 비록 이민 혹은 유학 온 한인들이지만 지역사회의 경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먼저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제를 위해서는 어스틴에 관한 책자들을 조사하고, 또한 어스틴 시청을 방문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이용하려고 한다.

둘째, 어스틴 한인사회의 특성은 무엇인가? 어스틴은 도시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이곳으로 오게 된 한인들에게 독특한 면모가 있으며, 따라서 어스틴 한인사회도 독특

하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한인 복음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어스틴 한인사회에 대한 공식적 역사나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부 한인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모두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인회의 도움과 역대 한인회장들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다.

셋째, 어스틴 한인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주도해야 할 한인교회들의 역사와 현황과 특성들을 조사함으로써, 어스틴 한인교회들이 그동안 추진한 복음화의 성과들을 점검하려고 한다. 이 작업은 자연히 간략하나마 최초의 어스틴 한인교회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어스틴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종합 정리하려고 한다.

넷째, 어스틴 한인 복음화의 장애 요인은 무엇이며 무엇을 개선함으로써 복음화에 공헌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복음화 장애 요인을 가장 잘 알고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한인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현대 경영과 행정의 원리가 대상의 의견을 반영하는 효율적 피드백(feedback)에 있기 때문에, 어스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복음화의 제반 측면에 대한 의견을 명쾌하게 경청하기 위하여 단순하고도 분명한 설문을 만들어 조사하고 그 설문 결과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복음화의 장애 요인과 공헌 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어스틴 한인 복음화의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를 바탕으로 어스틴의 지역적 상황에 맞고 이곳에 사는 한인들의 특성에 적합하며 그들에 의해 지적된 문제점과 해결책을 중심으로 어스틴 한인 복음화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고, 본 논문을 마감하려고 한다.

제 2 장

어스틴 지역의 이해

제 1 절 어스틴의 도시 형성

어스틴(Austin)은 미국 중남부를 주도하는 텍사스 주의 수도이며 트래비스(Travis) 카운티의 소재지로서 반경 4시간 거리 안에 위치한 미국의 10대 도시 3개로 둘러싸여 있는 중요한 도시이다. 북쪽으로 약 4시간 거리에 달라스가 있고 남쪽엔 1시간 30분 거리에 산 안토니오가 있으며, 동쪽으로 3시간 거리에는 휴스턴이 있다. 텍사스 주 중남부를 가로 질러 흐르는 콜로라도 강이 어스틴 시가지의 한복판을 동서로 흘러 이 강을 중심으로 남 어스틴과 북 어스틴으로 구분된다¹⁾. 원래 워털루라는 강변 촌락이 1839년 텍사스 공화국의 영구 수도로 결정되었는데, 후에 텍사스 공화국을 세운 스티븐 어스틴(Stephen F. Austin)을 기념하기 위하여 어스틴으로 개칭되었다. 1840년에 시가 되었으며, 당시 인구는 856명이었다. 본래 텍사스는 독립적인 공화국이었고, 어스틴은 국도였으나, 1845년 텍사스 공화국이 미국 연방에 편입되면서 미국의 일부가 되었다.

1881년 화재로 목조 건물인 주 의사당이 타버린 후에 워싱턴 국회 의사당을 본떠 분홍색 화강암으로 건축된 현재의 주 의사당에는 텍사스 연합 및 공화국 기념관이 있어서 과거의 역사를 전래 주고 있다. 저녁이 되면 1894년 주 의사당 위에 세워진 27개의 높은 탑 꼭대기에 있는 수은등이 일제히 켜져서 인공 달빛이 되어 시가지를 비추며, 이곳에 살았던 유명한 작가 오 헨리(O. Henry,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 박물관이 어스틴의 낭만을 반영한다²⁾.

1) *Encyclopedia Britannica* (New York: Encyclopedia Britannica Inc., 1973), 77.

텍사스 대학교 지질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어스틴 시내 어디에서나 조개와 소라 화석, 석회암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옛날에 어스틴 지역이 낭만적인 해변가였다고 한다. 시내 구아다루페(Guadalupe) 길을 따라 걷노라면 텍사스 대학 교정을 둘러싼 나즈막한 담장에 많은 조개와 소라 화석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어스틴 근교 자연산에서 무수한 세월이 빚어낸 천연 예술품인 화석 석회암으로 대학원 도서관(PCL)과 박물관 건물인 해리 렌섬 센터(HRC) 등 유서 깊은 건물들을 장식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어스틴 지역의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암석들은 바다에서 퇴적된 석회암과 이암이 대부분이며, 이 때 쌓인 약 750 미터의 퇴적층 속에는 바다 속에 살던 굴, 조개, 소라 류 등이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다. 점토와 모래가 함께 퇴적되어 생긴 사질이암이 석회암 위로 쌓였다. 그리고 오랜 동안 어스틴 하천 주변에 자갈층, 모래층, 점토층이 퇴적되어 왔기 때문에,³⁾ 지반이 매우 견고하다. 필자가 타 지역에서 어스틴으로 이주 한 후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토양의 차이다. 실로, 어스틴은 미국 전역에서 돌이 가장 많은 시 중의 하나이며 화석 석회암과 화강암이 제일 많은 도시이다⁴⁾.

제 2 절 어스틴 지역의 정치

어스틴은 텍사스의 정치적인 중심지이다. 어스틴은 텍사스 주청 소재지로서 텍사스의 정치적인 상징으로서, 현재 미국 50개주 주청 소재로서는 인구가 많은 중에 하나로서 656,000명을 헤아리고 있다⁵⁾. 지난 2000년까지 부시 대통령이 주지사로 봉직한 곳이기도 하다. 현재 릭 페리(Rick Perry) 주지사는 지도력이 뛰어난 자로서 텍사스 주 내에 있는 어스틴을 비롯한 895개 시(City)와 259개 군(County)의 행정 총수로서 텍사스 시민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어스틴은 대통령을 낸 시로서 시민들이 대단한 정치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2)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 사전* (서울: 동아일보사, 1997), 16: 21

3) *Austin Journal*, Dec, 2000, 2

4) *Austin Journal*, July 2001, 2

5) *Austin Journal*, Dec, 2000, 25

1. 어스틴 지역의 정치적인 특색

어스틴의 정치적 특색은 보수성이다. 시장 윌 윈(Will Wynn)을 비롯하여 시 의회나 시장 보좌관들의 특색은 한결같이 보수적이다. 한 달에 한번 시장 윌 윈 주관으로 시정을 처리하는 모임에는 반드시 어스틴 시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를 초빙하여 기도로 시작한다. 필자도 13년간 이 곳에서 사역하면서 소수 민족 대표로 3번이나 시장의 초청을 받았다. 33년간 미국에 학업과 이민 생활을 해 온 필자는 다른 도시에서 시정을 토의할 때 성직자를 초빙하여 기도로 시작한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식을 뛰어 넘는 진보적인 도시이기도 하다. 인접한 달라스, 휴스턴, 산 안토니오와 같은 대도시에 비해서 불법 체류자가 많은 도시이다. 멕시코 국경이 멀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온 불법 체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감도 주고 보호도 해 준다. 그러므로 어스틴은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특수한 도시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수성이 강한 공화당과 진보성이 강한 민주당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함께 받은 것 같다. 연방정부 상원의원인 케이 베일리 헛치슨(Kay Ballely Hutchison)은 공화당이고, 존 코린(John Cornyn)은 민주당이다. 또한 연방 정부 하원의원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공화당(John Carter, Lamar Smith)이며 한 사람(Lloyd Doggett)은 민주당이다. 주 상원의원 바리엔토스 곤잘로(Barrientos Gonzalo)는 공화당이고, 제프 Wentworth(Jeff Wentworth)는 민주당이다. 주 하원의원 세 사람(Todd Baxter, Dukes Dawna, Terry Keel)은 공화당이고, 네 사람(Mike Krusee, Elliot Naishtat, Eddie Rodriguez, Jack Stick)은 민주당이다. 그러므로 어스틴은 정치적인 특색으로 보수성과 진보성이 어느 도시보다도 균형을 이룬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2. 어스틴과 미국 정치

제36대 미국 대통령 린든 베인스 존슨(Lyndon Baines Johnson)은 초기 텍사스 개척자였던 존슨 가문의 이름을 딴 존슨 시티(Johnson City)에서 태어나 산 마르코스에 있는 남서 텍사스 주립 사범대, 지금의 남서 텍사스 주립대(Southwest Texas State University)를 졸업했다. 그 후 그는 교직에서 정치에 투신하여 미국 의회의 막강한 실력자가 되어 급기야 제36대 대통령이 되었다.

비록 존슨 대통령이 존슨시에서 태어나고, 산 마르코스에 있는 남서 텍사스 주립 대학을 졸업했으나 이 모두가 어스틴을 중심으로 한 행동 반경의 90 마일 안에 들기 때문에 어스틴 시민들은 존슨 대통령을 어스틴 출신으로 친근감을 가진다. 실제로 어스틴 시민들은 존슨을 어스틴 출신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스틴 텍사스 대학교 교정에는 존슨 대통령에 관련된 문서와 자료를 소장한 LBJ(존슨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있으며, 이 대학의 행정 대학원은 존슨 대통령의 이름을 따라 LBJ School이라고 명명했다⁶⁾. 이 외에도 그의 이름을 딴 학교 이름이나 지명은 텍사스 안에서 많으나 특히 어스틴에 제일 많은 것 같다. 이것은 어스틴 사람들의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입증한다. 워싱턴의 외교 정책 엘리트들의 주장에 의하면, 가장 대표적인 확산론자(expansionist)였던 로스토우(Waltow Rostow)가 후에 존슨 대통령의 주선으로 어스틴에 와서 텍사스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가 되었고, 그의 부인 엘스페드 로스토우는 LBJ School 미국 학과의 교수가 되었다.

또한, 현 부시 대통령도 어스틴에서 텍사스 주지사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워싱턴으로 진출한 인물로서, 지금도 자주 어스틴을 방문한다. 이와 같이 현대에 두 사람의 대통령을 배출한 어스틴은 정치의식이 강하며, 특히 보수적인 남부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런 정치적 분위기는 종교적으로도 보수적인 개신교에 적합하여 이곳에 이주한 한인들은 자연히 복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3. 어스틴과 한국 정치

1996년 미국의 저명한 학자 32명이 어스틴에 모여서 LBJ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백악관 문서를 바탕으로 존슨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32명 중 15명의 사학자들은 그를 위대한 대통령이라 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대한 대통령에 가까운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평가했다. 12명의 학자들은 그를 그냥 평범한 대통령으로, 나머지 5명의 학자들은 그를 평균 이하이거나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했다⁷⁾.

어스틴은 존슨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한국 박정희 혁명 정부에 도움을 주었다. 박정희 정권은 한국전쟁에서 진 빛을 갚는다는 의미에서 미국을 도와 월남전에

6) Kearns, Dorris, *Lyndon Johnson and the American Dream*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76), 23

7) *Austin Journal*, 2001년 3월호, 13

한국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군 월남전 참전은 당시 한국인들에게 잃었던 국가적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적 효과는 물론이고 참전을 통해 들어오는 경제적 혜택은 한국의 경이적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발판이 되었다.

박정희 군사 정권은 당시 미국통인 장도영 장군을 앞세워 1965년 박대통령 미국 방문을 주선토록 했다. 박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의 공통점은 시골에서 태어나 사범학교를 나와 교편을 잡은 적이 있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는 길 중에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경제 발전의 견인차는 과학 기술이라는 데도 그러했다. 그 후 존슨은 한국 과학 기술원의 설립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고 그의 과학 자문이었던 도날드 호닉(Donald F. Hornig) 박사를 한국에 보내어 기술원의 설립 계획을 구체화시켜 주도록 협력했다⁸⁾. 이 과정에서 어스틴의 인적 자원들이 한국의 현대화에 상당히 공헌하여 이 지역과 연관을 가지게 되었다.

4. 어스틴과 광명시의 자매결연

어스틴 시장 윌 윈은 2001년 2월 5일 한국 경기도 광명시의 백재현 시장을 어스틴으로 초청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도시 간의 자매결연은 아이젠하워 전 미대통령이 처음 기획 제안한 도시간의 상호 우호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전쟁 등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⁹⁾ 오늘날에는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주목적으로 미국 도시와 세계 각국 도시들이 결연을 맺고 있다. 현재 미국 도시들이 전 세계 도시들과 맺고 있는 자매결연 도시는 3천 200여개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¹⁰⁾.

광명시와 어스틴 시는 교육, 문화, 예술, 음악, 스포츠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 시는 통상 대표단 파견, 무역 전시,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상호 산업, 경제적인 교류 활동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어스틴 시와 광명시는 두 지역의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간의 우호적인 제휴 기반을 지원하고, 청소년 서신 교환, 예술 활동, 연구 기술 정보 등에서 상호 교류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8) Sang-Dawn Lee, *Big Brother, Little Brother* (Austin: Univ. of Texas Press), 213

9) *Austin Journal* 2001년 3월호, 6.

10) *Ibid.*, 9.

15명의 집행 위원들로 구성된 어스틴 자매결연 위원회가 제안하고 시의회가 인준한 이 체결식 행사에는 양측 특히 환경 보전과 관련 정보를 공유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하여 백재현 광명 시장은 “환경과 관련해 어스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노하우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이제 환경 문제는 국지적 지역적인 생각을 떠나 국제적으로 공동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제 3 절 어스틴 지역의 경제와 산업

1871년 휴스턴 텍사스 센트럴 철도가 들어선 이후, 어스틴 시는 목장 경영인과 농장 경영인들의 교역 중심지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 콜로라도 강의 개발로 홍수 조절과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방위산업과 소비산업의 연구 개발 중심지로 도약했다¹¹⁾.

현대에 접어들면서, 어스틴은 첨단 과학 도시로 변신하였다. 실로, 불황의 위기에서 첨단 꽃 ‘실리콘 힐’ 어스틴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1984년 석유 산업 침체에서부터 시작된 텍사스의 극심한 불경기는 어스틴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텔리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등 첨단 도시로서의 어스틴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평범한 격언의 결과이다. 어스틴 중심가를 남북으로 가르는 35번 고속도로를 달리면 동쪽으로 Dell 컴퓨터, Motorola, IBM, AMD, AMAT, 삼성 등 완만한 구름 속에 자리 잡은 낯익은 회사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그러나 이들 회사들이 처음부터 어스틴에 기반을 잡은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상공회의소 경제 계획국의 로버트 레빈 부국장이 전국적 첨단 기술 연구 컨소시엄 2개를 유치한 것이 첨단 산업 기반을 조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7개주 57개 도시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던 MCC (Microelectronics & Computer Technology Corporation)가 1983년에, 그리고 137개 도시가 경합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Sematech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이 1988년 어스틴을 최종 거점 도시로 선택하면서 어스틴의 미래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고, 어스틴은 남부의 실리콘 벨리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한인 엔지니어들이 어스틴으로

11) Larry Willoughby, *Austin* (Austin: Donning Company Publishers, 1998), 5.

몰려들게 되었다¹²⁾.

기업은 벤처자금을, 대학은 기술을, 정부는 투자를 유치하는 대학과-기업의 가교 역할을 하는 파트너십이 이때부터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풍부한 재원을 자랑하는 어스틴 텍사스 대학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배출된(Spinout) 기업이 어스틴 소재 첨단 기술업체의 50퍼센트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지난 해 12월 현재 어스틴의 첨단업체는 2천여 개로 전체 노동 인구 중 약 20 퍼센트를 흡수하고 있다. 5명 중 1명이 컴퓨터, 반도체, 소프트웨어, 생명 의학 등 테크노 산업에서 일하고 있다. 매년 3만 2천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이 중 2만 5천여 명은 외부 유입 인구로 총원된다¹³⁾.

21세기를 맞는 어스틴은 또 한 번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레빈 부국장은 "20년 전 반도체로 어스틴이 출발했다면 20년 후의 어스틴의 모습은 생물학, 의학, 바이오 산업 그리고 영화와 음악이 결합된 명실상부한 '멀티테크노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제 4 절 어스틴과 텍사스 대학교

어스틴에 대학과-기업과-정부의 유기적 파트너십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불황이 터지기 시작한 1980년까지 어스틴에는 벤처 산업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지난해 말 16억 달러의 벤처 캐피탈이 운영되고 있고 올해 추가 유입될 자금만도 14억 달러에 이른다. 수혜업체 역시 1986년 이후 200여 업체를 넘어섰다. 텍사스 대학교 텅크 텅크인 IC2 (Innovation Creativity Capital), 상공 회의소, 민간 기업 등이 출연한 비영리 창업 보육센터 ATI (Austin Technology Incubator)는 이 삼각 파트너십이 멋들어지게 어우러져 만들어 낸 어스틴 과학 기반의 상징이자 지역 비즈니스의 모태이다¹⁴⁾.

1989년 텍사스 대학교 IC2의 창업 프로그램으로 설립된 ATI가 배출한 기업은 지금까지 기업 공개(IPO)에 성공한 5개 업체를 포함 56개, 2천여 개의 일자리와 9억

12) *Austin Journal*, 2001년 7월호, 39

13) *Austin Journal*, 2000년 12월호., 19

14) *Ibid.*, 20

달러의 이익을 만들어냈다. 자국 벤처 기업을 육성해 달라고 부탁해 온 나라는 캐나다, 브라질, 일본, 호주, 영국, 독일, 중국, 이스라엘 등 10여국에 이른다. Texas Capital Network와 같은 벤처 캐피탈의 증가로 10년 내 총원될 자본금이 6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ATI의 추산이다. ATI가 창업의 모태라면 ATI의 모태는 텍사스 대학교이다.

미국에서 첫 번째로 많은 5만 2천여 명의 학생에 컴퓨터칩, 생명의학, 전자, 텔레커뮤니케이션, 환경 공학 등 모든 첨단 분야에서 어스틴 과학 기술의 젖줄 역할을 하는 텍사스 대학은 단지 배움의 장이 아니라 교실에서 배운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여 마침내 고부가 가치 기업을 탄생시키는 어스틴 경제의 산실이 되었다. 이러한 텍사스 대학교의 존재는 자연히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을 끌어 들였고, 이들이 어스틴 한인 사회와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이 되었다¹⁵⁾.

제 5 절 어스틴의 인구와 교통

어스틴은 신흥 첨단 도시로 발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급격한 확장으로 인한 고민도 적지 않다.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와 이에 따른 수자원과 교통 문제가 그것이다. 4-5년 전만 해도 들어보지 못했던 교통 체증, 즉 러시아워(rush hour)라는 말이 주민들의 일상사가 되었다. 어스틴을 남북으로 통과하는 35번 고속도로는 물론, 35번과 직각으로 만나는 간선도로들도 출퇴근 시간마다 길게 꼬리를 문 차량 행렬로 크게 붐비고 있다.

1980년 당시 53만여 명이던 어스틴 지역 인구는 2000년에 657,000명으로 급증했다. 다시 20년 후인 2020년에는 지금의 두 배인 131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다. 1990-1998년에 인구가 30.7 퍼센트 증가하여, 미국 내에서 7번째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시장 규모에서는 60번째 도시에 올라서는 쾌거를 이룩했지만, 교통 혼잡은 역시 25번째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했다. 어스틴 시장이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심적으로 추진한 것이 어스틴 남동부에 위치한 벅스트롬 국제 공항 건설과 경전철 사업이다. 냉전 이후 공군 기지가 민간 국제공항으로 전환된 첫 사례라는 점에

15) *Austin Journal*, 2000년 12월호, 27

서 이목을 집중시키며, 2000년 5월 개항한 이 국제공항은 이름만 국제공항일 뿐 국내선뿐이다. 외국 직항 노선은 대만 타이페이와 화물 노선 하나뿐이다. 매년 660만여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며 첨단 도시의 관문이라 자처하지만, 어스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대부분 인근 달라스와 휴스턴 공항을 거쳐야만 한다. 한편, 도심과 주변 도로를 잇는 경전철 사업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사업비를 주 판매세에서 이미 확보했으나, 지난 2000년 말 주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실패했다. 교통난 해소라는 명분과 공해 유발이란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¹⁶⁾.

그 대신 어스틴 인근 트래비스 카운티, 윌리엄슨 카운티 지역의 고속 도로 신설과 부지 매입용으로 총 4억 7,800만 달러의 채권 발행이 통과되어 큰 위안이 되었다. 사업 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주민 의견을 묻겠다는 상공 회의소 세릴리 티드 홍보 담당 부사장은 공해 문제만을 들어 경전철 사업을 포기하기에는 어스틴이 너무 빠르게 커가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⁷⁾.

제 6 절 어스틴의 교육

어스틴 지역 초중고, 그리고 대학의 공립, 사립학교는 2002-2005년 동안 텍사스 주 교육성 전략 계획에 의하여 운영이 되고 있다¹⁸⁾. 어스틴 지역의 교육 비전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다 함께 텍사스 주를 '등대를 밝히는 주(Beacon State)'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우리의 교통 법규는 ① 직업과 정의를 장려(Encourage)하는 주, ②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인 우리 주민들이 그들의 기능을 최고로 실현할 수 있는 주, ③ 우리 자녀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여 다음 세기에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살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 주는 주, ④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안전감을 느끼고 범죄는 신속하고 확실한 대가를 치르며 그 대가는 만족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모든 주민이 인식하는 주, ⑤ 모든 주민이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주, ⑥ 텍사스인이 꿈

16) *Austin American Statesman*, 2000년 12월호, 11

17) *Austin Journal*, 2000년 12월호, 2.

18) Texas Education Agency, *Texas School of Law Bulletin* (TX West Publishing, 1996), 127.

꿀 수 있는 것은 텍사스인이 이룩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되는 주가 되게 한다.

1. 어스틴의 교육 목표와 우선순위

공립학교 교육에 관한 주의 우선적 목표는 공교육 체재내의 모든 학생들이 3학년 말까지 학년 수준에 적합한 읽기를 배우며, 계속하여 학년 수준에 적합한 읽기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언어와 수학과 사회 과학과 자연 과학에 있어서 모범적(Exemplary)인 성취를 이룩하게 하는 것이다. 텍사스 주교육성은 조지 부시(George W. Bush) 전 주지사가 고등 교육, 경제 발전 분야에 관하여 제시한 텍사스의 비전 "텍사스 주정부의 전략 계획 요소"의 다양한 기준(Benchmark)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어스틴의 우수 학교 표창 제도

어스틴 지역은 교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명예를 높여주는 「텍사스 우수학교상 표창」(Texas Successful School Award)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스틴 지역은 미국 연방 교육성의 「푸른 기장 학교」(Blue Ribbon School)²⁾ 제도에 따라 연방 교육성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우수한 학교를 선정 어스틴 지역 내 푸른 기장을 수여하고 연방 정부에 추천하는 「푸른 기장 학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어스틴 지역 주민들은 두 가지 면에서 이 표창 제도를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다. 교육자들의 학교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동기 유발 요인이 되는 동시에 또한 교육자들의 성취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제도로 생각하고 있다³⁾.

3. 주 교육성의 철학

지식의 보급은 주의 복리 및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모든 학생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은 전체 텍사스 공립학교 교육 시스템-텍사스 주 교육성, 교육 위원회 지역 교육 서비스 센터의 조화된 노력의 산물이다. 텍사스 주 교육성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윤리와 책임감과 능력과 공개의 원칙에 따라 주 공립학

19) Texas Education Program Agency,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ustin: Publication of the Texas Association of School Board, 1998), 213, 21.

교 교육 시스템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주 교육성은 지역의 교육자와 가정과 지역 사회가 모든 텍사스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가져오는 교육 시스템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함을 인정한다. 주 교육성은 학업 성취와 학교 책임의 기준을 수립하고 그러한 기준들을 당사자들에게 알리며 교육을 위한 지방의 권위를 증대시키고 학교구와 지역 교육 서비스 센터들과 주 정부 간의 새로운 관계를 지원한다.

4. 텍사스 주의 교육 재정

텍사스 주 정부의 가장 큰 사업은 교육 사업이다. 10여개의 주정부 기능 중에서 교육에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2002 회계연도의 텍사스 주 정부 예산을 보면(연방 기금을 포함한) 총예산 396억 1,000만 달러 중 교육 기관(agencies of Education) 예산이 166억 7,600만 달러로 약 42.1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부처는 보건 및 인력 지원(Health and Human Service) 예산이 129억 3,100만 달러로 32.9 퍼센트, 경제 발전 부처(Business & Economic Development) 예산이 44억 2,700만 달러로 약 11 퍼센트, 치안 및 교정(Public Safety & Criminal Justice) 예산이 33억 7,200만 달러로 약 8.5 퍼센트, 일반 정부(General Government), 사법(The Judiciary), 자연 자원(Natural Resources), 규제(Regulation), 의회(The Legislature) 등의 예산이 합하여 20억 5,400만 달러인 5.8 퍼센트를 차지한다. 연방 정부의 기금을 제외한 주정부의 예산만을 보면 교육성 예산이 이 중 60 퍼센트이다²⁰.

5. 어스틴의 학교들

어스틴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어스틴의 공립과 사립학교에서는 49.5 퍼센트의 백인 학생과 36.1퍼센트의 히스패닉 학생과 아프리카 미국인 학생이 14.3 퍼센트, 아시아계 및 미국 원주민 학생이 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은 234개의 정규학교와 39개의 대체 교육 기관(Alternative

20) *Texas Education Code: TEC* (Austin: Texas Education Agency, 1999), 2004 Education Improvement Plan, 1999, 15.

Instructional Units)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 교육 기관을 구성하는 단위 학교(Campus)는 대학교(College), 고등학교(High school), 중학교(Middle school), 중학교(Intermediate school),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기초학교(Primary school), 무학년제 학교(Ungraded school) 등 다양하다²¹⁾.

어스틴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130, 중학교가 59, 고등학교가 34이며, 이 중 사립 학교는 초등학교 57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19개교로서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많음은 어스틴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 열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81년에 설립된 텍사스 대학교(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는 텍사스 주 교육의 상징으로 주청사(State Capital) 약 반마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2002년 가을 등록수가 52,261명으로 미국 전역에서 제일 큰 대학이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집회나 스포츠 행사는 주립 대학의 부속 체육관인 Frank C. Erwin에서 개최되며, 약 1만 8천명의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36대 대통령을 역임한 Lyndon B. Johnson의 이름으로 건립된 LBJ Library에는 존슨 대통령에 관한 약 3,000점이 넘는 서적과 서류 그리고 기념품들이 배치되어 있다. Perry-Castaneda Library(PCL)와 Undergraduate Library(UGL)는 각각 200만이 훨씬 넘는 서적과 교육 관계 서류 등을 보유하고 있다.

어스틴 텍사스 대학교(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외에도 4개의 대학과 2개의 신학교가 있다:

Austin Community Colleges(Fall 2002, 등록수를 합하여 27,577명 등록)

St. Edward's University(4,267명 등록, 1885년 설립):Catholic for men student

Concordia University(1,026명 등록, 1926년 설립):Lutheran for students

Huston-Tillotson College(642명 등록, 1876년 설립): For Negro student

Aust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350여명 등록, 1902 설립)

South West Episcopal Seminary(150명 등록, 1951년 설립)²²⁾

제 7 절 어스틴의 종교

21) *Texas Education Code: TEC*, 10.

22) *Encyclopedia Britannica*, ??

어스틴 지역의 성공적인 복음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먼저 이 지역 주민들의 종교 현황을 분석해 보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어스틴 시 통계청에서 인구 조사 발표에 의하면 어스틴 총 인구는 2000년 656,562명 이었다²³⁾. 그 중 백인이 65.36 퍼센트, 히스패닉이 30.55 퍼센트, 흑인이 10.05 퍼센트, 미국 원주민이 0.59 퍼센트,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인구는 4.72 퍼센트였다. 아시아 이민자들을 제외한 자들은 한결같이 개신교나 천주교의 배경을 가졌거나 가진 자들이다.

1. 개신교 (697교회)²⁴⁾

어스틴 시의 개신교 교회는 한국 이민 교포 교회를 포함하여 총 697개 처이다. 이들 중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단이고 다음이 무소속 교회이다.

가. 침례교회 (266교회)

(1)특별한 이름이 붙지 않은 침례교회가 96교회, (2)선교침례교회(Missionary Baptist Church) 35교회, (3)보수 침례교회(Primitive Baptist Church) 14교회, (4)진보 침례교회(Progressive Baptist Church) 11교회, (5)남침례교회(Southern Baptist Church) 71교회, (6)북미 침례교회(North America Baptist Church) 1교회, (7)개혁 침례교회(Reformed Baptist Church) 2교회, (8)독립 침례교회(Independent Baptist Church) 38교회로 어스틴 시내에 총 266교회가 있다. 이것은 Forth Worth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학생 수가 많은 남서 침례교 신학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본다. 또한 교회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어스틴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제일 큰 교회가 자체 방송망을 가진 하이드팍 침례교회이다.

나. 순복음교회 (Assembly of God) (27교회)

순복음교회는 수적으로는 침례교회에 비교할 바가 못 되나 교회 집회 인원수로 볼 때는 대단한 교회들이다. Burnet에 있는 쇼라인(Shoreline Christian Center) 교회는 42세인 라브(Rob)목사가 4년 전에 개척하여 지금 5,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교

23) [Http://AustinTx.areaconnet.com/statistics.htm](http://AustinTx.areaconnet.com/statistics.htm)

24) 2003-2004 Greater Austin Religious Directory, 8-197

회이다 이 교회는 2004년 부활절 행사로 4월 11일 주일 오전 8:45과 11시 예배 시에 "Hero Rebel Savior" 제목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부활까지 이야기를 250여 명이 동원되어 공연을 했다. 물론 이 날은 커크 라보(Kike, Rob) 목사의 설교는 없었다. 또한 기쁜 소식(Glad Tidings) 교회는 매주일 아침 예배에 4,500여명이 모이는 교회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통 교회의 격식과 형식을 벗어나 시대감각에 맞추어 교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적응하는 설교와 교회 운영을 한다. 이들 교회들이 어스틴에 27개 처가 된다.

다. 감리교회 (Methodist Church) (48교회)

어스틴 근교에 감리 신학교가 없는 탓인지 다른 교단에 비해 교세가 약하다.

- (1) 미국감리교회(American Methodist Church) 4교회
- (2)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43교회
- (3) 웨슬리안 교회(Wesleyan Church) 1교회로 모두 48교회이다. 한인 감리 교회도 3교회가 있었으나 지금은 한 교회뿐이며 역시 교세도 약하다.

라. 그리스도의 교회 (Church of Christ) (58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두 58교회이며, (1)그리스도의 교회 53교회, (2)그리스도의 제자교회(Disciples of Christ) 2교회, (3)그리스도의 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3교회이다. 교회는 약하고 교회의 특성도 없는 것 같다.

마. 루터란교회 (33교회)

루터란 교회는 총 33개이며 그 중 (1)루터란 교회(Lutheran Church) 15교회, (2)미국 복음주의 루터란 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America) 18교회이다. 이 교단에서 어스틴에서 제일 큰 어스틴 루터란 교회가 이곳에 한인 루터란 교회를 설립케 하고 계속 순성권 목사를 경제적으로 돕고 있다.

바. 장로교회 (22교회)

- (1) 미국장로교회(PC USA)는 어스틴 장로교 신학교가 있어서 숫자는 많지 않

으나 성도의 수가 1,000명 대형 교회들이 많다. 어스틴 웨스트레이크 힐스 (Austin Westlake Hills)는 3,000명 이상이 모이고, 커버넌트(Covenant)는 2,000명 이상, 제일장로교회(First Presbyterian Church)는 1,000여명이 모이며, 모두 17교회다.

(2) 컴버랜드 장로교회(Cumberland Presbyterian Church)가 3교회이며, 교인수가 모두 300명에서 200명 정도이다.

(3) 장로교 복음교회(Presbyterian Evangelical Church) 1교회

(4) 정통 장로교회(Orthodox Presbyterian Church) 1교회로 모두 22교회이다.

사. 오순절교회 (Pentecostal Church) (29교회)

아. 성경교회 (Bible Church) (5교회)

자. 성공회 (Episcopal Church) (16교회)

차. 나사렛교회(Nazarene Church) (7교회)

카. 그리스도인교회(Christian Church) (17교회)

타. 이슬람교회 (Islam Church) (2교회)

파. 그리스도인 사이언스 (Christian Science) (5교회)

하. 여호와의 증인 (Jehovah's Witness) (2교회)

가. 복음자유교회 (Evangelical Free Church) (2교회)

냐. 구세군교회 (Salvation Army) (1교회)

다. 제7일 안식 교회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8교회)

랴. 유이시 교회 (Jewish Church) (6교회)

마. 유니테리안 교회 (Unitarian Church) (2교회)

바. 재림교회 (7th Day Adventist) (3교회)

샤. 하나님의 교회 (Church of God) (1교회)

야. 시리아 정통 교회 (Syrtian Orthodox) (1교회)

쟈. 형제 교회 (Brethren Church) (1교회)

차. 메노나이트 교회 (Menonite Church) (1교회)

카. 기도의 집 (House of Prayer) (1교회)

타. 조합 교회 (Community Church) (1교회)

파. 에큐메니칼 교회 (Ecumenical Interdenominational Church) (1교회)

하. 개혁교회 (Christian Reformed Church) (1교회)

거. 사도교회 (Apostolic Church) (1교회)

너. 무소속교회 (Non-Denominational) (109교회)

아무 교단에도 소속되지 않은 교회들로 이 교회들은 교단에 간섭을 받지 받지 않은 교회들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교역자들이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어스틴에서는 무소속 교회가 대형 교회는 없는 것 같다. 이 무소속 교회가 109교회나 된다.

2. 천주교 (24교회)²⁵⁾

어스틴 지역의 천주교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형 교회가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히스패닉(Hispanic)이 어스틴 전체 인구의 30.55 퍼센트인 200,579인 까닭이다. 멕시코의 국교가 천주교요 또한 어스틴은 멕시코 국경에 인접한 도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히스패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은 개신교에서 열심히 멕시코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의 교회가 소속된 미션노회(Mission)는 163교회인데 그 중 26교회가 히스패닉 교회다. 그러므로 Hispanic Ministries Council이 따로 있다²⁶⁾. 어스틴 지역에 있는 천주교회는 24교회이다.

3. 불교

어스틴 지역에 있는 불교의 사원은 1702 South 5th Street에 위치한 단 한 곳이다. Ms. Lynn Wolfe 스님이다²⁷⁾. 모이는 불신자들의 성분은 월남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그 중 한국 교포와 태국 사람과 극소수의 미국인들도 함께 모이고 있다²⁸⁾.

4. 무신론자들

25) *2003-2004 Greater Austin Religious Directory*, 106, 115, 122, 145, 190

26) *Mission Presbytery 2004 Handbook* (San Antonio: Mission Presbytery Publishers, 2004), green page.

27) *Greater Austin Religious Directory* (2003-2004, Austin: Life In Co.), 115

28) Ibid.

어스틴 지역의 미국 무신론자 모임은 1개 처가 있다. (7215 Cameron) 이들은 매 월 첫 주 월요일 밤 7시에 모임을 갖고, 강연도 저들에 관한 새로 출판된 좋은 서적들도 소개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저들의 리더는 Madeline O'Hare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유신론자들의 모임이 교회의 영향으로 활발하지는 못하다²⁹⁾.

이상에서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및 무신론자들의 모임을 소개했다. 필자는 개신교에다 일반적으로 이단으로 간주되는 그리스도인 사이언스와 여호와 증인, 유니테리안 교회 및 제7일 안식교회를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저들이 천주교가 아닌 개신교에서 파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어스틴 시민 가운데 위의 어느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한인 교회가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야겠다.

이상에서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 복음화를 앞두고 먼저 어스틴 지역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스틴의 도시 형성 과정과 위치와 토양의 특색, 어스틴의 정치의 특색, 미국과 한국의 정치에 미친 영향과 경제와 산업, 어스틴과 텍사스 대학, 인구나 교통, 교육의 특색과 주민들의 종교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숫자는 밝혔으나 믿는 신자의 수의 자료는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 또한 힌두교(Hindus)³⁰⁾와 무슬림(Muslim)³¹⁾의 자료도 찾지 못했다.

금번 복음화는 한인 교포를 대상으로 하지만 저들이 몸담고 사는 이 어스틴 지역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지역 복음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29) *Greater Austin Religious Directory*, 83

30) 미국에 1,185,000명, <http://www.uwec.edu/phi/re/re/chart.htm>

31) Ibid. 미국에 5,45,000명.

제 3 장

어스틴의 한인사회

제 1 절 어스틴 한인사회의 형성

1882년 5월 22일에 체결된 한미 수호 통상 조약 제6조에 “조선 국민이 미국의 어느 곳이나 내왕하고 거류하며, 토지, 가옥을 매매하고, 건축할 수 있으며, 적당한 영업이란 무엇이나 할 수 있다”³²⁾는 조약 체결에 의하여 미국 이민 100년을 맞는 어스틴 지역 한인 이민자들도 이 법에 의하여 거주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또한 어스틴 지역 한인들은 미국 어느 곳이나 출입의 자유를 보장 받게 되었다.

어스틴 지역 한인 거주자들은 토지, 가옥 매매와 건축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하여 직장 생활은 물론 적당한 영업을 경영하게 되었다.

어스틴의 최초의 한인 거주자들은 모두가 한국전에 참전한 군인 가족들이었다. 이들은 자기들의 신분이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1950년대 말부터 국제 가족들이 다문화 가족들이 어스틴에 거주하면서도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나 한인회나 한국 식당들이 없었으므로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서로가 알지 못하고 지냈다. 전화번호부에도 Last Name이 남편 이름으로 등록되므로 더더욱 그 숫자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이었다. 1960년대 초반에 와서 국제 결혼한 미군 가족 중 프레즈 여사가 한국 사람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프레즈는 공군 장교 출신으로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아 UT에서 후진들을 위하여 봉사한 지성인이었다. 두 분의 결합은 세상이 부러워할 부부(Wonderful Couple)가 되었으며, 슬하에 두 아들이 있다.

32) 윤 사무엘, *미주한인교회 100년의 발자취와 비전* (서울: 보이스사, 2002), 3.

각 이민자들은 자기들의 고유의 문화와 풍습, 종교, 언어를 가지고 와서 그들 나름대로 미국 문화 형성에 적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다³³⁾. 영국인들은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고, 아일랜드 이민자들은 감자와 민속 음악을, 독일 이민자들은 우수한 교육 제도와 고전 음악을,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조각, 오페라, 석조 건축법을, 아프리카 이민자들은 재즈 음악, 민권 운동을 일으키는 계기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동구라파 이민자들은 민속 예술 춤, 봉제 기술 등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은 음식 문화와 고전 무용을 가지고 와서 미국 건설에 이바지 하였다³⁴⁾.

또한 일본 이민자들은 당수(Karate), 음식, 분재(盆載) 산업, 중국 이민자들은 식당, 노동력, 사상, 한국 이민자들은 태권도, 음식, 교회 등이 될 것이다.

어스틴 지역 초창기 한국 이민자들인 남편을 따라 미국에 온 한국 부인들은 음식 솜씨가 대단하고 남편을 섬기는 일에 서구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정성을 다했다. 「분노의 포도」 작가인 존 스타인벡은 「미국 문화」란 영원히 형성되는 성격을 가졌기에 고정 문화가 아니라 변동 문화이며, 미완성의 문화이다³⁵⁾. 초기 어스틴 지역 이민자들인 한국 여성들은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기르고 교육시키는데 혼신을 다하므로 미국 가정 문화를 새롭게 갱신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제 2 절 어스틴 지역의 한인 유입

1. 어스틴 지역의 이민

최근 연방 이민국(INS)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이민 신청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난 1820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에 이민 온 자들은 총 6,60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³⁶⁾. 오늘 미국을 이루고 있는 시민들은 세계 146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로 구성된 합중국(United States)이다.

1965년 케네디 이민법 발효 후 전 세계에서 쿼터(Quarter)별로 1년에 5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 중 27만 명은 이민 순위에 의한 쿼터로 나머지 23만

33) 윤 사무엘, *미주한인교회 100년의 발자취와 비전*, 2.

34) 최효섭, "이민의 나라", *크리스찬 타임즈* 84호, 1998년 5월, 1.

35) John Ernst Steinbeck(1902-68)은 *The Grapes of Wrath* (1939년작)로 196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36) *중앙일보*, 뉴욕판 2002년 3월 7일자, 1.

명은 그 외의 방법으로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³⁷⁾.

이와 같은 나라의 이민 정책에 의하여 어스틴 지역에 온 한인 이민자들은 대다수가 한국동란에 참여한 군인 가족들의 초청 이민자들이다³⁸⁾. 어스틴에 미군 공군 부대가 있었고, 또한 인접 도시인 킬린에는 아직도 미국에서 제일 큰 미군 육군 부대가 있으므로 이들 군인 가족들의 초청으로 온 한인 이민자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좋은 학교가 많은 어스틴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왔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텍사스 대학교(UT)와 St. Edward 대학교, South West Texas State 대학교와 의사 및 간호사들의 취업 이민자들이 있다. 또한 텍사스대에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분들로 계속 늘어나게 되었다.

2. 어스틴 지역의 유학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 대학은 미국 전역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학교이며, 노벨 수상자를 비롯한 우수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텍사스의 기름 왕들이 기부(donation)를 많이 하여 미국 내 어느 대학보다도 등록금이 저렴하다.

이 대학에 한국 학생으로 제일 처음 유학 온 사람은 1970년 초반 서울에서 온 이정학목사이다.

심지어는 한국의 IMF 때 다른 학교는 한국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었으나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 대학은 오히려 타 지역으로부터 전학 오는 한국 학생들과 한국으로부터 오는 유학생들로 인하여 한국 학생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한국의 이름 있는 대학으로부터 꾸준히 교환 교수들과 1년 또는 6개월 연구차 오는 교수진이 끊이지 않는다. 특별히 음악과와 법대, 공대, 물리학 분야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몰려온다. 특히 물리학 분야와 인공위성 분야에는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있다.

필자가 객원 교수(Nonresident Faculty)로 있는 어스틴 장로교 신학교(Aust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에는 M. Div. 코스를 공부하기를 원하는 한국 학생에게는 누구에게나 등록금 전면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문이 1992년부터 지금까지 열려 있다. 그러므로 이 문이 열린 이후 한국 목사들이 9명(남자 7명, 여자 2명)

37) 윤 사무엘, *미주한인교회 100년의 발자취와 비전*, 2.

38) Willoughby, *Austin*, 199.

이나 배출되었다. 이외에도 어학 연수차 온 한국 학생 수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제 3 절 어스틴 지역의 한인 사회 형성사

1. 초기(1950-1960)

어스틴 지역에 처음 온 한인으로서 1960년대 초반에 남편을 따라 이민 온 군인 가족들이 그 대표적이었다. 그 때에 앞에서 언급한 프레즈 여사를 비롯하여 한인 이민자들이 30여명에 불과했으며 모두가 한국전에 참여한 군인들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들이었다. 대부분이 영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었으며 당시에 어스틴에는 한인회와 한인 교회와 한인 마켓과 한국 식당이 없었으므로 한인 이민자들이 만나 서로 이민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는 장소가 없었음을 안타까워했다.

2. 중기(1970-1980)

1970년대 초기에는 어스틴 지역에 버그스트롬 공군 기지와 미국에서 가장 큰 켈린 육군 군부대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국제 결혼한 자들의 가족 초청으로 인하여 어스틴에도 한인 이민자들이 증가되어 500여명에 이르렀다.

또한 서울에서 어스틴 텍사스 주립 대학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이 생기게 되었다. 어스틴 텍사스 주립 대학의 최초의 한국 학생은 교육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러 온 이정학 목사였다³⁹⁾.

3. 한인 이민 사회의 현재(1990-2003)

1980년대에는 어스틴 인구가 53만명이었다. 따라서 한인 인구도 증가하여 1,000명에서 1,500명이 되었다. 1990년대에는 유학생들의 수가 많이 증가하여 한인수가 1,500에서 2,000여명으로 또한 2000년대에는 어스틴 인구가 657,000명으로 급성장하므로 한인 이민자들의 수도 4,000명에서 5,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한인 이민자들의 수가 늘어난 것은 시민권자들의 가족 초청으로 인한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한 것이

39)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1993년 주소록* (Austin: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1993).

다. 또한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IBM이 미국 전역에서 제일 큰 브랜치로 1996년에 새 건물을 완공하였으며, 모토롤라, Dell Computer, M.C.C. 등이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므로 젊은 층의 한국 이민 1세대와 2세대가 늘어났다. 1995년도에는 세계적인 컴퓨터 칩 생산 공장인 한국 삼성이 어스틴 시 35번 Free Way 동쪽 삼성로드에 300에이커 땅을 사서 건물을 완공 공장을 가동하므로 1,200여명에게 일자리를 주게 되었다. 삼성 서울 본사에서 약 20-30여명이 한국 본사로부터 이곳에 파견 근무하게 되어 한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이 무렵에 달라스와 휴스턴 등 큰 도시에서 영어를 구사하는데 불편이 없는 한인 일세들이 대거 이동해 와서 주청사와 IRS 청사를 비롯하여 건물 청소업에 종사하므로 50대에서 70대 연령층의 한인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어스틴으로 모여 들기 시작했다.

제 4 절 어스틴 한인 사회의 종교

어스틴 지역 한인 사회의 효과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먼저 한인 교포들의 종교 현황을 점검해 보는 것은 복음화 전략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일이다.

1. 기독교

한국에서 오는 교포들은 조사 결과 한국의 기독교 교인들의 비율과 비슷한 25 퍼센트 정도였다. 1888년 한국에는 세례 교인이 통 털어 25명밖에 없었다 한다. 그 때에 외국 선교사들이 전부 모여서 기도하기를 “주여 올 한 해 동안 한국에 세례 받는 교인 30명만 허락해 주십시오”란 기도문을 보면 전도가 그렇게 어렵던 시절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⁴⁰⁾.

그러나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성령 폭발 운동으로 1922년까지 신자수가 23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 후 1919년 기미 만세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는 탄압 받고 또한 신사 참배라는 배교 사건에 휘말리어 깊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해방 후 민족의 비극인 6.25를 겪으면서 거듭되는 시련 중에서도 교회는 성장하여 백만

40) 홍정길, *한국 교회는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가* (서울: 두란노, 1995), 16.

명이 되었던 기독교인이 1970년부터 1985년까지 불과 15년 사이에 천만 명으로 성장하는 또 하나의 폭발적인 교인 증가 시대를 맞게 되었다⁴¹⁾.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부흥 발전은 한국 인구의 25 퍼센트가 교회에 나가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산자라는 기적을 낳았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이 곳 어스틴에 처음 오는 교포들의 종교 분포도 네 명 중에서 한 명 꼴이 그리스도 교인인 것을 입증해 준다.

그러나 4년에서 5년이 지나면 전체 교포의 33.3 퍼센트가 천주교를 비롯하여 이곳 20여 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²⁾. 어스틴 한인 인구는 2000년 인구 조사에서 3,441명으로 밝혀졌으나, 인구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산 하면 6,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 한다⁴³⁾.

2. 불교⁴⁴⁾

어스틴 교포들의 불교 신도는 전체 교포 6,000여 명 중에서 1 퍼센트에도 채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은 어스틴 삼성 반도체 사장의 가족과 부사장 이승환 씨의 가족을 중심으로 주일 9:00 AM, 12:00 noon,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7:00-8:00PM에 모임을 갖는다 한다. 불교 사원은 1702 South 5th St. 단 한곳이 있다.

3. 유교

유교를 신봉하는 어스틴 교민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그 특성이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가정을 유교 신봉 가정으로 계산한다. 이 숫자는 아주 미미하여 전체 어스틴 한인 인구의 0.5 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 것 같다⁴⁵⁾.

4. 무종교

어스틴 교포 가운데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66 퍼센트를 웃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이 곳 한인 교회들의 열의 있는 전도로 예수님

41) 홍정길, *한국 교회는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가*, 16

42) 어스틴 한인 교역자 협의회 회장 정기영 자료 제공.

43) 서지원(뉴스 코리아 어스틴 지사장) 자료 제공.

44) *Greater Austin Religious Directory 2003-2004* (Austin: Lafe Inc., 2003), 115

45) Ibid.

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다⁴⁶⁾.

이상에서 어스틴 교포들의 종교 현황을 알아보았다. 금번 어스틴 지역 한인 복음화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잃어버린 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란다.

제 5 절 어스틴 한인 사회의 특성

1. 어스틴 지역 한인회의 구성

어스틴 지역 한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어스틴 도심에서 반경 90 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한인들이다. 이 들 어스틴 한인 사회의 구성원들은 대다수가 이민 역사가 짧으며, 교수, 의사 변호사, 간호사, 회사원 및 서비스와 자영업(식당, 한국 마켓, 옷가게, 가발 상점, 이발 등)에 종사하고 있다.

어스틴 한인 사회는 70년대 말 에모리 대학을 졸업하고 죠지아 대학에서 체육학 박사 학위를 받아 어스틴 텍사스 주립 대학 체육과 교수로 온 김대식 선생으로 인하여 소수 민족으로서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김 선생은 텍사스 주에서 최초로 태권도 도장을 Open하여 많은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므로 민간인 대사로서 조국의 국위를 선양했다.

김대식 선생은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체육과 박사 학위를 받은 제1호이다. 그 후 UT 체육과 교수로 봉직하던 중 1983년도에 초대 어스틴 한인회 회장으로 뽑혀 한인회가 한인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성공리에 정립하여 대 미국 사회(정치, 경제계 등)에 속속히 알려지게 하는데 큰 수고를 해 주셨다⁴⁷⁾.

이 때 그와 더불어 한인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허 명 2대 한인회 회장, 윤원봉 3대 한인회 회장, 최광규 4대 한인회 회장들은 어스틴 한인 사회에서 잊을 수 없는 귀한 분들이다.

초대 김대식 한인회 회장은 체육 분야에서 조국의 후진들을 위하여 크게 기여했다. 그는 어스틴 텍사스 주립 대학교 체육과 교수로 봉직하면서 한국 전국에 산재해 있는 중, 고등 및 대학교 체육 선생들을 여름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초청해 주심으

46) 정기영 어스틴 교역자 협의회 회장 자료 제공.

47) 서지원 한인회 회장 자료 제공.

로 일선에서 가르치는 후진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다.

현재 제11대 어스틴 한인회 서지원 회장(2001년-2003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적인 봉사자이다. 이사회를 조직하고 한인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키 위하여 각 부처장을 두어 다른 소수 민족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한인회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 10대 한인회 심송무 회장은 신문 기자 출신으로 리더쉽이 월등한 분이시다. 2001년 5월 12일 제1회 아리랑 축제를 개최하여 아침 10시부터 남녀 배구, 태권도 시범, 광명 농악대(경기도 광명시)를 초청, 농악대의 공연이 있었다. 이때에 참석한 600여명의 한인들은 아쉬움 속에서 헤어졌다. 이 행사를 위하여 심송무 회장이 4,000여불을 기부해 주었다.

또한 어스틴 산하에 어스틴 한인 노인회가 조직이 되어 지금(2001년-2003년)은 김 황 회장이 수고를 하고 있다. 김 황 회장은 신실한 교회 장로요, 어스틴에서 제일 오래된 한국 식당을 경영하는 사업가이다.

초대 어스틴 노인회 허 명 회장께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노인회 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하여 적지 않은 금액이 적금되어 있다는 소식이다. 허 명 회장은 제2대 한인회 회장, 어스틴 상공회 회장 및 미전역 한인 상공회 회장을 역임하신 분으로 어스틴 한인회 발전을 위하여 귀한 봉사를 새 주셨다.

2. 어스틴 한인 사회의 특성

가. 연령층이 젊다.

어스틴 지역 한인 사회의 특성을 말한다면 그 구성원의 대다수의 연령층이 「젊다」는 것이다. 기백이 있다는 것이다. 한인회를 가도, 교회를 가도 한인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나 타 지역에 비해 젊은 층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것은 어스틴 지역이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의 일감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어스틴이 교육 도시이며 텍사스 주립 대학과 같은 우수한 학교가 있으므로 한국에서와 타주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왔기 때문이다.

나. 영어 구사에 거의 불편이 없다

어스틴 지역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 또한 대다수의 한인들이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가족들이므로 타 지역 한인들과 비교하면 이민 초기와는 달리 영어를 구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절대 다수가 영어를 필요로 하는 일터에서 종사하기 때문이다.

다. 교육 수준이 높다

어스틴 한인 사회 구성원들의 교육 수준이 타 지역 한인 사회에 비하여 높다는 것이 그 특성이다. 그 요인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인들과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 가족이 많다는 것이다.

라. 이해심이 많다

어느 모임이나 단체든 간에 극소수의 가룣 유다는 있는 법이다. 그러나 어스틴 한인 사회 구성원들은 이해심이 많다는 것이 그 장점이다. 그 이유는 배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배운 사람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처형하는 악당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원할 때 그 이유를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고 하심은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집단 한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어 있는 어스틴 한인 사회의 특성은 모두가 이해심이 많은 것이 그 특성이다.

마. 역대 한인회 회장이 모두가 신자였다

필자는 LA 지역에 20여 년간 살아오면서 한인회의 지도자인 회장이 신자가 아닐 경우를 많이 봤다. 어떤 경우는 신자이면서도 불신자보다 더 불성실하게 한인회를 이끌어간 회장들도 있었다.

그러나 어스틴 한인회 역대 회장단들은 한결같이 신자들(개신교 10명과 천주교 1명)로서 어려움이 많은 한인회를 슬기롭게 잘 리드해 왔다.

어스틴 한인회 역대 회장단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초대: 김대식, 2대: 허 명, 3대: 윤선봉, 4대: 최광규,
5 대: 김송원, 6대: 정민호, 7대: 정영복, 8대: 전일용,
9 대: 천원영, 10대: 심송무, 11대: 서지원⁴⁸⁾

이상에서 어스틴 지역 한인 사회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어스틴 지역 한인 거주 의 역사와 교포 이민과 유학의 동향, 한인 이민 사회의 초기(1950년-1960년), 중기(1970년-1990년) 및 현재(1990년-2003년)까지의 발전상과 한인 교포들의 숫자 증가 요인이 된 첨단 반도체와 칩, 컴퓨터 회사인 IBM, Dell, MCC, 삼성 등을 소개했다. 이어서 어스틴 한인 사회의 구성과 그 특성, 역대 한인회 회장들이 모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었음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복음화를 앞두고 현재 한인들의 종교 현황을 연구 분석했다. 현재 매일 아침 20개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자는 한인 전체 인구인 6,000여 명 중에서 37 퍼센트이며, 나머지 63 퍼센트는 무종교이거나 불교나 유교를 신봉하는 자들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어스틴 지역 한인 사회의 100 퍼센트 복음화를 위해서는 신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48)전일용, 1994년, 1995년 어스틴 한인록 (Dallas: 하나기획, 1995), 15

제 4 장

어스틴 지역의 한인 교회

제 1 절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형성

1. 어스틴 지역 최초의 한인 교회들

1903년 1월 3일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이민 온 한국 노동자들은 101명 중 15명은 신체검사에 불합격으로 귀국했다. 남은 86명(남자 48명, 여자 16명, 어린이 22명)에는 50여명의 남녀 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목콜리아(Mokulia) 사탕수수 농장에서 김이제(Kim, Yee Chai) 전도사 인도로 한인 최초의 이민 교회인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가 1903년 6월 4일에 설립되었다⁴⁹⁾.

이 최초의 하와이 미주 한인 교회가 설립된 지 70년 후인 1973년 3월 12일 어스틴 지역 한인 최초의 교회인 어스틴 한인장로교회가 UT에 유학 온 이정학 목사의 인도로 발족되었다. 창립 멤버들은 UT에 유학 온 3 가정의 교수 부부와 두 가정의 학생 부부들이 대학 장로교회(University Presbyterian Church), 206호실에서 매주일 성경 공부(Korean Bible Study)를 한 것이 교회가 된 것이다⁵⁰⁾.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수차례에 선편으로 하와이에 도착한 가족을 포함한 7,200여명 중 400여명의 평신도와 30여명의 교회 직분자가 있었다. 이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예와 같이 대우 받는 혹사당하는 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1905년부터 1907년까지 약 2,000여명이 농장을 탈출하여 미국 본토인 상항(San Francisco)와 나성(Los Angeles) 등에 정착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생활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⁵¹⁾.

49) 윤 사무엘, *미주한인교회 100년의 발자취와 비전*, 8.

50)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51) 양현승, 윤병욱, *미주한인 이민 100년* (서울: 삼화인쇄소, 2002), 1.

1904년에 상항 한인 연합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1906년에는 처음으로 나성 제퍼슨에 나성 연합 장로교회(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134 W. Jefferson Blvd, L.A.)가 설립이 되었다. 이로부터 또 한 번 70년 후인 1976년에 어스틴 한인 연합 감리교회가 정사무엘 목사에 의해 신규한 허 명 두 분의 장로 가정의 협조로 어스틴 지역의 두 번째 한인 교회가 창립되었다⁵²⁾.

2. 남 장로교의 영향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와 남장로교 및 미국 북감리교 선교부는 세 교단이 선교 중 마찰을 피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일찍이 선교 구역을 정했다. 하와이는 북감리교 구역, 북가주는 남감리교 선교 구역, 남가주는 북장로교 선교 구역, 남서부, 아리조나 피닉스(Arizona, Phoenix)로부터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칸사, 미시시피, 알라바마, 죠지아, 플로리다까지 광활한 지역은 남장로교 구역이다.

어스틴 지역의 미국 교회수는 통계에 의하면 교파를 초월해서 677 교회이다. 이들 교회들은 다 남장로교와 포트워스(Forth Worth)의 세계에서 제일 학생 숫자가 많은 사우스 웨스턴(Southwestern) 침례교 신학교와 보수적인 남장로교 신학교였던 어스틴 장로교 신학교(Austin Presbyterian Seminary)의 영향을 받아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동성애자들 안수 문제가 지상에 보도되었을 때 이 지역 일간 신문은 물론 주간지 등 대서특필로 가장 큰 거부 반응을 보인 곳이기도 하다.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들은 이 지역에 있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주위 환경이란 것이 이렇게 중하다는 것을 일선 목회자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실감한다. 모든 교회가 보수 일색이다. 필자가 오래 전에 미네소타 주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와 세인트 폴(St. Paul)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지역은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대부흥가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파라솔 밑 원형 테이블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 때도 역시 한 분의 보수 신앙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필자의 교회 영어사역(EM) 파트에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얼마 전에 주일 오후2

52) 어스틴 한인 연합 감리교회 사무실에서 자료 제공.

시에 열린 예배를 시도했다. 그러나 두 달이 못되어 폐지하였다. 그 이유는 본래 목적이 불신 젊은 층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미 믿는 층들이 전통과 격식을 벗어난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영어사역 관계자들이 필자에게 찾아와서 어스틴 지역이 이렇게 보수적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 적이 있다⁵³⁾.

3.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증가

어스틴 지역의 한인 교회는 타 지역 한인 교회의 영향을 받았다. 1922년에 동부 뉴욕에서는 100여명의 한인과 1개 처의 한인 교회가 있었으나 2003년 현재 약 25만 명의 한인들이 대 뉴욕 지역에 살고 있으며, 프린스턴 신학교의 명예 교수 마삼락(Dr. Samud H. Moffett) 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뉴욕을 중심으로 70마일 반경 내에 한인 교회가 100개 이상이 있다고 한다. 1971년에 나성 지역에는 150여 한인 교회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1000여개 한인 교회가 있다. 미국 내 한인 교회는 1976년에 264개로 증가하던니 1985년에 이르러서는 160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미전역의 한인 교회 수는 2300개 이상이라고 보도했다⁵⁴⁾. 2001년 현재 재외 한인 교회 수는 3,737개로 파악되었으며 미국에는 2,924개 처가 있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⁵⁵⁾.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교파별로 살펴보면 장로교회가 44퍼센트, 침례교회가 15퍼센트, 감리교회 12퍼센트, 순복음교회 8퍼센트, 선결교회 7퍼센트, 기타 14퍼센트라고 한다⁵⁶⁾.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가 2개 처에서 10개 처로 늘어났다.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는 1990년 초까지 2개 처에서 10개 처로 늘어났다. 장로교회가 3개 처, 감리교회가 2개 처, 침례교회가 3개 처, 순복음교회가 2개 처로서 모두가 타 지역에서 각 교파의 성직자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1990년에서 1990년까지 한인 인구는 증가하여 그 수가 3,500-4,000을 육박했다. 개척 교회를 시작한 교역자들은 대부분 1년에서 2년은 교회를 섬기면서 주중에는 파트타임 일을 가지고 교생을 하셨다⁵⁷⁾.

필자도 나성에서 개척 교회를 섬긴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어스틴 지역에서 개척

53) EM 김문석 장로 자료 제공.

54) 동아일보, 1992 10월 27일자.

55) 그리스도인 투데이 2001년 12월 12일자.

56) Ibid.

57) *Austin Journal*, 1990년 3월호, 7.

교회를 섬기는 한인 교역자들은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물론 신학교에서 개척 교회를 섬기는 기본적인 지식을 잘 배우셨겠지만 한인들이 많은 다른 도시에서 교회를 봉사하면서 그 교회들의 리더인 사역자들로부터 삶을 통하여 직접 바르게 교회를 섬기는 산 지식을 터득한 것이었다.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가 1990년 10개 처였으나 2003년 현재 천주교회를 포함하여 20개 처로 확장되었다⁵⁸⁾. 일간 신문과 주간지 광고란을 통하여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가 날로 숫적인 확장이 되어가고 있음을 본다. 어스틴이 하이텍 분야에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젊은 층의 한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교회도 그 구성원이 날로 젊어지고 있다.

제 2 절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현황

1.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가. 역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는 1973년 3월 첫 주일 서울 양평동 교회를 섬기다가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 대학교에 유학 온 이정학 목사를 모시고 대학 장로교회 (University Presbyterian Church, 2203 San Antonio Street, Austin, TX 78705) 교육관 206호실에서 윤중수 교수 부부, 김동성 교수 부부, 문양수 교수 부부, 천동호 부부, 김기회 부부 등 10명의 유학생들이 어스틴 한인 주일학교(Korean Sunday School of Austin)를 시작한 것이 발전하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가 되었다⁵⁹⁾.

2대 교역자로 1974년 2월에 UT에 유학 온 김상정 전도사가 부임하여 1년 2개월 간 수교하셨다.

3대 교역자로 1974년 6월에 한국에서 이민 오신 임원준 목사가 부임하여 1976년 2월까지 이민 개척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면서 교인 수도 40여명으로 성장했다. 임원준 목사는 대구 서현 교회 출신 목사로서 유서 깊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학창 시절에 CCC, 학생 운동을 하신 분으로 조직력과 통솔력이 뛰어나 일당백으로 교

58) *Austin Journal*, 2003년 2월호, 27.

59)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개척 당시 당회 회의록, 1973년 5월.

인들의 내실을 잘 Build Up했다⁶⁰⁾.

제4대 교역자로 김종남 목사가 1976년 2월에 부임하여⁶¹⁾ 1979년 12월까지 약3년 10개월간 말씀 중심의 사역으로 집회 수는 배가 운동이 되어 약 90여명으로 늘어났다. 김 목사는 목회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유학생 가족들이 많은 저희 교회에 교육적인 설교를 많이 해 주심으로 크게 도움을 주셨다.

제5대 교역자로 차영훈 목사가 1980년 4월 첫 주 부활 주일에 부임하시어 1984년 1월까지 사역 기간 동안에 1982년 1월 31일 주일 원좌현, 유승현, 정상봉, 조문연, 허 균 5명의 장로를 세워 조직 교회로서 1982년 2월에 미국 장로교회(PC USA) 미션노회(Mission Presbytery)에 Austin United Korean Presbyterian Church로 등록했다. 같은 해 3월 16일 텍사스 주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정식 등록했다(Charter No. 600375). 또한 1984년 1월 24일 연방 정부 IRS로부터 비영리 단체로 어스틴 한인 이민 교회로서는 제1호로 등록이 되었다. 차영훈 목사는 연세대와 장신대를 졸업하고 군목으로 다년간 수고하신 분으로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제1대 위임 목사(1982년 3월 27일)이며, 노회 및 주정부, 연방 정부의 법적인 절차를 완결하는 일을 해 주셨다⁶²⁾.

1984년 3월 25일 제6대 교역자요 제2대 위임목사로 박정도 목사가 부임하여 5년 2개월간 사무하시면서 학원 목회(Campus Ministry)를 중심으로 교회 내실을 다졌다⁶³⁾.

1989년 6월부터 1990년 7월까지 한국에서 따님 집에 방문오신 김병두 목사가 설교목사로 수고하셨다.

제7대 교역자요 제3대 위임목사로 1990년 8월 5일 주일 필자 박은규 목사가 부임하여 9월 23일 주일 위임하였다. 본인은 대구 신학교와 영남 신학교에서 10여년간 교수로서 목사 후보생을 양성한 경험과 신학교 재학시절에 고령군 우곡면 도진교회를 개척한 경험으로 학원목회인 어스틴 장로교회에 부임하여 교회의 일치와 말씀 중심으로 목회하자 교회가 급성장하여 부임한지 1년 3개월만인 1991년 12월 18일 2000 Justin Lane에 소재한 현재 교회를 구입하여 입당했다. 이 교회는 어스틴 지역 이민

60) 당회 회의록

61) 1976년 2월 제직회록

62) 1982년, 1984년도 당회록

63) 1984년 3월 당시 당회록

교회로서 지금까지 제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⁶⁴⁾.

나. 교인수의 증가

(1) 개척기 (1973-1975)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의 개척기는 제1대 이정학 목사로부터 제3대 임원준 목사까지로서 기간은 3년간이며 어스틴 지역 한인 이민 교회는 본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 또한 조직 교회가 아니었으므로 노회 가입도 하지 못했다. 개척기의 교역자들은 모두가 위임 목사가 아닌 임시로 사역하는 교역자로 수고하셨다. 1973년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10여명으로 출발했으나 김상정 전도사를 거쳐 임원준 목사 때에 와서는 주일 아침 예배에 약 40여명이 참석하는 놀라운 발전을 가져 왔다⁶⁵⁾.

(2) 정착기 (1976-1989)

정착기는 제4대 김중남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차영훈 목사, 박정도 목사까지 13년간으로 김중남 목사의 탁월한 리더십과 차영훈 목사의 뛰어난 행정력과 박정도 목사의 섬세한 교회 교육으로 개척기의 40여명에서 120여명으로 집회가 늘어났으며 주일 학교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다. 이때는 어스틴 지역 한인들이 교회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기이기도 했다⁶⁶⁾.

(3) 부흥기 (1990-2003)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는 질적 양적으로 완만한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1990년 8월 제3대 필자가 위임목사가 부임하면서 급성장하게 되었다. 본인의 목회 철학은 “영혼 구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항상 영혼 사랑에 불이 붙어 있었다. 필자는 부임과 동시에 당시 유학생 가족 중심의 교회 체제를 이민 세대를 포함한 “전천후” 교회로 바꾸었다. 방학이 되면 오늘은 성가대가 없다는 통보를 지휘자가 해 왔다. 방학이 되도 이민 세대를 영입하여 성가대는 매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바로 어스틴 지역에 이민 온 한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의 발효이다. 2003년 말 현재 등록

64) 당시 청빙 의회 회록과 당회록

65)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교회 사무실 통계철, 1976

66) 교회 사무실 통계철

한 교인수가 유년 주일 학교와 더불어 850여명으로 늘어났다⁶⁷⁾.

다. 교회의 현황

1973년 10여명으로 시작한 어스틴 한인장로교회가 필자 박은규 목사가 부임한 이후 교회는 매년 급성장해왔다. 5500 Ave G에서 현 교회로 이전하여 많은 교육을 위한 교실과 큰 본당과 친교실을 가지게 되어 이민 교회로서는 이 지역에서 손색이 없는 교회 공간을 가지므로 지역 사회(한인회와 노인회)를 위하여 기여함으로 이민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2003년 현재 교역자로는 박은규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3명의 부교역자와 6명의 교육 전도사와 장로 11명, 권사 39명, 안수집사 23명, 서리집사로 남자 88명, 여자 111명이 각각 자기 분야에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⁶⁸⁾.

년도	1990	1993	1996	1999	2002	2003
교인수	180	404	466	710	753	851
구역수	10	28	26	14	29	25
장로수	5	5	10	13	16	11
권사수	5	6	6	15	36	39
집사수	51	107	121	127	207	222
어린이	23	63	86	116	123	116
중고등	13	27	15	45	70	105
청년	7	26	56	100	70	69
장년	137	288	309	449	490	562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현황⁶⁹⁾

라. 교회의 특성

(1) 설교

67) 교회 사무실 주보 통계철

68) 어스틴 한인 교회 2003년 주소록, 10, 1.

69)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사무실 제공

일선 목회자로서 설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행정 능력이 좀 부족해도 심방을 덜 다닌다고 해도, 부드러운 목회자 이미지가 없더라도 설교의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커버될 수 있다고 본다. 이곳에 이민 온 교우들의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큰 동기 중 설교는 늘 수위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좋은 설교자는 좋은 행정, 좋은 경영, 좋은 목회적 돌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반은 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로 믿는 교우라 할지라도 그들은 말씀을 통해 자기의 삶의 정황에 호소하는 적절한 말씀을 기대하며 교회를 찾아본다.

설교란 목회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목회적 과제이다. 또한 설교란 끊임없이 연구하며 느끼며, 경험 되어지는 복합적인 작품이다. 설교자의 영성과 묵상과 기도와 계속되는 노력 속에 좋은 설교자가 바로 지역 교회에서 나올 수 있다. 오랫동안 그 지역 회중과 삶을 나누는 가운데 그 지역 교회 회중에게 가장 절실한 설교를 설교자는 줄 수 있다.

바람처럼 왔다가 속사포처럼 화려한 설교를 쏟아대는 부흥강사보다도 그 회중과 눈물과 아픔, 그리고 기쁨을 오래 나누는 지역 설교자가 참된 설교자이며, 그 회중에 어울리는 깊은 설교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설교의 특성은 엄격하고 조직적인 설교는 아니다. 회중들과 토론하고 회중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대화식 설교이다. 본문 설교를 이야기 식으로 조용히 청중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함께 설교를 만들어가는 회중 참여적인 설득력이 있는 설교를 한다.

필자는 <교회력과 성서 일과>를 통하여 말씀의 연속성으로 무질서한 주관주의나 일순간적인 감상이나 최근의 베스트셀러의 신학 사상에 도취될 가능성에서 항상 새로운 시각을 안겨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필자의 설교는 철저하게 본문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한 강해 설교이다. 이것은 신학교 재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가 얼마나 귀한가를 최정원 목사님을 통하여 배웠다. 또한 필자의 설교는 그 분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 분은 학생들에게 신학교 재학 시에 친구약 100독 이상하기를 권장했다. 미국에 와서는 로이드 존스나 스펀전의 설교를 통하여 강해 설교의 소중성을 깨닫고 데니스 레인에게서 좋은 모델을 발견하였으며, 존 스토틀로부터 많은 영향

을 받았다.

불신자와 초신자가 갖는 관심, 그들의 필요에 호소하며, 공감대를 갖는 설교를 한다. 목회자가 설교하고 그 설교를 삶에 실천하며 모든 교우들에게 신뢰받는 설교자가 되어 가는 것이다. 필자의 이 설교는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케이블 TV 채널 11에서 생방송으로 어스틴 전 지역에 방송되는 것이 특성이다.

(2) 교육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교육부의 특성은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층에 신학과 성서적인 배경을 가진 전담 교역자와 교사를 두어 전문성을 띤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어스틴 교회의 모든 교육(유년 주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상록대학, 장년부 등)은 혼(H. H. Horne)이 지적한 예수님의 교육 목적을 현대 교육 목적 7가지 내용을 참고로 교육하는 것이 그 특색이다⁷⁰⁾.

첫째: 예수님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성격의 기준들을 가르치셨고 또 그렇게 사셨다.

둘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체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로 온전케 하셨다.

셋째: 예수님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적해 보이셨다.

넷째: 예수님은 윤리적인 진리와 영적인 진리를 모두 가르치셨으며, 제자들의 지성도 훈련 시키셨다.

다섯째: 예수님은 자신이 한 사람의 선량한 시민으로서 세속적인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치셨다.

여섯째: 예수님은 자신이 목수로서 경제적인 문제를 밝히 가르치셨다.

일곱째: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시며, 영적으로 변화한 생명이셨다.

이 7가지 교육 목적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셨다고 혼은 주장한다⁷¹⁾.

각 층의 반도 아주 세분되어 있다.(2003년도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일람표)

가. 유아부(1-5세):

70) H. H. Horne, *Jesus the Master Teacher*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20), 51

71) Ibid., 51-52

영아부 (0-2세)

유아부 (2-3세)

유치부 (4-5세)

나. 유년부(1-5학년):

1학년 4학년 A

2학년 A 4학년 B

2학년 B 5학년 A

3학년 A 5학년 B

3학년 B

다. 중고등부(6-12학년):

6학년 A 8학년 A 10학년 A

6학년 B 8학년 B 10학년 B

7학년 A 9학년 A 11-12학년 A

7학년 B 9학년 B 11-12학년 B

라. 청년 1부(College):

A반 E반

B반 F반

C반 G반

D반 H반

마. 청년 2부(Graduate School):

A반 E반

B반 F반

C반 G반

D반 H반

바. 장년부:

- ㄱ) 장년 성경공부반 22개 반
- ㄴ) 신혼부부반
- ㄷ) 새 가족반
- ㄹ) 성가대반
- ㅁ) 인도자 성경공부반
- ㅂ) 주일 한글학교

사. 상록대학

아. 베델성서대학

(3) 음악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음악부의 반주와 지휘자들과 대원들은 주로 UT 음대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호산나 성가대, 시온 성가대, 할렐 루야 성가대, 오케스트라, 금요 찬양팀, 샬롬 중창단 및 레위 중창단 등으로 분류되어 서로 선의의 경쟁으로 잘하고 있다. 특히 매주 토요일 밤 9시 30분 채널 11에서 어스틴 지역 소수 민족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예배 프로그램이 생방송되고 있다.

2. 어스틴 한인 연합 감리교회

가. 역사

나성에서 어스틴 지역 IBM에 기술자로 온 정사무엘 목사가 허 명, 신규한 두 가정을 중심으로 1976년 3월에 어스틴 한인 연합 감리교회를 창립하였다. 정 목사는 IBM에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므로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하였으며 또 약 2년 후에 직장 이동으로 교회를 사임했다⁷²⁾.

72) 허 명 장로 자료 제공.

제2대 목사로 1979년 1월에 윤철환 목사가 부임하여 60여명의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므로 정착기 교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제3대 전정옥 목사가 1982년 1월에 부임하시어 교회는 급성장하게 되었다. 전목사는 해군 군종감으로 제대한 군목 출신으로 목회 철학이 뚜렷하고 카리스마적인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다. 또한 설교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며 사람들을 잘 통솔하는 은사가 있어 전 목사님이 시무하는 동안 어스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한인 교회로 알려졌다. 전목사가 1988년에 은퇴하시고 제 4대 담임 교역자로 허도범 목사가 부임했다. 허 목사는 독일에 약 3년간 한국 교포 교회를 섬겨온 분으로 젊은 나이에 외국어에 능숙하고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목회에 100분 활용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전임목사인 전목사께서 부흥을 일으켜놓은 교우들을 잘 돌보지 못하여 다른 이웃 교회로 흩어지기 시작했다⁷³⁾.

제5대 정기영 목사가 담임 목사로 1994년에 부임했다. 정 목사는 감신대를 거쳐 미션 스쿨에 교목으로 봉사한 경험이 있어 유학생 가족이 많은 어스틴 학원 목회를 잘 감당했다⁷⁴⁾.

나. 교인수의 증가

(1) 개척기(1976-1978년)

이 교회를 개척한 정사무엘 목사는 1976년 3월 두 가정으로 시작 어스틴 한인 연합 감리교회를 위중에 IBM에 근무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정 목사가 떠날 무렵에는 40여명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컴퓨터를 전공한 분으로 조직력이 대단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세밀한 부분까지 정 목사가 직접 관여하셨다⁷⁵⁾.

(2) 정착기(1979-1981년)

2대 담임목사로 서울에서 감신대를 졸업한 윤철환 목사가 1979년 1월 부임하셨다. 세월이 흘러 40여명에서 60여명이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케 되었다. 윤 목사는 풀타임 사역자로 전적으로 교회에 매어 달려 교인 관리를 잘하였다⁷⁶⁾.

73) 어스틴 감리교회 이충남 장로 자료 제공

74) 어스틴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자료 제공

75) 허 명 장로 자료 제공

(3)부흥기(1982-1988년)

제3대 목사로 해군 군종감 출신인 전정옥 목사가 부임하셨다. 그의 카리스마적 지도력과 뛰어난 설교와 훌륭한 인품으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1988년에는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150여명이 참석하므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 교회 부흥은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사역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 후 허도범, 정기영(1989-2003년) 목사들이 맹활약을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교회 분열과 교우들이 흩어지므로 쇠퇴하게 되었다⁷⁶⁾.

다. 교회의 현황

1976년도 두 가정으로 시작한 어스틴 한인 연합 감리교회가 1982년 전정옥 목사가 부임하므로 교회가 급성장하여 150여명이 주일예배에 참석케 되었다. 불행하게도 전목사가 은퇴한 후 교회는 계속 분규 사건으로 끝내 수습을 못한 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년도	1976	1980	1984	1988	1992	1996	2000	2003
교인수	20	60	100	150	120	80	70	50
구역수	3	7	12	16	12	8	5	4
장로수	2	3	2	-	-	-	-	-
권사수	-	-	-	-	-	-	-	-
집사수	4	10	24	32	26	20	20	12
어린이	2	6	21	31	25	13	13	9
중고등	-	-	-	13	8	-	-	-
청년	2	4	5	7	5	8	3	3
장년	18	45	74	100	82	59	44	38

어스틴 한인 연합 감리교회 현황⁷⁸⁾

76) 허 명 장로 자료 제공

77) Ibid.

78) 어스틴 한인 연합 감리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라. 교회의 특성

(1) 설교

어스틴 감리 교회 성장 전성기인 전정옥 목사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 “꿈을 가져라” “당신도 할 수 있다” “가능성의 용기를 가져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등 학업과 이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무한한 격려와 용기를 주는 설교였다⁷⁹⁾.

(2) 상담

전정옥 목사는 오랜 목회 경험을 토대로 이민 가정과 학생 가정들의 상처 입은 자들을 말씀으로 예수님의 상담 방법을 동원하여 훌륭한 상담 사역을 감당하므로 어스틴 연합 감리교회를 주께서 날로 사람을 더하게 하시므로 부흥 일로에 있었다⁸⁰⁾.

3.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

가. 역사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는 South Western 침례교 신학을 졸업한 김정주 목사가 1985년 2월 17일 어른 3사람과 어린이 1명과 함께 어스틴 다운타운 2200 San Antonio St.에 있는 미국 침례교회 교육관에서 개척을 시작했다.

이 교회의 위치가 UT를 인접한 곳으로 주로 UT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원 목회에 중점을 둔 김정주 목사의 목회 철학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김정주 목사는 젊고 또 고등학교와 대학을 미국에서 공부했으므로 영어에 불편이 없었다. 성경 공부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은사를 받은 자였다. 많은 유학생 가족들이 모여 들었다⁸¹⁾.

불행히도 이 젊은 김 목사는 폐암으로 목회의 큰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2001년 1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필자는 김 목사가 필자의 큰 아들과 나이가 같아 아들처럼 아꼈 후배였다. “선배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학원 목회가 아닌 이민 교회 목

79) 어스틴 한인 연합 감리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80) Ibid.

81)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회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 해 온 김 목사의 열의 있는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2001년 8월 2대 담임 목사로 김성배 목사가 부임했다. 김 목사는 UT에 공학 박사를 소지한 자로 UT에서 공부할 때 김정주 목사 교회에 출석하면서 많은 봉사를 한 분이였다. 한국에서 침례교 신학을 졸업한 새로 부임한 김성배 목사는 전교인 “제자 훈련”에 역점을 둔 특색 있는 목회로 교회의 큰 부흥을 가져 왔다. 지금은 필자가 섬기는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다음으로 어스틴 지역에서 성장한 교회가 되었다⁸²⁾.

나. 교인수의 증가

(1) 개척기와 정착기(1985-2000년)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는 1985년 2월 개척 당시 장년 3명과 어린이 한 명으로 시작했으나 헌신적인 김정주 목사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의 결실로 1990년에는 장년 80여명, 어린이들이 40여명으로 성장하였다. 김 목사의 뛰어난 전교인 성경 공부로 그가 소천하기 전인 2000년 말에는 장년 150여명, 어린이 70여명으로 늘어났다⁸³⁾.

(2) 성장기(2001-2003년)

김정주 목사께서 개척 교회 기반을 튼튼하게 닦아 두셨다. 그 후에 제2대 김성배 목사는 공학 박사로서 신학을 한 분으로 보다 더 폭 넓게 교회를 목양하심으로 2001년 8월에 부임하신 후 전교인 제자화 운동을 실시하여 2003년 말에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장년 300여명, 아이들 100여명으로 성장했다⁸⁴⁾.

다. 교회의 현황

1985년 2월 17일 장년 3사람, 어린이 1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2003년 현재 장년 300여명, 어린이 100여명으로 성장했다. 이와 같은 부흥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김정주 목사의 투철한 개척 정신과 아울러 사람 사랑하는 마음과 김성배 목사의 전교인 제자화 운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룩된 것이다.

82)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 김성배 목사 자료 제공

83) Ibid.

84) Ibid.

년도	1985	1990	1995	2000	2003
교인수	10	130	150	300	400
구역수	1	4	15	20	40
장로수	-	-	-	-	-
집사수	1	6	7	10	20
어린이	3	40	50	70	100
중고등					
청년	-	10	15	20	33
장년	7	80	85	210	267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 현황⁸⁵⁾

라. 교회의 특성

(1) 구성원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는 1985년 2월 초대 김정주 목사 개척 당시부터 학원 목회하는 교회로 이 지역에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를 학생 침례교회라고 호칭하기까지 했다. 고 김정주 목사가 어느 한인 모임에 가면 으레 소개하기를 학생 침례교회 김정주 목사라고 했다. 아직까지도 이민 가족이 함께 어울리기가 힘 드는 것 같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성경 공부

제 2대 김성배 목사의 부임 후로 전교인 제자화 운동을 강행하여 어스틴 지역 이민 가족들을 끌어안은 포용성을 보이는 사역으로 날로 성장 일로에 있게 되었다.

4. 늘푸른 교회

가. 역사

85)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어스틴 한인 순복음교회는 1989년 정초 지원갑 목사가 어른 10명과 어린이 5명으로 시작하였다. 이때는 교회 이름이 「어스틴 한인 선교교회」로 발족했다. 1992년 교회 명칭을 「어스틴 한인 제일 순복음 교회」로 바꾸었다. 이때는 교회가 안정되었고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들이 지 목사를 도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월-토까지 아침 6시 기도회도 계속되어 장년 40여명, 어린이들이 20여명 가까이 이르렀다⁸⁶⁾.

2000년 1월 정기영 목사가 제2대 목사로 부임하여 2002년 4월에 「늘푸른 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정기영 목사는 한국에서 감리교 신학을 하시고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미국에 잠깐 체류하는 동안 친척들의 권유에 의해 이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 정 목사는 설교에 뛰어난 은사를 받았고 인품이 감명을 주는 예수님의 인품으로 누구라도 만나면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분이시다. 그리하여 짧은 시간에 2003년 말 현재 장년 70여명, 아이들 30여명이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기적을 낳았다⁸⁷⁾.

나. 교인수의 증가

(1) 개척기와 정착기(1989-2002년)

늘푸른 교회는 선교 교회로 출발하여 어스틴 한인 제1 순복음 교회⁸⁸⁾로 발족한 때를 이 교회의 개척기와 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지원갑 목사는 미국 순복음 교회 계통의 신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어스틴에 와서 늘푸른 교회 전신인 어스틴 선교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다. 매일 아침 6시 기도회로부터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는 중 1992년 초 교단을 바꾸어 「어스틴 한인 제일 순복음 교회」의 이름으로 순복음 교단의 뜨거운 열풍을 일으켜 1999년 말에는 장년 40여명과 어린이 20여명으로 성장했다.

(2) 성장기(2000-2003년)

2000년 1월 정기영 목사가 부임 후 늘푸른 교회로 이름하여 예수님의 심정으로 섬기는 사역과 이민 생활과 학업 생활에 상처 입은 자들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으로 교회는 날로 성장하여 2003년 12월에는 장년 70여명, 아이들

86) 늘푸른 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87) 정기영 목사 자료 제공

88) 늘푸른 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30여명으로 성장하여 아담한 자체 건물도 가지게 되었다.

다. 교회의 현황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 중에서 「늘푸른 교회」는 정기영 목사 부임 이후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온 교우들이 정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다른 교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정 목사는 이민 목회의 바쁜 일정 중에도 어스틴 근교에 있는 스와밀에 주일 아침 예배를 매 주일 인도하며 어스틴 지역의 한국 가게마다 「늘푸른 교회」 주보와 카세트와 한 달간 「늘푸른 교회」의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이 배부되어 있다.

년도	1989	1994	2000	2003
교인수	30	60	55	100
구역수	2	63	5	10
장로수	-	-	-	-
권사수	-	-	-	-
집사수	3	7	6	15
어린이	10	20	13	30
증고등	-	-	-	-
청년	-	-	-	-
장년	20	40	42	70

늘푸른 교회 현황⁸⁹⁾

라. 교회의 특성

(1) 돌봄의 특성

늘푸른 교회의 특색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교회로 유명하다. 이민 교회가 당하는 아픔 중에 하나가 극소수의 불순한 책동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같은 주를 섬기는 자들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늘푸른 교회도 이와 같은 고통을 정 목사 부임 이후에 있었다. 그러나 정 목사의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89) 늘푸른 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는 사역을 성공리에 잘 감당한 교회였다.

교회를 나간 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목사에게도 정 목사의 우호적인 대화로 잘 사귀며 격려하는 여유 있는 마음은 남은 자들에게나 나간 자들에게 다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 주는 인품이었다⁹⁰⁾.

(2) 평신도 지도자 양성의 특성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제자 훈련의 중요한 교육 방법을 목회 현장에서 실천한 교회이다. 늘푸른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 훈련에 대한 성경적 실례를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 선용했다⁹¹⁾. 평신도 지도자의 권위는 성경이 중심이 되고, 평신도 지도자의 윤리는 사랑이 중심이 되고 평신도 지도자의 콘텍스트(context)는 교회이고, 평신도 지도자의 책임은 예수님이시고, 평신도 지도자의 능력은 성령이 중심이다⁹²⁾는 K. O. Gangel 이론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 양성이다.

5. 라운드락 한인 장로교회

가. 역사

라운드락 한인 장로교회는 1995년 12월 10일 한국 합동측 교단 소속 김광석 목사가 교인 3가정을 중심으로 개척했다. 보주주의 신학과 신앙을 바탕으로 한 김 목사는 하루 24시간 꿈길에도 교회를 위하여 뛰고 뛰어 1999년 8월에 (211 Glenn Dr., Round Rock, TX 78664) 현재 교회당을 구입했다. 김광섭 목사는 킬린에 있는 텔몬산 기도원 원장이신 춘부장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도 어스틴 지역에서 알려져 있다. 젊은 청년 목사로서 어려움이 많은 이민 목회를 잘 감당하므로 교회는 날로 성장해 가고 있다.

나. 교인수의 증가

(1) 개척기 및 정착기 (1995-2000년)

90) 늘푸른 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91) 민수기 11:15, 17, 25, 행 6:4-7, 딤후전 3:1-7, 살전 5:12-13

92) K. O. Gangel, *Leadership for Church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77), 181-188.

김광석 목사는 1995년 12월 교인 3가족으로 라운드락 한인 장로교회를 개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국 교회 새 땅으로 시작했으나 1999년 8월 꿈에도 소원인 단독 교회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적은 바로 김 목사를 교역자로 모시고 말씀 순종하는 전 교우들의 뜨거운 기도의 응답으로 본다. 또한 김 목사는 효자이다. 많은 교우들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지극한 효성에 감명을 받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므로 강단의 말씀과 삶이 일치하므로 훌륭한 목사님으로 칭찬을 받고 있다.

(2) 성장기 (2001-2003년)

1995년 12월 교인 3가정으로 시작한 라운드락 한인 장로교회는 김광석 목사의 피나는 사역으로 2003년 12월 현재 장년 40여명, 아이들이 20여명으로 성장했다⁹³⁾. 아직도 이 라운드락 지역은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은 곳으로 김 목사는 꾸준히 예수님의 심정으로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하므로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전망이 있는 지역으로 시간이 흐르면 한인들이 좋은 학군을 찾아 밀집할 수 있는 곳이다. 김 목사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이곳 방주를 세운 것으로 본다.

다. 교회의 현황

년도	1995	2000	2003
교인수	9	36	60
구역수	1	2	3
장로수	-	1	-
권사수	-	2	3
집사수	-	2	3
어린이	3	6	20
종교등	-	-	-
청년	-	-	-
장년	6	30	40

93) 라운드락 한인 장로 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라운드락 한인장로교회 현황⁹⁴⁾

라. 교회의 특성

헬몬산 기도원 원장이신 김광석 목사의 아버지 목사의 영향을 받아 어느 교회보다도 기도에 열중하는 교회이다.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로 이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교회이다.

6. 하이드팍 한인 침례교회

가. 역사

하이드팍 한인 침례교회는 1983년 11월 초 박종탁 목사가 10여명의 교인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미국 침례교회 교육관의 한 교실을 빌려 개척을 시작했다. 같은 해 83년 6월 저희 어스틴 장로교회에서 시무하시던 차영훈 목사가 하이드팍 한인 침례교회 제2대 교역자로 새 출발을 하게 되어 1998년 10월까지 성공리에 이민 목회를 하시고 영예로운 은퇴를 하셨다⁹⁵⁾. 1998년 11월 제3대 교역자로 이요한 목사가 부임하여 1999년 말까지 사역하셨으나 교회는 점점 교세가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⁹⁶⁾.

제 4대 교역자로 김한길 목사가 2000년 정월 초에 부임하시어 성서대학을 졸업한 사모님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교회를 섬기므로 그간 기울어져 가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 2003년 12월 현재 약 50여명의 장년과 10여명의 어린이들이 주일 아침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⁹⁷⁾.

나. 교인수의 증가

어스틴 하이드팍 한인 침례교회는 83년 1월 박종탁 개척 사역자로부터 제4대 담임 김한길 목사까지 20여년간 어스틴 한인 사회를 위하여 수고한 교회이다.

94) 라운드락 한인장로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95) 하이드팍 한인 침례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96) 하이드팍 한인 침례교회 차영훈 원로목사 자료 제공

97) 하이드팍 한인 침례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1) 개척기 (1983-1990년)

박종탁 목사가 1983년 1월 하이드팍 한인 침례교회를 UT 유학 온 학생 10여명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했으나 반년이 못되어 어디론가 잠적했다. 그리하여 제2대 담임목사로 연대 신과를 졸업하고 장신대를 나오고 군목 경험과 민간인 교회 목회 경험이 풍부한 차영훈 목사가 같은 해 6월에 취임하시어 1998년 10월까지 15년간 말씀 중심의 설교와 심방과 주님께서 보여 주신 섬기는 자세로 목양하므로 장년 50여명, 어린이들 30여명이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케 되었다⁹⁸⁾.

(2) 정착기 (1991-1999년)

겸손한 목회자의 스타일을 가진 차영훈 목사는 이화여대 음대 성악가 출신인 사모님과 함께 말씀 중심의 설교와 성경 공부 및 성가대를 통하여 어려움이 많은 학업과 이민 생활에 지쳐 있는 교민들을 위로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은퇴하신 1998년 10월엔 집회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제3대 이요한 목사가 부임한 이후로 교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잠시 동안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⁹⁹⁾.

(3) 성장기 (2000-2003년)

한국에서 약제사였던 김한길 목사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샌 안토니오에 있는 침례교 계통의 성서대학을 졸업한 사모님과 결혼한 후 2000년 초 하이드팍 한인 침례교회 제4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열심으로 사역을 하여 기울어져가는 교회를 부흥시켰다. 김목사는 목회 초년생인데도 은혜로운 설교로 많은 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며 UT가 다른 한인 교회에 비하여 가장 인접한 교회로서 처음 미국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 가족을 잘 돌봐주므로 주일 아침 예배에 장년 60여명, 어린이 30여명이 나와 은혜를 받고 있다¹⁰⁰⁾.

다. 교회의 특성

98) 하이드팍 한인 침례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99) 하이드팍 한인 침례교회 차영훈 원로목사 자료 제공

100) Ibid.

(1) 섬기는 목회

하이드팍 한인 침례교회 구성 요소의 특성은 UT 유학생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교회이다. 특별히 김한길 목사 내외분은 인상이 부드럽고 교우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는 것이 특성 중의 하나이다.

(2) 골프 선교회

김한길 목사는 약사 출신으로 어스틴 교역자 협의회에서 가장 골프를 잘 하는 교역자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이곳으로 교환 교수로 오신 분들이나 박사 코스에 오신 분들을 인도하여 골프 선교회를 조직 훈련시켜 심신의 단련을 하면서 영혼 구원에 역점을 두는 좋은 선교회이다¹⁰¹⁾.

7. 말씀의 교회

가. 역사

어스틴 지역에 있는 한인 말씀의 교회는 미국 루터란 신학교를 나온 손성권 목사가 1999년 5월 첫 주일에 같은 교단인 미국 루터란 교회 교육관(2100 San Antonio St., Austin, TX 78753)에서 손목사와 사모님이 예배드린 것이 교회 개척의 출발이었다¹⁰²⁾.

말씀의 교회는 창립 4돌을 맞이하면서 교회 이름대로 성경 말씀 공부에 열중해 왔다. 다른 한인 교회 집회에 지장이 되지 않는 시간인 토요일 오전을 이용하므로 많은 한인 교회 교인들이 참여해 왔다.

또한 손 목사는 주중에 학생 가족 Wife들과 이민 가족들을 상대로 기초 영어 공부를 해 왔었다.

나. 교인수의 증가

손 목사는 한인들에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루터란 교회를 개척하므로 무척 힘이 들어 하였다. 그러나 그가 받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하

101) 하이드팍 한인 침례교회 차영훈 원로목사 자료 제공

102) 손성권 목사 자료 제공

여 2003년 12월 현재 주일 아침 예배 참석자가 20여명의 장년들과 10여명의 어린이들로 성장했다.

다. 교회의 특성

교육에 역점을 둔 교회이다. 손 목사는 인품이 훌륭하고 성격이 차분한 분으로 1999년 루터란 신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루터란 교단에서 어스틴 지역에 한인 교회를 설립코자 손 목사를 파송한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란 교단에서는 손 목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¹⁰³⁾. 특별히 손 목사는 본인이 직접 ESL 영어반을 교회에서 운영하여 영어 학습이 필요한 교포 성인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1) 교육에 역점을 둔 교회

손목사는 인품이 훌륭하고 성격이 차분하며 1999년 루터란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므로 인하여 루터란 교단에서 어스틴 지역에 한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파송한 것이다. 손목사는 본인이 직접 ESL 영어반을 교회에서 운영하여 영어 학습이 필요한 교포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2) 어스틴 최초의 한인 셀 교회

손목사는 셀 교회의 대가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or)의 영향을 받아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셀 교회를 시작했다. 손 목사는 그의 저서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Where do we go from here*)를 여러 번 읽은 후에 새로운 영감을 얻어 셀 교회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통 교회는 건물 중심이다. 교회 모든 프로그램은 교회 건물 안에서 실시된다. 교회는 한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건물의 수와 공간에 제한된다.

그러나 셀 교회는 사람인 공동체 중심이다. 셀 교회의 사역은 교인들이 살고 있는 집과 직장과 공동체 등의 흩어지는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전통 교회는 “오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그들의 사역이 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학교나 예배에 참석토록 교회 건물 안으로 데려오는 일로 국한된다. 그러나 셀 교회는 “가라” 구

103) 말씀의 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조이다. 셀 교회는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전도를 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조직이다. 새로 시작한 셀 교회가 잘 되어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고 있다¹⁰⁴⁾.

8. 예수 찬양 교회

가. 역사

예수 찬양 교회는 1990년 1월 첫 주일 미국 오순절 신학을 나온 안일용 목사가 5명의 신도와 같이 예배드림으로 출발이 되었다. 안일용 목사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분으로 많은 교우들에게 미국 정착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보살피며 줌으로 집회 수는 점점 늘어나 2000년에는 많은 장년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개척 당시에는 미미하게 시작했으나 13년이 지난 2003년 12월에는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¹⁰⁵⁾.

나. 교인수의 증가

(1) 개척기 (1990-1995년)

안일용 목사는 미국 오순절 신학교를 나왔으므로 그의 특이한 성령의 뜨거운 열의가 있었다.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도, 말씀을 증거 할 때도 피부로 복음에 대한 열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척기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미국 목사들과 같이 Job을 뛰면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므로 1995년 말에는 40여명의 장년과 1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했다.

(2) 정착기와 성장기 (1996-2003년)

예수 찬양 교회는 1996년부터 이민 교회로서 어스틴 땅에 뿌리를 내리고 2003년까지 계속 성장해 갔다. 그리하여 2003년 12월에는 장년이 60여명, 어린이들이 30여명으로 크게 성장했다. 안목사의 참신한 교회를 위한 사역이 어스틴 한인 교포 사회에 알려짐으로 예수 찬양 교회는 집회가 뜨거워지고 찬양과 기도는 힘이 있었다¹⁰⁶⁾.

104) 손성권 목사 자료 제공

105) 예수찬양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106) Ibid.

다. 교회의 현황

년도	1990	1995	2003
교인수	5	50	90
장로수	-	-	-
권사수	-	-	-
집사수	-	-	-
어린이	-	10	30
중고등	-	-	-
장년	5	40	60

예수 찬양 교회 현황¹⁰⁷⁾

라. 교회의 특성

예수 찬양 교회의 특성은 교인들의 연령층이 젊다는 것이다. 영어에 불편이 없는 안 목사는 전 교우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며, 미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교인들을 잘 돌보는 사역이 예수 찬양 교회의 특성이다¹⁰⁸⁾.

9. 기타 한인교회들

기타 교회는 자료를 보내 주지 않은 교회들로서 어스틴 한인 천주교회를 합하여 12개 교회가 된다.

가. 교회 이름과 섬기시는 교역자들의 성함

- | | |
|-----------------|--------|
| (1) 한인 천주교회 | 정건식 신부 |
| (2) 어스틴 총현 장로교회 | 이인승 목사 |
| (3) 예랑 교회(침례교) | 박성인 목사 |
| (4) 큰빛 교회(장로교) | 김대영 목사 |

107) 예수찬양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108) Ibid.

(5) 하이드팍 한인 기독교회(침례교)	엄규남 목사
(6) 주님의 교회(침례교)	김성원 목사
(7) 어스틴 순복음 교회	박권을 목사
(8) 어스틴 북부 한인교회(침례교)	남진석 목사
(9) 베데스다 장로교회	이평덕 목사
(10)베델교회(침례교)	김무숙 목사
(11)한인 가정교회(침례교)	이충만 목사
(12)한인 형제교회(침례교)	김성기 목사

나. 교회들의 특징

- (1) 이들 기타 교회들은 천주교회를 제외하면 장로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등 여러 교파의 이름들이 있으나 정식 교단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자체 교회 운영 체제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역자들의 이동시에 새로운 교역자를 영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 (2) 특별히 이민 교회이기 때문에 교역자의 신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 기타 교회들은 천주교회를 빼놓고는 한 교회도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다.
- (3) 기타 교회 교역자들이 어스틴 교역자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역자들의 M. Div 졸업장 사본과 교단 가입 증서 및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어떤 교파에서는 목사 안수 후에 M. Div 코스를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스틴 교역자 협의회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지도자로서 정상적인 코스를 이수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떳떳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다. 교회들의 설립 역사

기타 교회들은 한인 천주교회를 제외하고는 그 설립 년도가 짧다. 대다수 교회가 1995년부터 2003년 어간에 시작되어 연령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들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이 교회 주보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혼자 담당해야만 한

다. 바라기는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부흥되고 계속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제 3 절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복음화 과제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과제는 먼저 이 지역에 사는 한인들을 완전 복음화 하는 것이다. 기존 교회는 어스틴 지역 사회에서 등대와 안식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 일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한인 인구가 어스틴 지역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교파를 초월하여 어스틴 지역의 기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몇 퍼센트나 교회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진단한 후에 이 지역 한인의 완전 복음화를 위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루고자 한다.

1. 어스틴 지역 한인 복음화의 실태

어스틴 시(Austin City) 인구는 지난 2000년 인구 조사(US Census 2000)에 의하면 시 총 인구가 656,562명으로 남자가 337,569명(51.41퍼센트), 여자가 318,993명(48.59퍼센트)으로 나타났다. 그 중 백인이 429,10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65.36퍼센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히스패닉이 200,579명으로 30.55퍼센트를 차지했다. 흑인들은 65,956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10.05퍼센트이며, 미국 원주민들이 3,889명으로 0.59퍼센트를 차지했다. 베트남이 5,942명(0.91퍼센트), 일본인이 1,164명(0.18퍼센트), 중국인이 8,093명(1.23퍼센트),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인구는 30,96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72퍼센트이다¹⁰⁹⁾.

위의 인구 조사 통계에 나타난 한인수는 3,441명으로 어스틴 시 전체 인구의 0.52퍼센트에 불과했다. 이 인구 조사에서 제외된 유학 온 학생들 가족들과 한국 본사에서 출장 근무하는 삼성 반도체 어스틴 지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포함하면 5,000명-6,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¹¹⁰⁾.

한편, 어스틴 지역 8개 교회의 교인 수는 모두 1,680명이다.

①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박은규 목사 시무) 850명

② 어스틴 한인 연합감리교회(정기영 목사 시무) 50명

109) [Http://AustinTx.areaconnet.com/statistics.htm](http://AustinTx.areaconnet.com/statistics.htm)

110) 어스틴 한인회 서지원 회장 자료 제공.

- ③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김성배 목사 시무) 400명
- ④ 어스틴 한인 늘푸른교회(정기영 목사 시무) 100명
- ⑤ 라운드락 한인 장로교회(김광석 목사 시무) 60명
- ⑥ 하이드팍 한인 침례교회(김한길 목사 시무) 90명
- ⑦ 어스틴 한인 말씀의 교회(손성권 목사 시무) 30명
- ⑧ 어스틴 한인 예수 찬양교회(안일용 목사 시무) 90명

(8개 교회 사무실에서 자료 제공함)

어스틴 지역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12개 교회는 아주 약한 교회들이다. 이 교회들의 출석 교인수를 합하여 약 200명 정도로 본다¹¹¹⁾.

어스틴 지역의 한인 교회는 모두가 어스틴 시 안에 있다. 단 라운드락 한인 장로 교회가 비록 라운드락시에 있다하나 어스틴 시와 경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주소로는 라운드락이나 일반적으로 볼 때 어스틴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필자가 어스틴 지역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한인 교회에 관한 문제를 언급한 한 어스틴 시와 동일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어스틴 지역 한인 교인 수는 각 교회 사무실에서 자료를 제공해 온 8개 교회 교인 수 1,680여명과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12개 교회의 신자 수를 「뉴스 코리아」 어스틴 지국장 서지원의 의견대로 약 200여명으로 볼 때 어스틴 지역 한인 교인 수는 1,880여명이 된다. 이 숫자는 어스틴 지역 한인 전체 수를 최대화해서 6,000여명으로 볼 때 3분의 1에 불과하다.

2,000여명의 교인으로 6,000여명의 한인 전체를 복음화 하는 데는 교인 한 사람이 불신자 두 사람에게 복음의 전수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여 교회로 인도해야만 한다. 이 비율은 인구 4천만 중 1천만 신자를 보유한 한국 복음화 보다는 약하다. 한국은 한 명의 신자가 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2. 어스틴 지역 한인 복음화의 전망

가. 복음화를 위해 긍정적인 면

111) 뉴스 코리아 어스틴 서지원 지사장 자료 제공.

켄트 휴즈 부부가 지은 “당신의 목회는 성공적인가?”에서 목회 성공은 충성이¹¹²⁾, 목회 성공은 섬김이다¹¹³⁾, 목회 성공은 사랑이다¹¹⁴⁾는 말은 일선 목회자인 필자는 실감 있게 받아들였다.

목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충성이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 사랑과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필자가 보는 어스틴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은 하나같이 켄트 휴즈 부부가 성공적인 목양에 대하여 지적한 3가지 면에서 미국의 어느 지역 한인 이민 교회 사역자들 보다 더 투철하다고 본다. 한 분 외에는 다 필자보다 연소한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8년간 교회를 섬겨온 필자가 저들의 사역을 볼 때 감명을 받을 때가 많다. 훌륭한 분들이다.

첫째, 이와 같이 훌륭한 훈련된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 복음화를 위하여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보화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둘째, 어스틴 지역은 한인 복음화를 위한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가졌다. 어스틴 지역 대다수 한인 교회가 학원목회(Campus Ministry)를 하고 있어 많은 젊은 층의 잘 훈련된 일꾼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동력이 활발하다.

셋째, 어스틴 지역 교회들은 연합 행사에 대단히 협조적이다. 해마다 교역자 협의회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는 각 교회로 돌아가면서 부활주일 아침 5시 30분에 드리며 사회는 예배 장소를 제공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하며, 부활절 메시지는 그 해 교역자 협의회 회장이 한다. 어스틴 교역자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가입 순서대로 하되 1년 Term으로 한다. 또한 1년에 몇 차례씩 외래강사 초청 집회, 선교 집회 연합 성가의 밤, 특별 강사 초청 간증 집회 등을 할 때마다 이 지역 모든 교회와 교역자들이 협력하므로 연합 행사가 잘 되어 왔다¹¹⁵⁾.

나. 복음화를 위해 부정적인 면

첫째, 복음화 운동, 즉 전도는 특정한 일반만이 하는 것으로 된 의식 구조 문제

112) Kent and Barbara Hughes, *Ministry from the Success Syndrome*, 오현미 역 (서울: 나침반사, 1993), 39.

113) Ibid, 53

114) Ibid, 65

115) *어스틴 지역 교역자 협의회 회록*, 1991-2003년.

다. 한국 교회 성장 연구소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교회성장의 연평균 증가율이 1960년대에 42퍼센트, 1970년대에 12.5퍼센트, 1980년대에 4.4퍼센트 그리고 1990년대 이후는 불과 3퍼센트 -1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의 성장 둔화의 원인을 초신자들의 전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¹¹⁶⁾. 이와 같이 어스틴 지역의 한인 교회 평신도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는 특정층의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한 어스틴 지역 한인 복음화 운동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후전 2:4)는 말씀의 뜻을 받들어 드리려면 어느 특정한 인물만이 전도할 수 있다는 전도의 자격을 제한한다면 결코 이룩할 수 없다.

둘째, 어스틴 지역 한인 복음화를 위한 전도대의 조직 문제이다. 어스틴 지역 한인 이민 교회의 성장 둔화와 위기는 복음화 운동의 정체에서 오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기존 교인들을 놓고 아용다용 싸울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해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교회를 성장시키므로 이 지역 복음화를 100퍼센트 하는 것이다.

이 거대한 하늘나라 확장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는 먼저 전도대원의 선발 조직과 훈련을 해야 한다. 단일 교회가 일선 전도대를 조직하는 것은 그리 힘들 일은 아니라 생각된다. 그러나 어스틴 지역 복음화를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전도대를 조직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누구를, 어느 교회 목사를 대장으로, 총무로, 서기로 선발하느냐, 어떻게 전 교회에 불평이 없도록 배정할 수 있을까는 큰 문제이다. 또한 이를 성공리에 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셋째, 어스틴 지역 한인 복음화를 위한 훈련의 문제이다. 이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으로 하는 복음화 운동에 있어서 선발된 복음화 요원(전도대원들)을 어느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며, 누가 이 일을 담당하느냐는 것이다. 또한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을 때 어떻게 분배하여 교회 간에 불화가 없도록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부정적인 요인을 안고 있다.

다. 종합적 판단

116) 김찬종, *교회는 이렇게 성장한다* (서울: 쿨란 출판사, 1998), 11

첫째, 어스틴 지역 한인 복음화 운동에 긍정적인 것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준비된 교역자팀과 평신도팀이다. 또한 연합 행사에 언제나 협조적이었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나 부정적인 면을 보면 복음화 운동은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의식 구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복음화 운동을 위하여 전도단 조직과 훈련 문제다.

셋째, 전도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다. 사도행전 2장 42-47절에서 성령 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어스틴 지역 한인 복음화 문제도,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처럼 꿈에도 생각지 못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잘 될 수 있다고 본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셨다. 그러므로 어스틴 지역 복음화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며, 그 결과로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주께서 날마다 더해 주실 줄 믿는다. 우리 어스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비는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다.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어스틴 최초의 한인 교회는 1973년에 창립된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와 1976년에 설립된 어스틴 한인 연합 감리 교회이며, 1990년까지는 어스틴 지역에 10개의 한인 교회가 있었으나 2003년 현재 천주 교회와 합하여 20개 처로 늘어났다.¹¹⁷⁾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들의 특성은 보수 교단인 미국 남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발견했다. 이어서 어스틴 교역자 협의회에 가입된 교역자들이 섬기는 8개 교회의 개척기, 정착기, 부흥기, 현재 교회 집회 현황과 특히 각 교회의 특성을 연구 조사해 보았다. 또한 어스틴 교역자 협의회에 가입되지 않고 있는 교역자들이 섬기는 12개 교회에 대해서도 그 장점과 약점을 연구해 보았다. 이 조사는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성공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117) 4장 2절을 참조하라.

제 5 장

어스틴 지역의 복음화 분석

제 1 절 어스틴 지역 복음화 설문 조사

1. 설문 작성 배경과 절차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 복음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어떤 분이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발전 요인이며 또한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의 보다 발전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설문 조사서를 작성했다. 그 목적은 이 지역의 목회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 복음화 설문 조사 절차는 어스틴 지역 각 교회 담임 목사님께 11월 1일 전화로 설문 조사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2일 후인 11월 3일에 각 교회에 정식 설문 조사문을 발송한 후 11월 7일 각 교회 담임 교역자들에게 전화로 다시 한 번 설문 조사에 귀 교회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호소했다. 11월 16일 어스틴 지역 교역자 협의회에 참석하여 일선 목회에서 수고하시는 동료 교역자들에게 많은 평신도들이 설문 조사에 응하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했다. 이와 같이 어스틴 교역자 협의회와 산하의 교회들의 협조를 받아 약 300여매의 설문서를 우편으로 회신 봉투와 함께 배부했다.

설문 조사 기간은 11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 달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300여 매 중 216매가 수거되어 72퍼센트의 수거율을 보였다. 이 중에는 상당수가 필자의 교회 제직들이 참여해 준 것이다.

2. 설문 내용

설문은 교회와 교회 교육과 교역자와 기존 신자들과 효과적인 전도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모두 11문으로 되어 있다.

제1문과 제2문은 설문 응답자들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 연령과 교회 직분을 묻는 것이며, 제3문은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가 교포 수에 비해 적정수인가를 묻는 것이다. 제4문은 어스틴 지역 교회 복음화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며, 제5문은 어스틴 지역 복음화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문항이다. 제6문도 어스틴 지역 복음화에 절실히 개선되어야 할 것을 묻는 문항이며, 제7문은 어스틴 지역 복음화에 교역자들의 변화되어야 할 것을 묻는 문항이다. 제8문은 어스틴 지역의 성공적인 복음화에 요구되는 전도 방법에 대한 문항이며, 제9문은 어스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존 신자들의 삶의 개선을 묻는 문항이다. 제10문은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성공적인 복음화를 위해 교회와 교회간의 관계 개선을 묻는 문항이며, 마지막으로 제11문은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효과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현재 교회 교육 제도에서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3. 설문 조사 대상

이 설문 조사 대상은 어스틴 지역에 있는 교파를 초월한 한인 교역자 협의회 산하에 있는 8개 교회와 교역자 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12개 교회의 교우들을 19세 이하, 20세-39세, 40세-59세,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제 2 절 어스틴 지역 복음화 설문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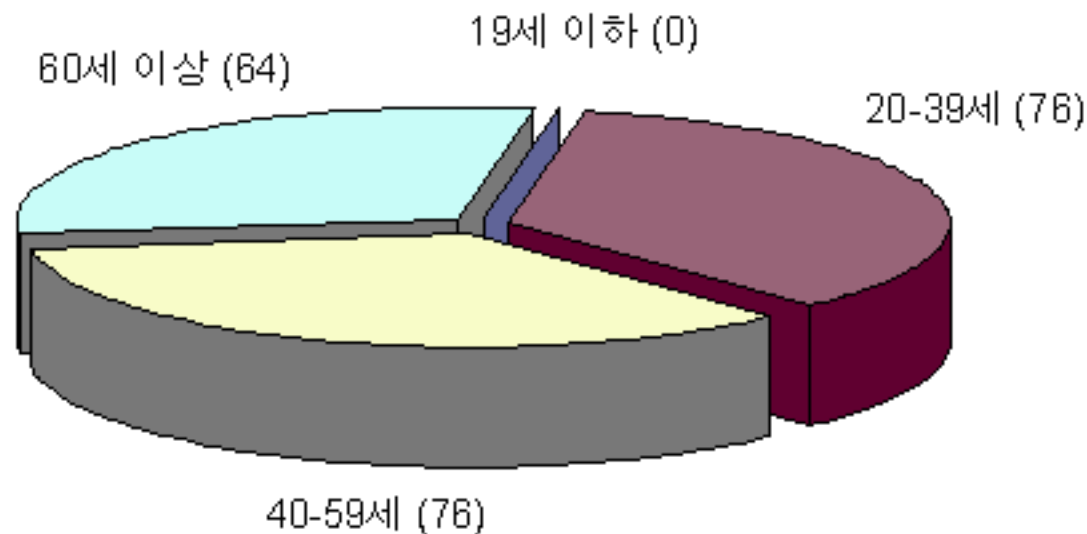
1. 설문 응답자의 연령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 복음화 전략 설문 조사에 총 216명의 응답자 중 19세 이하의 한 사람도 없었다. 20세-39세가 76명, 40세-59세도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이 64명으로 나타나 설문 응답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연조가 있는 분들이 많았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이 설문 응답의 내용은 신실함을 말해준다.

1) 19세 이하 0명

- 2) 20세 - 39명 76명
- 3) 40세 - 59명 76명
- 4) 60세 이상 64명

<도표 1>



2. 설문 응답자의 직분

직분별로 보면, 총 216명의 설문 응답자 중 평신도가 64명, 집사가 88명, 권사가 28명, 장로가 24명, 교역자가 12명으로 평신도로부터 교역자에 이르기까지 고루 설문에 참여했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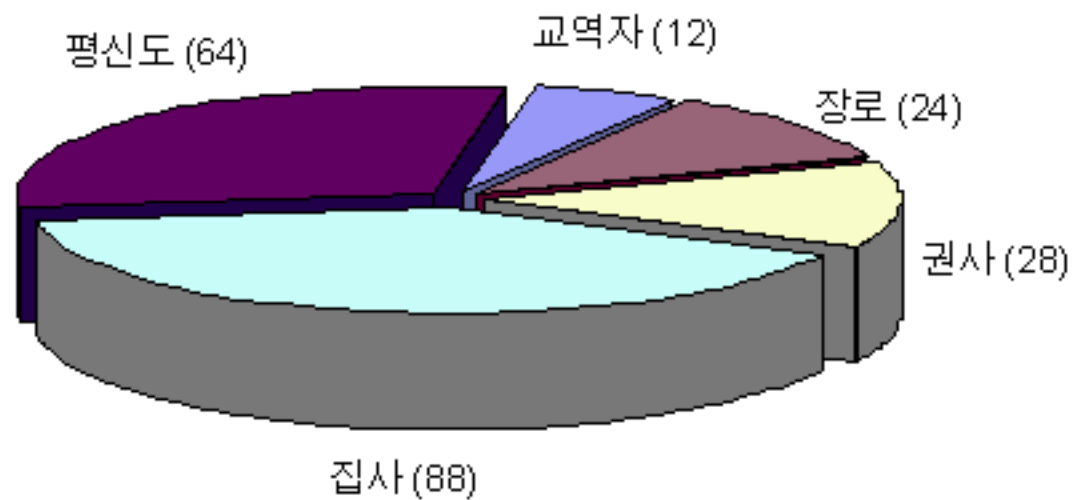
이 설문 응답자들을 다른 면으로 보면 교역자 12명과 평신도 204명으로 절대 다수가 평신도들이었다. 평신도를 가리키는 헬라어 “라이코스”(laikos)는 신약 성경에는 없으나 그러나 성경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라오스(laos)와 그 의미가 같은 것으로 처음에는 이방인과 대조되는 이스라엘(행 4:10)을 가리키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을 포함한 새 이스라엘 즉 말세 교회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행 15:14)¹¹⁸⁾.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가 잠을 자고 있으므로 엄청난 저력을 가진 거인(巨人)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¹¹⁹⁾ 이때에 어스틴 지역 복음화 설문 조사에 응한 216명 중에서 204명인 절대 다수가 평신도였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118)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 제자 훈련원, 2001), 3

119) Ibid, 4.

- 1) 평신도 64명
- 2) 집사 88명
- 3) 권사 28명
- 4) 장로 24명
- 5) 교역자 12명

<도표 2>



3. 어스틴 지역의 교회 적정수

어스틴 지역에 한인 교회가 교포 수에 비해 많다고 응답한 자가 총 216명 중 152명으로 평신도가 24명으로 37.5퍼센트, 집사가 88명 중 80명으로 87퍼센트, 권사가 28명 중 16명으로 66.7퍼센트, 장로가 24명 중 24명으로 100퍼센트, 교역자가 12명 중 8명으로 66.7퍼센트이다.

이 내용은 평신도를 제외한 계층의 응답자들은 한결같이 66퍼센트를 넘었으며, 심지어 장로들은 24명 중 24명 모두가 교포 수에 비해 교회사가 많다고 응답했다.

2000년 미국 인구 조사 (US Censure)에서 한인 인구는 3,441명으로 어스틴 전체 인구 65만 6천 5백 62명의 0.52퍼센트에 불과했다¹²⁰⁾. 그러나 이 조사에서 제외 혹은 응하지 않았던 유학생 가족들과 삼성 반도체와 현대 등 서울 본사에서 파견 근무하는

120) *Austin City, Texas Statistics and Demographics, US Census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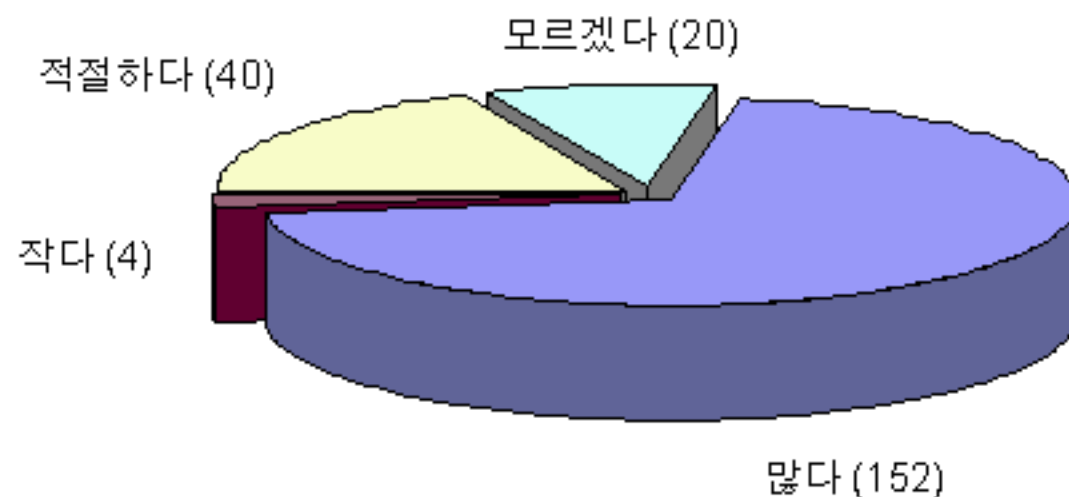
가족들을 포함하면 한인 교포수가 6,000여명은 될 것으로 추산 한다¹²¹⁾.

이 설문 응답에 의하면 어스틴 지역에 있는 20여개 교회(교역자 협의회에 가입한 8개 교회와 미 가입된 12개 교회)가 알찬 프로그램으로 교포 구원 문제를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감리교 신학 대학교 신학대원 이기춘 교수는 교역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교인의 숫자를 200명 정도라고 한다¹²²⁾. 이기춘 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어스틴 지역에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된 모습들 속에서 교인 등 숫자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10여개의 교회가 더 탄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스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 교회 상호간의 건강한 자기 발현과 동시에 생산적 경쟁과 협력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¹²³⁾.

1. 많다 152명
2. 적다 4명
3. 알맞다 40명
4. 모르겠다 20명

<도표 3>



121) 한인회 서지원 회장 자료 제공.

122) 이지영, *한국 교회 성장에 대한 교회론적 연구*, 석사 논문 (서울: 감신대, 1998), 4.

123) 박종화, "교파주의를 벗고 처음 신앙으로 부활하자", *기독교 사상*, 1998년 4월호, 25

도표 3의 성향에 따른 분포

구분	많다	적절하다	적다	모르겠다
교역자	8(66.7)	0(0.0)	0(0.0)	4(33.3)
장로	24(100.0)	0(0.0)	0(0.0)	0(0.0)
권사	16(66.7)	0(0.0)	4(16.7)	4(16.7)
집사	80(87.0)	0(0.0)	8(8.7)	4(4.3)
평신도	24(37.5)	4(6.3)	28(43.8)	8(12.5)

* 괄호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4. 어스틴 지역 복음화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기존 신자들의 문제 100명
2. 교역자들의 문제 48명
3. 교회의 연합 전도 방법의 문제 36명
4. 사회 봉사의 문제 32명

<도표 4>

오스틴지역 복음화의 장애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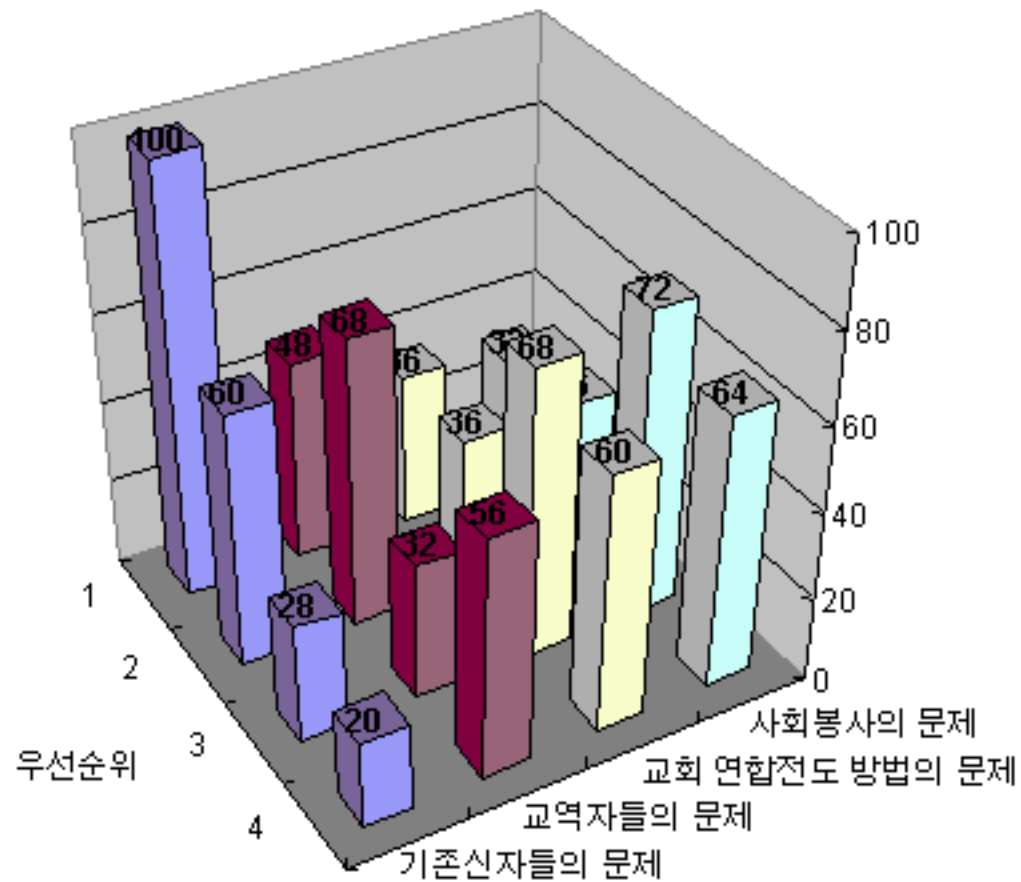


도표 4의 성향에 따른 분포

구분	기존신자	교역자	전도방법	사회봉사
교역자	12(100.0)	0(0.0)	0(0.0)	0(0.0)
장로	4(16.7)	4(16.7)	12(50.0)	4(16.7)
권사	20(83.3)	4(16.7)	0(0.0)	0(0.0)
집사	40(43.5)	32(34.8)	12(13.0)	8(8.7)
평신도	24(37.5)	8(12.5)	12(18.8)	20(31.3)

* ()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5. 귀하는 어스틴 지역에서 지금까지 이룩한 교회의 발전과 복음화에 무엇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역자들의 목회 지도력 80명
2. 교육 시스템 56명
3. 교인들의 사회적 모범 48명
4. 교인들의 전도열 32명

<도표 5>

교회발전과 복음화에 기여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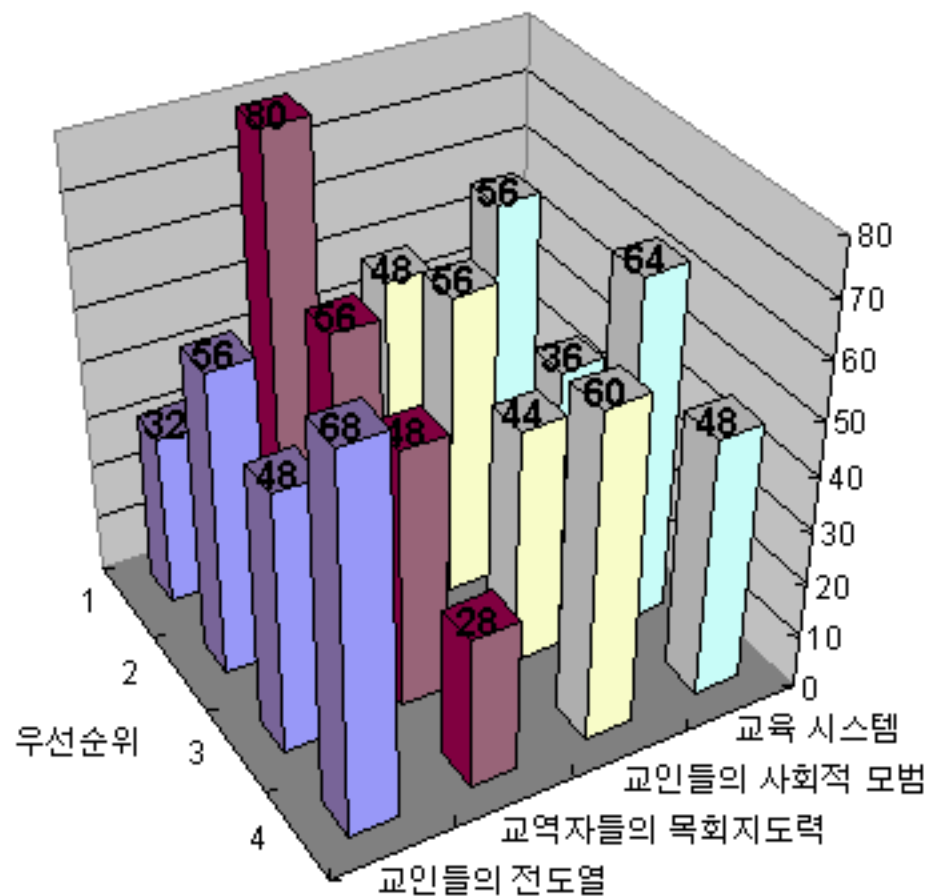


도표 5의 성향에 따른 분포

구분	전도열	목회지도력	사회적 모범	교육시스템
교역자	0(0.0)	12(100.0)	0(0.0)	0(0.0)
장로	4(16.7)	4(16.7)	4(16.7)	12(50.0)
권사	4(16.7)	8(33.3)	8(33.3)	4(16.7)
집사	0(0.0)	36(39.1)	16(17.4)	40(43.5)
평신도	24(37.5)	20(31.3)	20(31.3)	0(0.0)

* ()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6. 귀하는 「어스틴 지역 복음화」에 가장 절실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신자들의 신앙 성숙 96명
2. 교역자들의 목회 철학 68명
3. 교회의 전도 방법 32명
4. 교육 제도 12명
5. 교회간의 관계 8명

<도표 6>

오스틴 복음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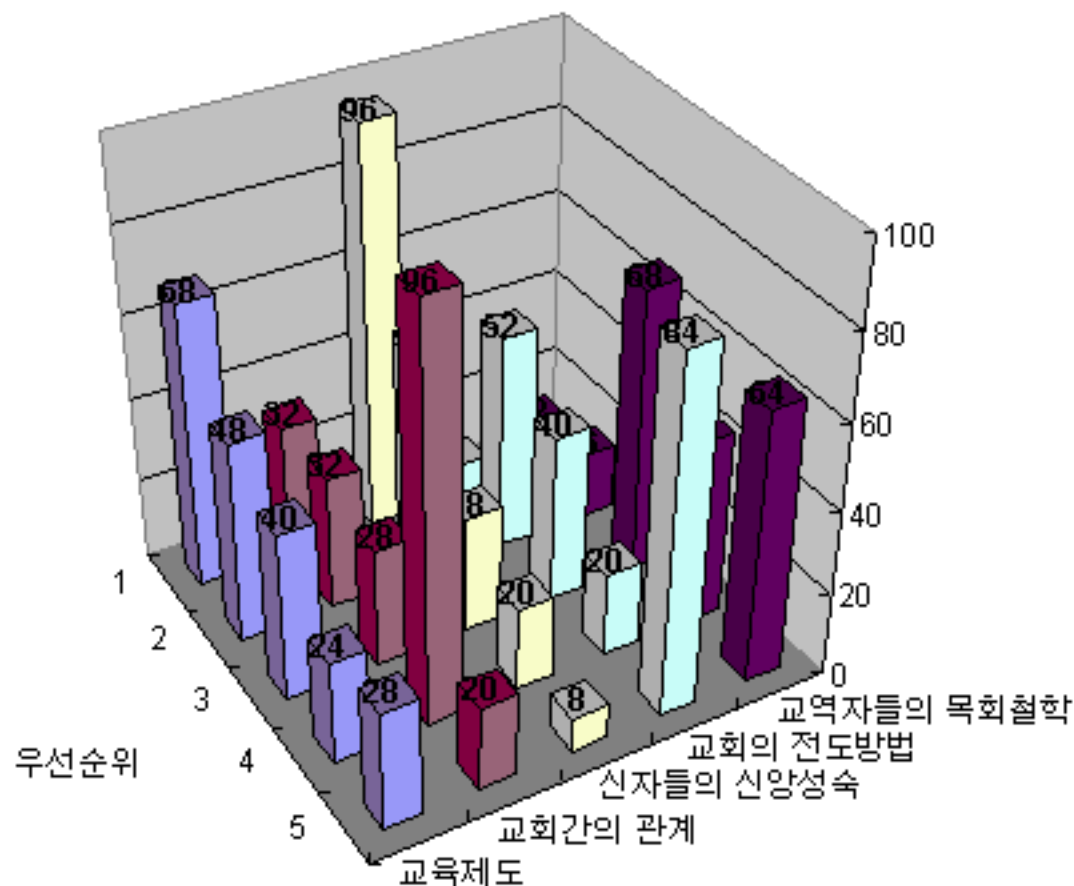


도표 6의 성향에 따른 분포

구분	목회철학	전도방법	신앙성숙	교회 간 관계	교육제도
교역자	12(100.0)	0(0.0)	0(0.0)	0(0.0)	0(0.0)
장로	8(33.3)	4(16.7)	8(33.3)	4(16.7)	0(0.0)
권사	8(33.3)	0(0.0)	16(66.7)	0(0.0)	0(0.0)
집사	36(39.1)	8(8.7)	32(34.8)	4(4.3)	12(13.0)
평신도	4(6.3)	20(31.3)	40(62.5)	0(0.0)	0(0.0)

* ()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7. 어스틴 지역의 성공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교역자들의 무엇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설교의 개선 52명
2. 도덕적 모범 56명
3. 권위주의적 자세의 지양 40명
4. 약자에 대한 관심 44명
5. 한인 사회에의 참여 20명

<도표 7>

오스틴지역 성공적 복음화를 위하여 요구되는
목회자의 변화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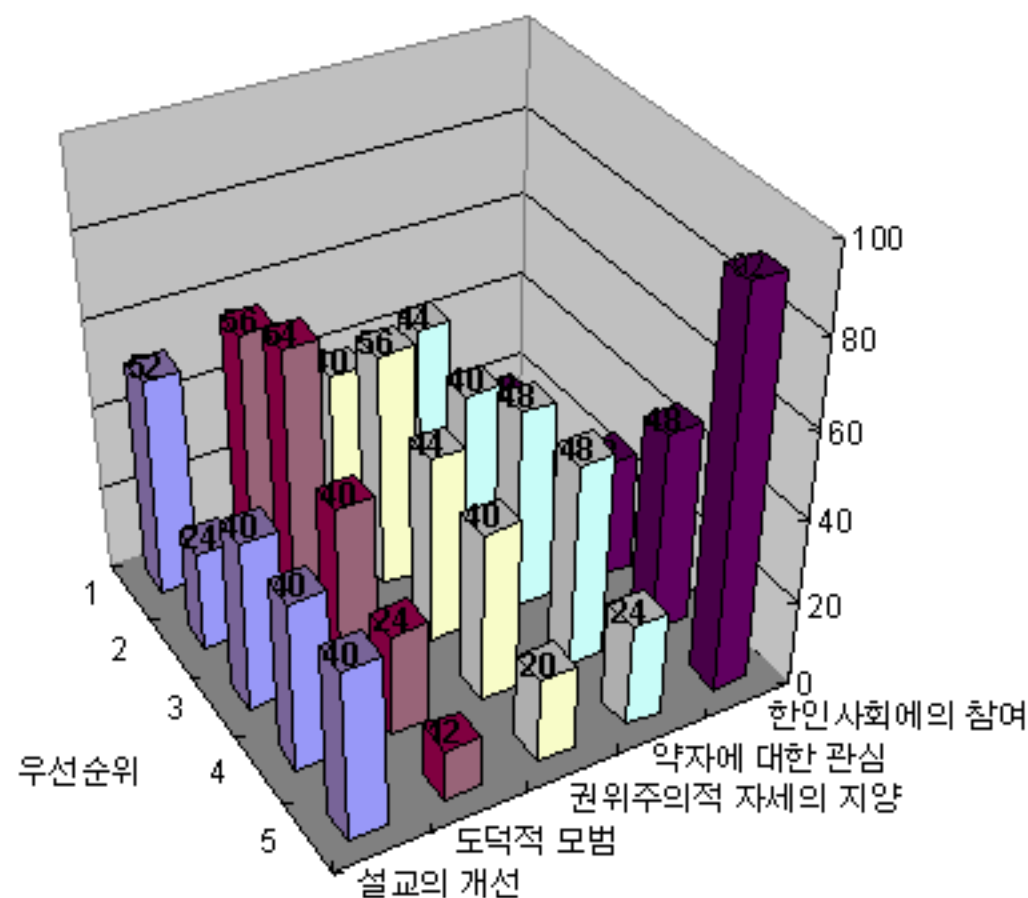


도표 7의 성향에 따른 분포

구분	설교개선	도덕적 모범	권위주의 지양	약자에 대한 관심	한인사회 참여
교역자	8(66.7)	0(0.0)	4(33.3)	0(0.0)	0(0.0)
장로	4(16.7)	12(50.0)	4(16.7)	4(16.7)	0(0.0)
권사	4(16.7)	4(16.7)	4(16.7)	4(16.7)	4(16.7)
집사	28(30.4)	24(26.1)	12(13.0)	16(17.4)	12(13.0)
평신도	8(12.5)	16(25.0)	16(25.0)	20(31.3)	4(6.3)

* ()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8. 어스틴 지역의 효과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어떤 전도 방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개인 전도 136명
2. 방문 전도 32명
3. 노방 전도 0명
4. 대중 집회 전도 44명

<도표 8>

오스틴지역의 성공적 복음화를 위해
요구되는 전도방법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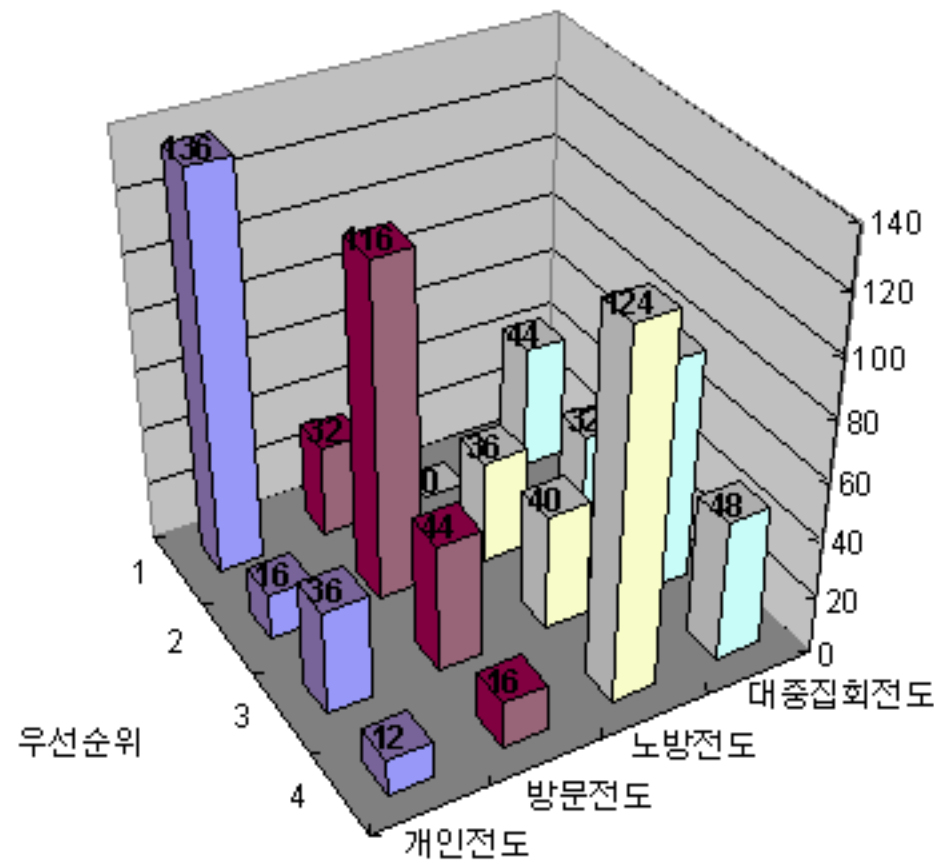


도표 8의 성향에 따른 분포

구분	개인전도	방문전도	노방전도	대중집회
교역자	8(66.7)	0(0.0)	0(0.0)	4(33.3)
장로	8(33.3)	4(16.7)	0(0.0)	12(50.0)
권사	16(66.7)	8(33.3)	0(0.0)	0(0.0)
집사	60(65.2)	12(13.0)	0(0.0)	16(17.4)
평신도	44(68.8)	8(12.5)	0(0.0)	12(18.8)

* ()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9. 어스틴 지역의 성공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신자들의 삶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격의 변화 92명
 진실한 언어생활 16명
 대인 관계 8명
 이웃을 위한 희생 60명
 정직한 생활 36명

<도표 9>

오스틴지역의 성공적 복음화를 위해
 요구되는 신자들 삶의 개선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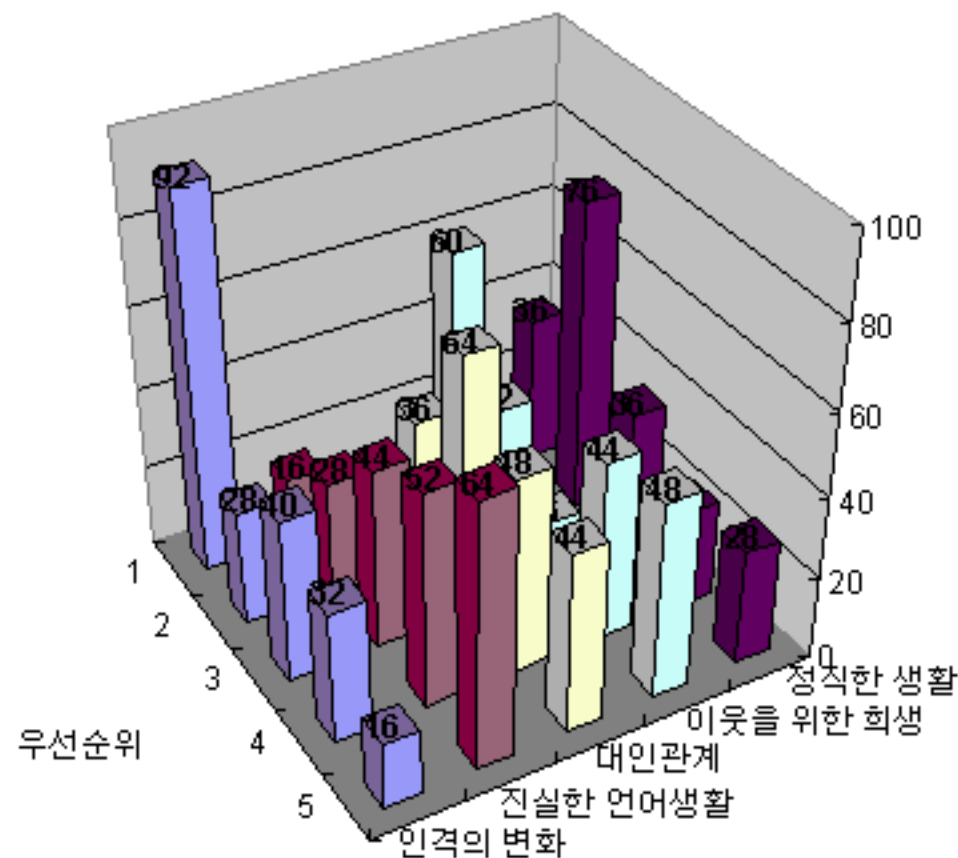


도표 9의 성향에 따른 분포

구분	인격의 변화	진실한 언어생활	대인관계	이웃을 위한 희생	정직한 생활
교역자	8(66.7)	0(0.0)	4(33.3)	0(0.0)	0(0.0)
장로	8(33.3)	0(0.0)	0(0.0)	12(50.0)	4(16.7)
권사	8(33.3)	4(16.7)	0(0.0)	8(33.3)	4(16.7)
집사	60(65.2)	8(8.7)	0(0.0)	8(8.7)	12(13.0)
평신도	8(12.5)	4(6.3)	4(6.3)	32(50.0)	16(25.0)

* ()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10. 어스틴 지역의 성공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와 교회간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1. 이웃 교회와의 친목 | 112명 | 2. 교파주의의 지양 | 40명 |
| 3. 연합 친목 행사의 확대 | 24명 | 4. 연합 집회의 활성화 | 24명 |
| 5. 대교회의 소교회 지원 | 12명 | | |

<도표 10>

오스틴지역의 성공적 복음화를 위해
요구되는 교회간 관계개선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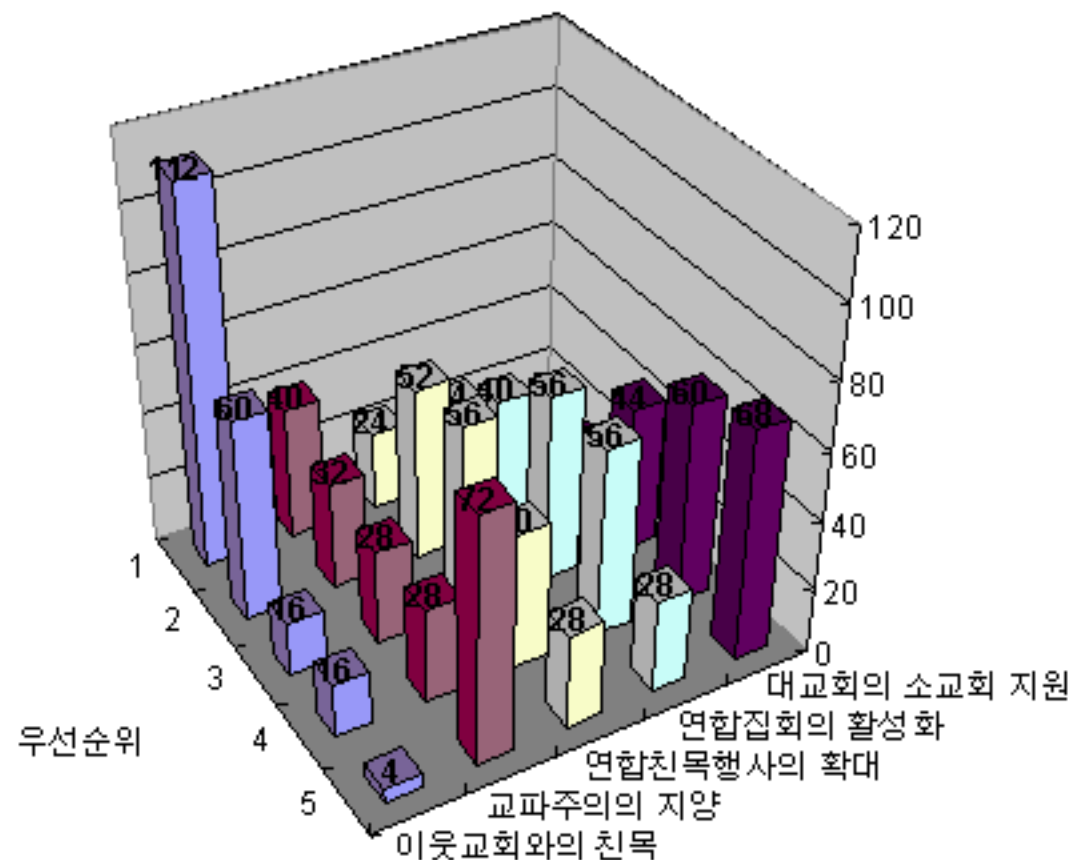


도표 10의 성향에 따른 분포

구분	이웃교회와 친목	교파주의 지양	연합친목 행사 확대	연합집회 활성화	소교회 지원
교역자	4(33.3)	8(66.7)	0(0.0)	0(0.0)	0(0.0)
장로	12(50.0)	0(0.0)	4(16.7)	4(16.7)	4(16.7)
권사	24(100.0)	0(0.0)	0(0.0)	0(0.0)	0(0.0)
집사	44(47.8)	24(26.1)	8(8.7)	8(8.7)	4(4.3)
평신도	28(43.8)	8(12.5)	12(18.8)	12(18.8)	4(6.3)

* ()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11. 어스틴 지역의 성공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각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 온 교회 교육 제도에서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1. 교육 방법의 현대화 | 120명 | 2. 한글 교육의 강화 | 20명 |
| 3. 영어부의 독립 | 12명 | 4. 다세대 예배의 추진 | 38명 |
| 5. 특별 활동의 활성화 | 8명 | 6. 과외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 12명 |

<도표 11>

오스틴지역의 성공적 복음화를 위해
요구되는 교육제도 개선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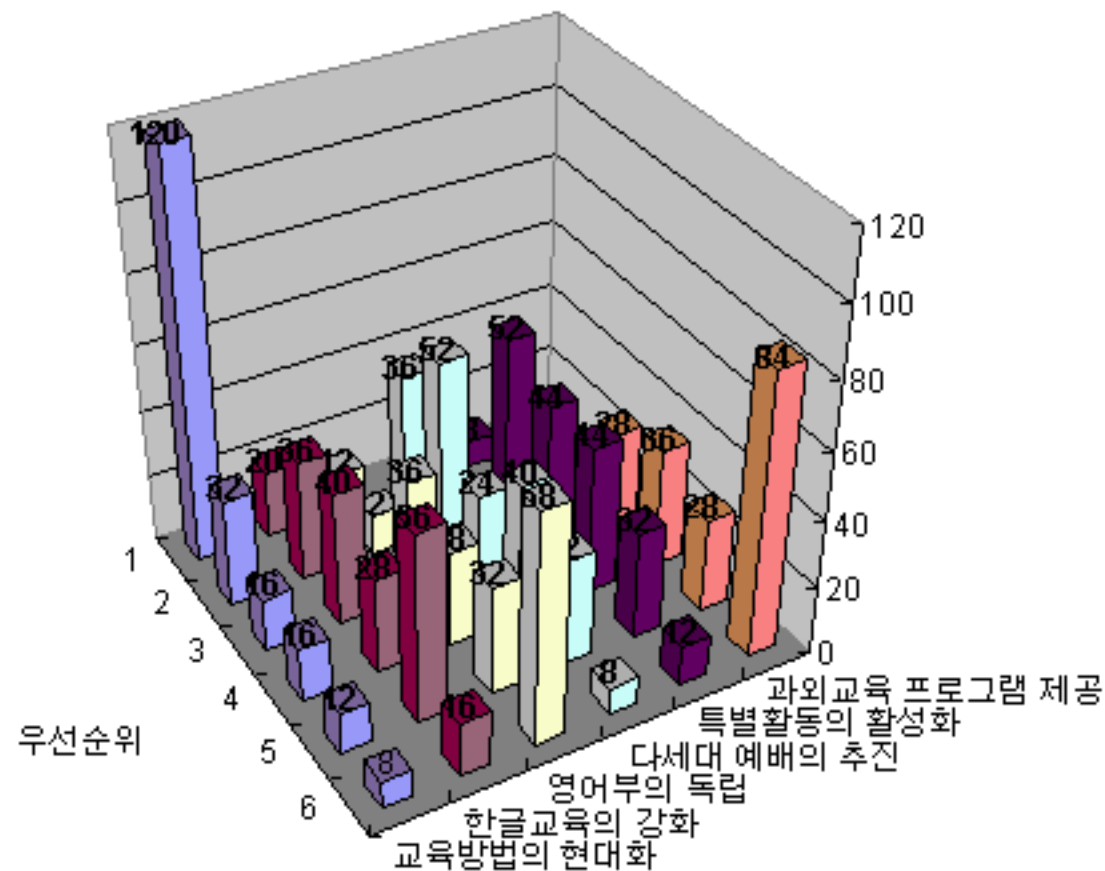


도표 11의 성향에 따른 분포

구분	교육방법 현대화	한글 교육 강화	영어부 독립	다세대 예배	특별 활동	과외 교육
교역자	12(100.0)	0(0.0)	0(0.0)	0(0.0)	0(0.0)	0(0.0)
장로	4(16.7)	4(16.7)	8(33.3)	4(16.7)	0(0.0)	16(66.7)
권사	16(66.7)	4(16.7)	0(0.0)	0(0.0)	0(0.0)	16(66.7)
집사	52(56.5)	8(8.7)	4(4.3)	24(26.1)	0(0.0)	0(0.0)
평신도	36(56.3)	4(6.3)	0(0.0)	8(12.5)	8(12.5)	6(9.4)

* ()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이상에서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성공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설문 조사를 통하여 1절에서 설문 작성 배경과 그 절차, 11문의 설문 내용, 설문 조사 대상을 밝혔다.

제2절에서는 어스틴 지역 복음화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설문 응답자들의 연령(설문 1)과 교회 직분(설문 2), 어스틴 지역의 한인 교회의 적정 수(설문 3), 어스틴 지역 복음화에 가장 장애 요인인 기존 신자들의 문제(설문 4)와 가장 많은 공헌 요인으로 교역자들의 목회 지도력(설문 5)이었다. 또한 신자들의 성숙한 신앙의 개선(설문 6)과 교역자들의 도덕적 모범과 설교의 변화(설문 7), 효과적인 전도 방법으로 개인 전도(설문 8)와 신자들의 인격의 변화(설문 9), 교회와 교회간의 친목(설문 10), 교회 교육 방법의 현대화(설문 11) 등이 설문 조사 결과이다.

이와 같은 설문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효과적인 복음화 전략과 그 대응책을 연구코자 한다.

이상에서 5장 설문 조사를 토대로 어스틴 지역의 한인 교회 수 문제와 어스틴 교포 복음화에 장애 요인인 기존 신자들의 문제 해법; 복음화의 공헌 요인인 교역자들의 목회 지도력 계속 지속 방안, 어스틴 지역 교포 복음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기존 신자들의 성숙한 신앙 및 교회간의 친교와 어스틴 지역 교포의 성공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교역자들의 도덕 문제와 기존 신자들의 인격의 변화와 개인 전도 방법의 강화와 교회 학교 교육 방법을 현대화하고 바꾸는 문제의 대응책을 논하였다.

제 6 장

어스틴 지역 한인 복음화 전략

제 1 절 복음화 전략의 필요성

전략(戰略, strategy)이란 용어는 전투와 전쟁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로서,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복음화는 바로 영적인 전투로 보기 때문에 복음화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지역 교회 복음화는 어두운 세상 지배자와 세상의 악과 불의와 싸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에드 머피(Ed Murphy)는 복음서에서 영적 전쟁이 무려 150번이나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¹²⁴⁾.

어스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다른 지역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의 대결로 시작하여(마 4:3-11) “장차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계 20:10) 세상 마지막 때의 중간기에 살고 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사단과의 전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일 3:8)고 지적하였다.

저명한 성서학자 조지 엘돈 래드(George Eldon Ladd)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본질은 예수님의 교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끝에서 사단을 멸망시키는 것과 예수님의 사역에서 사단을 결박하는 것이다¹²⁵⁾고 하였다.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단과의 투쟁”으로 가득 차 있음을 관찰하였다¹²⁶⁾.

124) Ed Murphy, *The Hand Book of Spiritual Warfare*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2), 29

125) George Eldon Ladd, *A Theology of New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3), 66.

바울이 회심하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의 사명에 대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행 26: 17-18)라고 지시하였다. 한 마디로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부름 받았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였다.

어스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부름 받은 지역 교회들은 사단과 죄악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 싸움의 승부는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는 어스틴 지역의 효과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 5장에서 이를 분석하였다. 어스틴 지역 교역자회에서는 이 일을 위하여 8월 첫 주부터 12월 29일까지 총 22회 매주 월요 모임을 통하여 기도와 특강을 갖는다. 이 지역의 성공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동료 소그룹(Small Peer Group), 계속 교육 프로그램(Continuing Education Program), 문제 교인들과 목회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여러 다양한 방법도 전개하려고 하지만, 본 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방안을 중심으로 5가지 전략을 수립, 제시하려고 한다.

제 2 절 개인 전도의 강화

1. 개인 전도의 중요성

어스틴 지역의 효과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어떤 전도 방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총 응답자 216명 중에서 136명이 개인 전도라고 응답하므로 가장 많았다. 방문 전도에 32명, 대중 집회 전도에 44명, 그러나 노방 전도에는 한 사람도 응답자가 없었다.

설문 8항의 응답자들의 직분별로 보면 평신도 64명 중 44명으로 68.8 퍼센트, 집

126) Michael Green, *I Believe in Satan's Downfall*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26.

사 88명중 60명으로 65.2 퍼센트, 권사 28명중 16명으로 66.7 퍼센트, 장로 24명중 8명으로 33.3 퍼센트, 교역자 12명 중 8명으로 66.7 퍼센트이다. 신기하게도 개인 전도에 평신도와 교역자중 장로들만 제외하고는 모두 66 퍼센트 이상인 점을 보아서 방문 전도나 일과성 대중 집회 전도나 노방 전도 등은 어스틴 지역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실로, 복음화는 피나는 전도의 노력이 없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도가 결정적이며, 개인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먼저 개인 전도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다.

2. 개인 전도의 원리

예수님은 개인 전도의 선구자로서 평신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일이란 것을 보여 주셨다.¹²⁷⁾ 예수님은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마태를 개인 전도하시고 마태복음 9:9,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마가복음 1:16, 야고보와 요한 마태복음 4:21을 또한 개인 전도하셨다.

첫째, 개인 전도자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해롤드 린셀(Harold Lindsell)은 선교와 전도란 궁극적으로 "동의를"라고 하면서 그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살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곳까지 이끌어 오는데 있다"고 말한다.¹²⁸⁾ 이와 같은 목적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전달이 단순히 이웃을 내 교회로 이끌어오는 단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둘째, 개인 복음 전도란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영혼이 타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외치고 복음을 듣는 무리들의 손목을 잡는 실천적인 행위이다.¹²⁹⁾ 그러므로 개인 복음 전도자는 우선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자신이 먼저 경험해야 한다.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고린도전서 9:16.

셋째, 개인 전도자는 예수의 연민(憐憫)을 가져야 한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

127) 안종만, *평신도의 전도적 사명* (서울: 침례회 출판부, 1972), 15.

128) Harold Lindsell, "The Biblical Basic of Missions and Evangelism", In: Ralph G. Turnbull, ed.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7), 148

129) C. E. Autrey, *Basic Evangelism*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9), 32.

지 못한 이웃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의 동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예수가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마 9:36)고 마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서술한 표현에서 더욱 뚜렷이 읽을 수 있다. 이 표현은 오늘의 개인 복음 전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못 영혼들을 보면서 가져야 할 마음과 결단의 전제적 조건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이 타오르는 연민을 개인 전도자의 가슴에서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아우트리(C. E. Autrey)는 5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1.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도록 자신의 신앙을 연마할 것
2. 복음의 전달에 실천적일 것
3. 성서와 전도의 방법을 계속 연구할 것
4. 자신의 삶을 죄로부터 멀리 할 것
5. 기도를 지속할 것¹³⁰⁾

3. 신약에 나타난 개인 전도방법

가. 안드레식과 빌립식 전도법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요한복음 2:40-42 또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하니라 요한복음 2:45-46. 가족과 친구를 인도하므로 100 퍼센트 전도로 배가 운동이 된 셈이다.

나. 4인조 팀 전도법

마가복음 2장 1절-5절에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다가 예수 앞에 내려다 놓아 말씀을 직접 듣게 하는 것이다.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 한 삶을 인도했으니 25 퍼센트의 전도의 숫적인 성장을 한 것이다.

130) Autrey, *Basic Evangelism*, 34-35

다. 루디아식 전도법

사도행전 16장에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紫紬)장사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루디아의 이야기가 있다. 그가 먼저 복음을 듣고 깨달은 후에 자기의 가족을 다 믿게 한 일이 있다. 그리고 바울을 모셔다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16:15) 바울 일행을 초청하여 자기 집에 유하게 했다. 이것은 훌륭한 스승을 모셔서 온 가족들이 복음을 깨닫게 한 가정 집회를 한 것이다.

라. 고넬료식 전도법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와 친구들을 모아 놓고(10:24) 베드로를 청해 와서 복음을 들은 것이다. 교회는 대중적 집회에서만 전도의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고넬료식 전도 기회를 권장하여 하나의 영혼을 그리스도에 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4. 전도의 올바른 이해

가. 전도의 정의

헬라어 Ευαγγελιον은 “전하다”(to preach), “말하다”(to tell) 등으로 번역되어 왔다.¹³¹⁾ 그러므로 ‘전도(傳道)’란 말은 ‘복음’이란 말에서 왔기 때문에 “전도”와 “복음” 혹은 “복음전도”는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한다. 오늘날 전도의 어의(語意)가 점차로 희미하게 되어가고 있는 때에 근본적인 뜻인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전도는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마 4:23),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전 생애가 복음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었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이었다.¹³²⁾

신약성서에서 전도의 정의를 찾는다면 아래와 같은 단어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

131) George Arther Buttrick,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II: 442.

132) 안종만, *평신도의 전도적 사명*, 15.

째, 유앙겔리쥬(εὐαγγελίζω), 즉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다”는 뜻이다. 우리 말로는 “복음”이다. 이 낱말의 동사는 “복음을 전하다”이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 전도자(Evangelist)란 말은 이 낱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둘째, 케룻소(κηρυσσω), 즉 “예고한다”(to herald)는 뜻으로, 임금님의 법령을 알리기 위하여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돌아다니는 전령자를 묘사한 말이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마 4:23)에서 “전파하셨다”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셋째, 디다스코(διδασκω)로서, 복음을 설명하고 해명하여 진리의 참뜻을 알리고 예증해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마 9:35)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 넷째, 말투스(μαρτυς, μαρτυρομαι)로서,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에서 사용한 것으로 곧 “증인”의 뜻이다. 순교자란 뜻도 된다. 죽음으로 자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을 뜻하는 말이다. 다섯째, 마쎬테스(μαθητης, μαθητευω)로서 “제자”란 뜻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19)에서 사용된 단어로서, 여기서 사용된 동사 “제자를 삼다”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 가르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¹³³⁾ 이상의 낱말의 뜻을 종합해 보면 “복음전도”란 말은 “선전”이란 말이기도 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전하는 것이 곧 복음전도이다.

나. 전도의 내용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한국말에 “전도”란 용어는 도(道)를 전한다는 한자에서 온 말이다. 여기에 “도”란 “좋은 소식”(εὐαγγελιον)이란 희랍원어와 상통하는 명사이다. 신약성경에는 이 명사가 동사화해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표현으로 53회 나온다.¹³⁴⁾ 그러므로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며 “to tell”, “to preach”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마치 왕의 명을 받은 전령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했다고 외치며, 이 마을, 저 마을로 파발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외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는 이 땅

133) Autrey, *기본 전도학*, 정진황 역 (서울: 침례회 출판사, 1971), 35-37.

134) 최창욱, 김선배 공저, *전도의 이론과 실제* (Louisville, KY, 미국장로교회 총회, 1990), 11.

위에 임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힘차게 선포해야 한다. 이사야는 9:2-7에서 이렇게 선포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멘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 9:7). 바울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 1:13-14)고 하셨다.

둘째, 화목에 대한 선포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신 대속의 죽으심”(고후 5:21)이니,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행 10:43)는 말씀이다. 죄는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내셨으니 곧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니(롬 3:25) 화목의 선포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죄가 갈라놓았으나 이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처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다.

셋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선포이다.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으로 의롭게 하시고 이제는 죽음의 원인인 죄(롬 5:12)에서 건져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개인도 가정도 구원하신다(행 16:31)고 약속하셨다.

넷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선포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행 2:32, 3:15, 5:30-32, 10:39-41)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온다. 이 말은 거의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란 뜻으로 쓰여졌다. “우리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보았다”. 이 얼마나 힘 있고 확실한 부활의 선포인가! 이 부활 신앙이야말

로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할 내용은 이 부활의 소망이다.

이제 우리의 전도의 내용이 분명해졌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우리들의 부활의 소망 이것이 우리의 전도 내용의 전부이다.¹³⁵⁾

다. 전도의 동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증거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일이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전도하는 동기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이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어 디모데전서 2:4-7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전도하시기 위해 오셨다” 마가복음 1:38-39고 하셨다. 이와 같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그 뜻을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하신 것이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명령이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당부를 하셨다 마태복음 28:19-20, 마가복음 16:15, 사도행전 1:8 사도행전은 오순절 이후 성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의 전도의 내용의 기록이다. 주님의 제자 된 표식은 교회에 충실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웃과 교제하는 것 외에 그가 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일 때 참 제자가 되며 요한복음 15:8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행 11:26).¹³⁶⁾ “죄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고린도전서 9:16함은 어찌 바울뿐이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면 그의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135)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II: 443.

136) 안종만, *평신도의 전도적 사명*, 18

라. 전도의 절차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고 했다. 따라서, 전도의 목표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음 네 가지 물음을 묻고 있다(롬 10:14-15):

1.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를 수 있겠는가?
2.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3.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4.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찌 전파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전도에는 “보내심을 받는 일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전파”하게하고 전파할 때에 “듣게”되고, 듣고 난 후에 “믿게” 된다. 그리고 “믿게”된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일찍이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19)에서 “가서”는 보내시는 명령이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눅 10:3)에서 “갈지어다”는 분명히 보내시는 명령이다.

위의 롬 10:13-15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의 4가지 절차를 찾아 볼 수가 있다. 첫째, 가서 접촉하는 것이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 듣게 하기 위하여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무슨 방법으로든지 접촉이 성립되어야 전도는 시작된다. 복음을 들음은 접촉을 통하여 닫힌 마음을 깨뜨려 여는 것이다.

둘째, 교육이다. 가르치는 절차를 통하여 무엇을 믿을 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접촉한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으로 이끌리는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다.

셋째, 결단이다. 가르치는 일이 한 발을 교회 안으로 들여 놓게 하는 일이라면 결단은 두 발을 다 들여놓게 하는 일이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것을 공언하는 일이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명확한 인식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교육 과정 속에서 생의 방향이 전향되는 수도 있다.

넷째, 보존하는 일이다. 이같이 결단한 일이 중도에서 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지도와 보살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돌봐 주어야 한다.¹³⁷⁾

마. 전도의 주체

전도 폭발(*Evangelism Explosion*)의 저자인 제임스 케네디(James Kennedy)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평신도는 세계를 복음화 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전략의 요소이며, 가장 사용되어 오지 않는 요소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평신도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자 할 것이다.”

사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성직자들에게나 맡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오늘날 지역 복음화와 교회 성장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된 비극이다. 초대 교회가 지역 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평신도들이었음을 보여 준다. 사도행전 1:8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 전파”를 받은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행 2:1-4) “사도들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행 8:1)하셨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행 8:4)라고 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는 사도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열심으로 증거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가 복음화 되고 교회는 성장한 것이다. 초대 교회는 300년간 놀랄만한 복음화 운동의 결과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¹³⁷⁾

당시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를 도와주려고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313년 기독교인이 될 것을 선포했다. 이렇게 해서 수백만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신적 개념과 그릇된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들은 죄의 용서함을 전혀 경험치 못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증거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점차로 성직자들과 평신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복음 전도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성직자들의 임무가 되어 버렸다.¹³⁸⁾ 이것은 구경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의 95 퍼센트에 속하는 평신도들은 아직 한 사람의 영혼도 그리스도께 인도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교회는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평신도들에게 전도의 소명 의식을 일깨워 주

137) 안종만, *평신도의 전도적 사명*, 16-17.

138) 나일선, *교회 성장의 원리* (서울: 그리스도인 헤랄드사, 1974), 76.

139) Ibid., 77.

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 사회 복음화는 평신도들의 자각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스틴 지역 복음화는 평신도들과 교역자들이 하나가 되어 총력을 다 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책임 소재이다.

5. 개인 전도의 실용적 방법

가. 전도 대상자의 선정

전쟁터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그들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구며, 점령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 것을 알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 가담한 어스틴 지역 복음화 병사들이 자기가 상대해서 전도해야 할 대상을 미리 정하고, 위하여 기도 하고, 전략을 세우며, 적당한 기회를 포착하여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다면 정월 첫 주일 전도 작성 카드를 나누어 주고 금년 일년 내에 성도들이 전도해야 할 가상 숫자를 적어 내도록 한다. 사람의 이름까지는 아직 쓸 필요가 없고, 숫자만 적는데,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이런 식으로 제출해 놓고 그 때부터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것이다. 그런 다음 “전도 집회일” D. Day를 정하고, 두달 전에 교회 앞에 공고를 하고 한 달 전에는 대상자의 명단을 받아 교구별, 구역별, 조별로 인쇄 배부하고 매일 기도를 부탁드린다.

교회가 어떤 전도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자의 수가 달라질 것이다. 25 퍼센트와 50 퍼센트면 각각 거기 해당되는 숫자가 나올 것이다. 물론 제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부터 선정하여 전도 대상으로 정하게 된다. 순위별로, 먼저 익은 과실을 먼저 따듯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든다면 아래와 같다.

1.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 일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접촉하기가 제일 쉽다고 보겠다.

2. 교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님이다. 이 경우에는 교사로 하여금 가정을 자연스럽게 방문하도록 하여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의 성장 변화해 가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 부모들의 마음을 열도록 하는 작업이다.

3. 교회 구역 내로 새로 이사 온 가정 “이삿짐을 실은 차를 보거든 전도를 생각

하라”, 자기 구역으로 이사 온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라. 그들은 깊은 인상을 받게 되어 결국 앞으로 좋은 전도의 대상자가 된다.

4. 교회와 목회자와 인연이 있는 사람, 결혼, 장례, 상담 등으로 교회나 목회자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은 교회에 대하여 호의를 갖게 마련이다.

5. 제일 가까운 친구나 친척

6. 친척이나 친구가 없이 늘 고독하고 외로워하는 사람

7. 사업에 실패나 몸이 허약해서 고생하는 사람

8.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면회를 종종 감으로서 출옥 후에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과 환경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써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데 딱 유리하다.

나. 목표의 설정

목표 없는 작업이나, 목적 없는 싸움은 그만큼 능률도 전진도 있을 수 없다. 막연히 「전도합시다」가 아니라 분명히 점령해야 할 “고지” 즉 전도할 숫자까지 밝히는 것이 좋다. 25 퍼센트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100명 출석하는 교회는 25명을 목표로 하고 200명 출석하는 교회의 경우는 50명이 목표량이 되는 것이다. 이 숫자는 장년 교인들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 교회 각층(청년2부, 1부, 유년주일학교 등)에 분산하여 모두 25 퍼센트가 성장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분명한 목표 없이 목양하는 교회는 연 성장율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므로 어스틴 지역 복음화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량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다. D. Day의 운영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딤후 4:2)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D. Day를 정해 놓아야 인도하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무기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까지 라는 목적일이 있으므로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와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화 전략은 일반적으로 간접 전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어야 할 확실한 이유와 내용이 이 D. Day를 통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동안 수고한 추수를 위해서

이 날을 정해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은 자기 교회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 손님을 청할 때 음식을 준비하고 앉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을 접대할 사람을 동원하는 것과 같이 지역 복음화 전략에도 현재의 시설이 목표한 숫자를 수용할 수 있는가? 또 그들이 목표한 대로 대상자들을 교회로 나오게 전도했다면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릇은 그의 용량 밖에 더 담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교회도 그 그릇 이상의 인원을 수용도 확보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을 경우 보필할만한 인물을 속히 물색하여 돕도록 해야 한다. 사람의 힘과 지식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1) D. Day의 필요성

D. Day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여기에서 채택한 전도 방법이 간접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날은 교회에서 특별히 초청해 온 강사를 통해서 “믿어야 할 필요성과 방법과 이유”가 설명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증거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중요하다. 또한 피전도자들이 D. Day를 통해서 결실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날인 것이다.

(2) 강사 선정

간접 전도는 신자들이 불신자 곧 그들의 전도 대상자를 D. Day 전도 집회까지 인도하는 사명이다. 그 다음은 초청 강사의 일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서 그 집회 기간 중 믿어 결실케 하는 역할은 강사가 담당한다. 그러므로 강사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래서 강사 초청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먼저 자기 교회 수준에 맞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야 하며 처음 나온 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조리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요령과 믿음과 열심을 겸비한 사람이라야 한다.

강사를 잘못 선정하여 실패하는 수도 없지 않다. C 교회의 경우 K 목사를 청해서 2일간 전도 집회를 했다. 그는 자기 자랑 같은 이야기를 지루하게 늘어놓았고 또한 자기 저서를 소개하면서 “사라”고 하므로 인상이 좋지 않았다. 그 다음은 L 목사를 청했는데 남을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해서 기분이 나쁘게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

다. 그러므로 강사 선정에 유의하라는 것이다.

(3) 집회 시기와 시간

전도 집회 시간은 주민 생활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교인들의 편리나 강사의 편리가 아니라 주민들, 즉 새로 나오실 분들의 시간을 고려하고 정해야 한다. 시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도시일 경우 너무 추운 때나 더운 여름철을 피해야 하며 농촌의 경우는 그와 반대이다. 그들은 농한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이 적당한 시기이다. 불신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날짜는 길지 않은 것이 좋은 듯하다. 그러므로 금요일 밤부터 3일간 또는 토요일 밤부터 2일간이 좋다. 그 집회 끝 날이 주일이 되기 때문에 주일에 새 식구들이 소개될 수 있으며,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서 좋다. 등록하고 구역장과 선교회장을 소개하며 주변의 구역원들을 사귄 수 있어서 좋다.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30분이 지나면 벌써 허리가 틀리고 다리가 저려 온다. 곧 피곤을 느끼며 앉아 있기가 고생스러워지면 설교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새 식구들에게 썩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면 30분에서 35분 정도가 좋겠다. 이것은 사전에 주최측에서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

(4) 안내원 훈련

집회 기간 중 안내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안내원들이 잘 안내해야 조용한 가운데서 질서 있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 보통 출입구에서 인사하고 순서지 나누어 주는 정도는 한 두 분이면 충분하다. 나머지 분들은 좌석 안내를 해야 한다. 인도해 온 사람과 함께 앉게 하여 찬송가와 성경책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식구들은 예배당 중간 지점의 좌석이 좋겠다. 보통은 뒷좌석에 앉으려 한다. 그러나 뒷자리에는 출입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요스러워 주위가 집중되지 않는다.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자리이다. 강단에서 말씀하는 분의 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지점과 음성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지점이 바로 중간 지점이다. 새 식구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수가 많다. 처음 나오는 분들은 어린아이가 울어도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모른다. 그 때 속히 아이를 받아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장내를 소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전도위원회의 구성

국가 기관이나 기업체는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구조 조정이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본다. 이와 같이 어스틴 지역 복음화를 통하여 큰 수확을 얻기 위하여 연령과 이 지역에 오래 살았다는 것과 상관없이 어스틴 지역 복음화를 위한 능력 본위로 한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대회장을 비롯하여 총무, 지도위원, 조장, 조원 등을 각 교회에서 선정할 때 능력 본위로 한 조직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1946년 9월생)과 부쉬 대통령(1946년 7월생)은 두달 차이의 동갑내기다. 아직도 지역 갈등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세대간 대결 구도를 보여 준 사상 유례없는 정치 행사였다. 장년층들은 50대 대통령이 나오면 그 이상의 나이 든 사람들은 공직에서 떠나야 한다는 동양적 가치관 때문에 상당히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

노 대통령과 동갑내기 대통령이 통치하는 미국은 덱 체니 부통령은 64세요,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70대이며, 그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 때도 국방장관이었다. 그러나 그 때 국방 차관인 덱 체니가 30년이 지난 지금 부통령이 되었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 존 스토틀 재무장관은 64세 스티븐 프리드먼 백악관 경제 수석 비서관은 65세, 윌리엄 도널드슨 증권 거래 위원회 위원장은 72세로 모두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다.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은 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임명되어도 미국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연령에 의한 위계질서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정부 조직과 사회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스틴 지역 복음화를 위한 각 교회의 조직 역시 능력 본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 개인 전도에 대한 특별 세미나

개인 전도의 강화를 위해 어스틴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 세미나를 계획하고, 이를 위해 만전의 준비를 진행한다.

일 시: 2004년 11월 6일, 13일, 20일, 27일 오전 9:30-12:00

장 소: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대 상: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 남녀선교회

준비는 첫째,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는 10월 24일 주일, 31일 주일, 11월 7일 주일 후보에 위의 세미나를 소개한다. 둘째, 행사 주최측인 교역자 협의회에서는 개인 전도 특강에 대한 포스터를 만들어 각 교회 게시판에 부착한다. 셋째, 각 교회 교역자들은 자기 교회에서 많은 신자들이 개인 전도 세미나에 참석토록 협력한다. 넷째, 음료수, 간식, 점심은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여선교회에서 제공한다.

필자가 연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 온 전도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그 실태를 점검한다. 전도의 정의, 전도의 내용, 전도의 동기와 절차, 전도의 방법, 신약에 나타난 4 가지 개인 전도 방법 등을 커버하는 개인 전도의 핵심을 다룬다. 강사는 어스틴 신학교 교수 중에서 전도와 선교에 권위 있는 분을 두 분, 현직 목회에 성공한 두 목사님을 초청토록 한다.

개인 전도의 세미나를 받은 신자들은 세미나 내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져 어스틴 지역 교포 복음화에 가장 적합한 개인 전도 방법을 찾아냄으로서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본다.

강의 시간	진행
09:00-09:30	찬양과 기도
09:30-10:30	세미나
10:30-10:50	휴식
10:50-11:40	토론회
11:40-12:00	알리는 말씀, 찬송과 기도

제 3 절 교회 교육의 현대화

1. 설문 응답 내용

어스틴 지역의 성공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각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 온 교회 교육 제도에서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서 교육 방법의 현대화에 총 216명의 응답자중 120명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직분별로 보면 평신도 64명중 36명으로 56.3 퍼센트, 집사 88명중 52명으로 59.1 퍼센트, 권사 28명중 16명으로 57.1 퍼센트, 장로 24명중 4명으로 16.7 퍼센트, 교역자 12명중 12명으로 100 퍼센트이다.

이민사회의 특성상 자녀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교회교육의 성패가 교회의 발전과 나아가 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교회교육이 너무 전근대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 교육 방법의 현대화가 복음화의 성공에 중요한 관건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먼저 교육의 제도와 행정적 차원을 먼저 논하고, 이어서 교육 방법론을 다루려고 한다.

2. 교회학교 행정의 현대화

교육 방법을 평가하고 조정하고 진단하고 바꾸는 것은 교육 행정에서 하는 것이므로 교육 방법을 바꾸는 것은 곧 교육 행정을 바꾸는 것이 선봉 되어야 한다. 앨빈 린그렌(Alvin J. Lindgren)는 행정은 “봉사하는 분야의 목표와 목적을 발견하고, 조리 있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그 실현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일”이라고 했다.¹⁴⁰⁾ 또한 교회 행정 학자인 티드웰 찰스(Tidwell, Charles)는 “교회 행정이란 교회의 영적, 인적, 물리적, 재정적 자원을 이용하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교회의 영구한 목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안내라고 했다.¹⁴¹⁾ 그러므로 교회 학교 행정은 교회 학교 회원들이 교회 학교 일을 잘 하도록 돕는 모든 행위, 즉 계획, 조정, 감독, 평가를 포함한다고 본다.

교회 학교 행정이란 하나님의 교육하심에 근거한 교회의 교육적인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140) Alvin J. Lindgren, *Foundation For Purposeful Church Administr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65), 22-25

141) Charles A. Tidwell, *Church Administration: Effective Leadership for Ministry* (Nashville: Broadman Press, 1985), 41

이를 위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구비하여 실행하고 평가하는 체계적인 봉사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행정은 정책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정비하므로 하나님의 교육하심을 제한하고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신앙적인 노력이다. 교회학교 행정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다음 원리가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 섬김의 행정

일반적으로 교육 행정은 관리-감독하고 지시-명령하는 것이라는 그릇된 통념을 가지고 있다. 각급 행정 부서는 구제하고, 통제하고, 단속하는 부서라고 생각한다. 이는 행정가는 관리자요, 감독자요, 군림하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잘못된 관념을 바꾸어야 한다. 교육 행정직은 봉사적이며 섬김의 자리이다. 군림하고 보고 받고, 경계하는 자리가 아니다. 교육 목회 현장을 돌아보면서 어려움을 살피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리이다. 교사들의 불평사항이나 교육부서의 불편 사항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목표 지향적 행정

행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 행정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행정을 위한 행정은 죽은 행정이다. 행정을 위한 행정의 대표적인 경우로 절차주의, 문서주의, 회의주의를 들 수 있다. 회의(會議)는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회의가 법이 되고 회의를 위한 회의가 된다면 일을 망칠 수 있다. 행정은 언제나 목표 달성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절차도, 회의도, 문서도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면서 행정 무용론을 주장한다면 방림과 무정부 상태에 빠뜨리는 덩어리에 걸리게 된다.

다. 참여 행정

한국의 노무현 정부를 참여 정부라고 한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와 행정이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이다. 폐쇄적인 밀실 행정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모든 국민의

참여 없이 몇몇의 특정 소수가 이끌어 가는 행정으로는 효과적인 행정을 펼치기 어렵다. “제일 기획”은 2003년 초에 전국 5대 도시의 17-38세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했다고 일간신문에 보도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X세대, N세대를 잇는 새로운 “P세대”가 부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P세대의 특징은 잘못된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 다양성에 바탕을 둔 “개인”,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감성을 꼽고 있다. 이 P시대란 말은 “참여”(Participation), “열정”(Passion),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주도”(Paradigm-shifter)의 P에서 따온 말이라 한다. 그러므로 변화를 위하여 열정적인 참여가 P시대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교회 행정도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하여 주도하는 시대에서 탈피하여 모든 관계자가 참여토록 하는 참여 행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라. 감동을 주는 행정

미국의 국가 행정은 국민을 감동시키는 행정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권위적인 행정은 감동을 반감시킨다. 거친 행정은 감동은커녕 마음을 떠나게 만든다. 반면에 감동을 주는 행정은 감동을 배가시킨다. 감동을 주는 행정은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고 교회를 자랑하게 만든다. 지난날의 잘못된 권위주의나 거친 행정을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감동을 주는 행정이란, 첫째 필요지향적(need-oriented)인 행정이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작은 일에 감동한다. 둘째, 원 스탱(one-stop) 책임 행정이다. 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이 도움을 청하거나 요청을 했을 때 자기가 책임자가 아니라고 이 방 저 방으로 가라는 식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처음 부탁을 받은 사람이 성의를 다하여 문제를 해결해 준다. 셋째, 투명성을 확보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투명한 행정이 사람을 감동시킨다. 인사 관리, 재무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의 확보는 감동을 주는 행정이다. 사실 교회와 교회 학교 행정은 투명한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교회 학교 행정의 기능 확대

교육 행정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교육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에 따른 사람을 배치하고 사업을 잘 관리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부서나 사람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평가와 진단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추가적인 기능을 말하고자 한다.

가. 미래 예측 기능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뿐만 아니라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의 내용이다.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표현할 만큼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다. 이제 교회 학교 행정은 교회 교육의 미래적인 변화를 미리 예견하고 대응하도록 도와야 한다.

나. 자가 진단 기능

건강과 변화를 위해 진단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교육 행정은 교회의 교육적 구조나 활동에 대해 자가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가 진단력을 길러야 한다. 모든 교회 학교가 하나의 방법이나 도구로 전달할 수는 없다. 하지만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진단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몫이요 교회 학교 현장 전문가들의 몫이다.

다. 자원 관리 기능

교회 학교는 자료만으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풍성한 교회 교육을 위해 자료는 꼭 필요하다. 교육 행정은 교육 목회에 필요한 자료나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의 개발,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의 개발과 관리하는 교육 행정이 더욱 힘을 기우려야 할 분야이다.

라. 네트워킹 기능

지금은 네트워킹의 시대이다. 네트워킹 지수(NQ: Networking Quotient)라는 말

이 사용될 정도다. 교회 학교 교육의 생존을 위해, 발전을 위해 네트워킹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교회 내에서 부서간의 네트워킹, 인적 자원간의 네트워킹, 교회와 외부 전문기관이나 단체와의 네트워킹 등 교회 학교 행정은 이제 네트워킹 지수를 높이기 위해 투자하고 힘써야 한다.

4. 교회 학교 행정의 학교식 행정 탈피

가. 정책적 변화

교육 정책이란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요 행동 지침이다. 그러므로 정책이 없는 교육은 제멋대로 될 수밖에 없다. 정책이 확실하지 않으면 교회 교육은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다. 교회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정책면에서 꼭 학교 교육을 답았다는 것이다.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고 소리는 지르면서 막상 분명한 교회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내어 놓으라고 하면 입을 닫아 버린다. 교육은 모름지기 목표 지향적이다. 교회 교육이 제대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교회 교육 비전과 일관성 있는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나. 조직적 변화

학교식 행정 조직은 전통적인 행정 조직에 충실한 행정이다. 계층의 원리, 명령 일원화의 원리, 능력 범위의 원리, 분업의 원리, 조정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등과 같은 고전적인 행정 조직에 입각한 조직이다. 교회 학교에 사용되고 있는 조직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앞에서 열거한 조직의 원리에 근거한 조직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학교식 조직은 계층이 많아지고 조직이 방대해지면서 많은 폐해가 생기게 되었다. 학교식 조직의 결점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쌍방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가 힘들어지고, 부서간의 이기주의와 갈등을 조정하기가 힘들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다. 인사적 변화

“인사가 만사”라는 말과 같이 인사를 그르치면 만사를 그르치게 된다. 인사 행정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제 및 능력 개발의 기술을 의미하며, 인사 관리 및 정책적인 면을 포함한다.¹⁴²⁾ 인사 행정의 정의를 보면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바람직하게 관리하려는 것을 의미한다.¹⁴³⁾ 그러나 인사 행정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⁴⁴⁾ 교회 행정은 일반 학교식 인사 관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학교식 인사는 모두가 유급직이다. 그러나 교회 학교의 인사는 교역자와 특수한 경우의 기능직 사역자(지휘자, 반주자) 외에는 모두가 자원 봉사자이다. 이들은 자기가 좋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동기 부여와 전문성이다. 이런 점에서 일반 학교에서와는 다른 인사 관리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의 합리성과 투명성, 자발적 참여의 분위기, 적절한 영적 재충전의 기회, 자기 성취와 개발의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점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동기는 꺾어지고 사기는 떨어지게 된다.

5. 교회 학교 교육의 미래적 지향

교회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시대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교육이 지닌 미래성 때문이다.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다. 일시성(temporality) 안에서 우리의 시간은 현재에 속하지만 바로 그 현재라는 시간 속에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가능성(vision)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 앞에는 “있음직한”(probable) 미래가 있고 “있을 수 있는”(possible) 미래도 있고, “있어야 할”(must, ought to) 미래가 있고, 그리고 “바람직한”(desirable, preferable) 미래가 있다. 교회 교육의 본질적 기능은 인간이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일이다. 교회 교육은 개인에게 교회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능, 감정, 태도와 가치관을 가르치는 의도적인 활동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앞으로 일생 동안 살아갈 교회와 사회, 종사할 직업, 당면할 문제, 그리고 수행할 역할에 맞추어 교육되어야 한다. 여기에 교회 교육의 본질로서

142) 김연중, *현대 교회 행정학* (서울: 무림출판사, 1991), 121-122.

143) 박완선, *교회 행정론* (서울: 기독교문사, 1991), 125.

144) Peter F. Drucker, *Management* (New York: Harper & Row Press, 1974), 306.

미래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새로운 미래의 충격으로 밤에 찾아온 한 지성인에게 거듭 날 것을 충고했다. 그러나 그는 이 충고를 받아 드리지 못하고 돌아갔다(요 3:1-14).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도피해 버렸다. 과거지향적인 안일 속으로 숨어 버리고자 했다. 아늑한 기득권의 동굴로 만족하려 했다. 시대의 도전을 거부한 지도자들 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서 “미래 사회의 도전 앞에 선 오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거듭나라”고 말씀하신다.¹⁴⁵⁾

교회 교육의 미래성의 도입은 교육 방법의 변화를 가져오는 선봉이 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교육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¹⁴⁶⁾

1. 교회 학교 교육의 미래성의 도입은 재래식의 교육 방식, 수업 매체, 학습 지도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2. 교회 학교 교육의 미래성의 도입은 계시에 기초한 교육 방법으로 종래의 학교식 강의, 토의, 연구 방법 못지않게 복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비언어적인 요인-관계의 언어-를 중요시할 것이다.

3. 하나님 지식과 관련해서 성서적 “앎”(αἴν)의 과정이나 신학자들의 신학 방법, 즉 관계적, 경험적, 성찰적 방법이 교회 교육의 주된 방법의 원리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에 기초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회 교육은 이론(theory)과 실행(practice)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현행 방법을 바꾸어 실천적 접근 방법(ortho-praxis)으로 교회 교육의 방법의 기본 틀을 과감하게 바꾸어 가는 작업이 요구된다.

6. 예수님의 교육방법 활용

가. 강화식 교육 방법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강화식 교육 방법의 대표적인 것은 “산상 수훈”이며, 말기

145) 박종규, *바른 지도자는 누구인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30-32.

146) 맹용길, *신학과 교육*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92), 235.

에는 “종말의 강조”와 “다락방 강화”(요 14-17장)이다. 이 강화(Discourse)식 교육 방법을 사용할 때 그 대상은 제자들만 있을 때, 적은 무리들에게, 또한 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사용하셨다. 예수님의 강화 방법을 통하여 가르쳤던 장소는 때로는 산기슭, 바닷가, 호숫가에 매어 둔 배 위에서, 들판에서, 길을 걸어 가시면서도 사용하셨다. 초기에는 히브리 교육 방법에 영향을 받아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신 모습을 볼 수 있다.¹⁴⁷⁾ 유대인 회당에는 오전에는 예배와 설교가 있었고, 오후에는 복음서에서 보여 준 것과 같이 회당은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마 9:35, 12:9, 13:54, 막 1:21, 눅 4:15, 요 18:20).

호오른(Horne)은 예수님의 강화식 교육 방법을 분류하기를 12제자들에게만 한 것, 무리에게만 한 것, 제자들에게 한 것, 무리와 제자들에게 한 것 등 약 60 가지의 강화식 교육 방법을 열거했다.¹⁴⁸⁾ 호오른은 예수님의 강화식 교육 방법을 통하여 가르치신 주요 주제들의 성격을 ①포괄적인 성격, ②당시의 백성들이 받은 놀라운 적응성에 대한 인상은 어떤 것인가? ③예수님의 강화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등이라 했다.¹⁴⁹⁾ 예수님의 강화 중 가장 길며 유명한 것은(요 14-17장)까지의 녁장에 걸친 “고별 강화”이다.

당시 백성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강화법에 주의를 집중하고 많은 관심을 가졌다 또한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심지어는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고 했다.

나. 극적인 교육 방법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극적(Dramatic)인 교육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다. 이 극적인 교육 방법은 그의 독창적인 것보다는 당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 관습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저들은 모세로부터 명령을 받은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하나의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이러한 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셨다. 이사야에게 “맨발로 걸어가게 하신 일이나(사 20:1-6) 예레미야에게 목에 멍에

147) C. B. Evey *An Introduction to Evangelical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65), 79.

148) Horne, *Jesus the Master Teacher*, 94-96.

149) Ibid., 97

를 메고 예언하게 한 것이나(렘 28:12-14),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의 모형을 만들어 포위 공세를 보여 준 일(겔 4:1-3) 등에서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구약에서 보여 준 그 원리를 사용하셨으므로 이것은 구약 절기의 신약적 계승이라 본다. 예수님의 극적인 교육 방법을 사용하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만찬식”과 세례 예식이다. 이것들은 단순한 계명이나 예식이나 친교 활동이 아니다. 이 극적인 형식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모든 교훈과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을 우리에게 재현시켜 주는 큰 교육적인 효과를 준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극적인 이 두 가지 의식은 교회에서 행하여지며, 말씀과 함께 의식과 행동을 통한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재물을 위해 파는 양과 소를 쫓아내신 일이 있고(마 21:12-16), 무리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찬송하며 환영하는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다(마 21:7-11).

이와 같은 방법은 하나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과정이 아니었고 분명히 그 뜻과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성전을 숙청하신 것은 성전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교훈은 당시 사람들에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함이었다.¹⁵⁰⁾

이 연극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예술적 효과를 제공한다.¹⁵¹⁾ 연극의 교육적 의미는 매우 크다. 가능한 근사하게 자연적인 장면에서 역사나 현대 생활에 나타난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노력이며, 본래 모방적이고 재생적인 것이므로 효과가 더욱 크다.

다. 비유를 통한 교육 방법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가장 특이하고도 흔한 교육 방법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한 가르침이었다. 비유란 말의 의미는 “비교하기 위해서 한 사실을 다른 것과 같이 놓는다”는 뜻이다.¹⁵²⁾ 호오온(Horne)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은 수가 총 61 가지인데 그 중에서 사람은 34곳, 짐승은 4곳, 식물은 7곳, 땅과 기타 물건이 16곳이라고 지적했

150) A. W. Hitcock, *The Psychology of Jesus* (Boston: The Pilgrim Press, 1907), 187.

151) William V. Meredith, *Pegeantry and Dramatics in Religious Education* (New York: The Abingdon Press, 1921), 125.

152) James Hastings, *The Dictionary of the Bibl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1916), IV: 662.

다.¹⁵³⁾ 또한 그는 이 총 61가지 비유 중에서 무생물 비유가 26 퍼센트, 식물을 취급한 곳이 11.5 퍼센트, 동물을 취급한 곳이 7 퍼센트, 사람을 취급한 곳이 55 퍼센트라 한다.¹⁵⁴⁾ 이러한 호오온의 분석 결과는 예수님의 생각의 특성은 동물계나, 식물계나, 사물에 대한 세계보다도 우리 인간계에 중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피조물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나온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은 아주 폭 넓은 범주의 흥미를 소유한 분, 또한 매우 포괄적인 생각을 가지셨다는 것이다.¹⁵⁵⁾

예수님의 비유 교육 방법은 구약에서 유래한 것으로 에스겔서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우화, 수수께끼, 풍유, 잠언 등과 더불어 상당히 많은 비유가 발견된다(겔 20:45-49, 삼하 12:1-9, 14:1-13).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비유를 읽어 찾아 내신 것과 자연과 생활 속에서 창출해 내신 비유들을 천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비유를 찾아내시고, 받아들이고,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고 완전케 하셨다.¹⁵⁶⁾

호오온은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비유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숨기고자 함이요, 오직 받을만한 자에게만 그 진리를 열어 보여 주시고자 함이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고자 하는 방법으로 들을 귀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에 대한 구별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¹⁵⁷⁾

공관복음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마 13:10-18, 34-35, 막 4:10-12, 33-34, 눅 8:9-10).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서 비유의 목적을 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비유를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마 13:13) 하시고 비유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어 보다 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함이며,

둘째, 교만하고, 완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가리워지게 함이었다.¹⁵⁸⁾

153) Horne, *Jesus The Master Teacher*, 77.

154) Ibid.

155) Ibid., 116.

156) Ibid., 121.

157) Ibid., 109-110.

또한 마태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마 13:35). 이상과 같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서 비유는 어느 것보다도 가장 많이 애용하신 방법으로 심지어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마 13:34).

라. 시청각 교육 방법

현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인 시청각 교육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미 사용하셨다. 시청각 교육은 진리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가르쳤다. 예수님은 기존 신자가 천국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군중 한 가운데 어린 아이를 세운 일이 있다(마 18:1-4). 비슷한 예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겹손과 서로 섬김의 도인 사랑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요 13:1-5). 또 다른 예로는 바리새인과 헤롯당 대표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합법적이냐는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들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마 22:15-22) 하시면서 시청각 교육 방법을 통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시청각 교육 방법은 우리들에게 기억하고 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였다고 본다.

이러한 시청각 교육은 아이들에게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육의 대상은 모두 어른들이었다. 예수님은 이 어른들에게 시청각 교육 방법을 통하여 교육하시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른들도 시청각 교재를 사용할 때 더욱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청각 교육 방법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것은 아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 번 사용하신 방법이 있다(렘 13:1-27, 18:1-10, 19:1-13, 24:1-10, 아모스 7:1, 7-8, 8:1-3, 9:1, 왕상 11:29-39).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관심을 모아서 추상적인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고 시청각 교육을 하셨다. 그래서 시청각 교재 사용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르치려면 시청각 교육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158) 박운선, *공관 복음서 주석* (서울: 영음사, 1976), 334.

이상과 같이 구약의 예레미야와 아모스와 아히야 선지자들이 사용한 시청각 교육과 신약의 예수님의 시청각 교육 방법을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 학교가 도입하므로 어스틴 지역 교포 복음화에 크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

마. 문답식 교육 방법

누가복음 2장 41절-50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이와 같은 문답식 교육 방법은 예수님의 성역 기간에 많이 사용되었다. 프라이스(J. M. Price)는 4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문답식 교육 방법은 100번 이상 발견된다고 주장한다.¹⁵⁹⁾

예수님께서 문답식 교육 방법을 사용하신 목적에 대하여 메릴(W. P. Merrill)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영혼을 안정 시키려가 아니라 자극하려고 삶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교육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한다.¹⁶⁰⁾ 마퀴스(J. A. Marquis)는 우리 주님은 질문하는 습관 때문에 그의 반의 평온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학생들도 일어나 앉아 생각했다고 한다.¹⁶¹⁾

4 복음에 예수님의 문답식 교육 방법에서 질문을 사용하신 목적을 좀더 구체적으로 실례를 살펴보면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청중들의 문제를 생각해 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마가복음 3:4

둘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막 10:36)

셋째, 상대방이 대답을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전하기 위하여 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3-15)

159) J. M. Price, *선생 예수*, 박영돈 역 (서울: 침례회 출판사, 1978), 141.

160) Horne, *Jesus the Master Teacher*, 51.

161) John A. Marquis, *Learning to Teach from the Master*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13), 29.

넷째, 질문을 논증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 6:30).

다섯째, 궁지에 몰아넣는 질문에 대한 대책이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막 11:30).

여섯째, 그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해서이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성전의 진설병을 먹은 예를 주님은 들고 있다”(마 12:3-4).

일곱째,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주의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시므로 대답하고자 하는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다(눅 10:36).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세 번 질문은 강조하기 위함이다(요 21:15-17).

이상에서 종래 교회 학교 교육 방법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교회 학교 행정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것과 보강해야 할 것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다. 건강하고 적절한 교회 학교 행정의 개발은 교회 학교 현장을 더욱 알차고 기쁨지게 만들어 줄 것이다. 경직된 일반 학교식 행정으로 교회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교육 행정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적절한 교육 제도와 교육 방법의 개발, 개방적인 의사 결정 과정, 명료한 역할 분담과 과감한 위임, 강력하면서도 군림하지 않는 리더쉽, 평가와 진단에 대한 개방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교회 교육 행정이 달라지면 교육 방법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며, 교회 학교 교육이 미래 지향적으로 더욱 새롭게 바뀌어 질 것이다. 위대한 교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시청각 교육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의 강화식, 극적 및 비유와 문답식 교육 방법은 현대인 증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 이렇게 하여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가 교육 방법을 바꾸므로 이 지역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7. 교회 학교 교육 방법에 대한 특강

교회학교 교육방법의 현대화를 위하여(도표 1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특강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일 시: 2004년 12월 4일, 11일, 18일

장 소: 라운드락 한인장로교회

대 상: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 교육부 관계자들 및 교역자들

준비는 첫째,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는 11월 21일 주일, 28일 주일, 12월 5일 주일 주보에 위의 특강 소식을 알린다. 둘째, 행사 주최측인 교역자 협의회에서는 교회 학교 교육 방법에 대한 특강 포스터를 제작 각 교회에 배부한다. 셋째, 각 교회 교역자들은 자기 교회 학교 관계자들 전원 참석토록 협력한다. 넷째, 점심과 음료수는 라운드락 한인장로교회 여선교회에서 제공한다.

필자가 연구한 교회 학교 교육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교회 학교 행정을 바꾸고 일반 사회 학교 행정에서 탈퇴하고 미래성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과 특별히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강을 하게 된다. 강사는 어스틴 장로교 신학교에서 교육 분야에 강의하시는 두 분 교수님과 교회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고명한 현직 목사님을 한 분 초청코자 한다.

특강 내용을 주제로 하여 20 교회 교육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어스틴 지역에 가장 맞는 교육 방법이 무엇인가를 서로 토의한다.

시간	진행
09:00-09:30	인사와 찬양과 기도
09:30-10:30	특강
10:30-10:50	휴식
10:50-11:50	토론
11:50-12:00	찬송과 기도

제 4 절 교회간의 관계 개선

1. 설문 응답 내용

어스틴 지역의 성공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와 교회간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서 이웃 교회와 친목에 112명이 응답했다. 그 내용을 직분별로 보면 평신도 64명 중 28명으로 43.8 퍼센트, 집사 88명 중 44명으로 50 퍼센트, 권사 28명 중 24명으로 85 퍼센트, 장로 24명 중 12명으로 50 퍼센트, 교역자 12명 중 4명으로 33.3 퍼센트이다.

설문 10항에서 교파주의의 지향, 연합 친목 행사의 확대, 연합 집회의 활성화, 대 교회의 소교회 지원 등을 제하고, 어스틴 지역 복음화를 효과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이웃 교회와의 친목에 응답한 자가 제일 많았다는 것은 그간 이 지역에서 작고 크고 간에 이웃 지역 교회 간에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한인교회가 교회 간에 심한 경쟁의식으로 이웃교회와의 관계가 아예 없거나 나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관계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복음화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교회론적 당위성뿐 아니라 복음화를 위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2. 지역교회 간의 코이노니아 회복

먼저 이웃 교회지역 교회의 개념과 사역을 알고,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친목 즉 친교인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 이웃 교회 간에 실천하므로 복음화에 앞장서는 것이다.

지역(이웃) 교회는 3가지 모습을 가져야 한다. 첫째, 지역 교회는 철저히 한 지역에 자리 잡아야 한다. 한 교회가 여러 지역에 건물을 세우고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채 하나의 중심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려 한다면 지역 교회는 아니다. (예 여의도 순복음 교회, 광림교회, 어스틴 지역의 옛날 명성교회 등 예배를 중앙의 통제 하에 케이블로 드림). 둘째, 지역 교회는 그 지역에서 종의 모델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 셋째, 지역 교회는 구성원 숫자가 200명 정도가 교역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숫자로 본다.¹⁶²⁾

그리고, 지역교회는 다음 3가지 사역을 시행해야 한다. 첫째, 지역 교회는 위로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둘째, 지역 교회는 안으로는 상호 관심과 교육과 훈련 및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인 백성임을 느끼고, 셋째, 지

162) 이기춘, *한국적 목회 신학의 탐구*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 출판부, 1991), 109

역 교회는 밖으로는 복음 선포와 사회 봉사과 사회 변혁을 책임지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상 지역 교회의 3가지 개념과 3가지 사역을 보면 이단 교회는 제외됨을 볼 수 있다.

3. 성경의 코이노니아 개념

친목-친교란 구약에는 명사로는 샬롬(shalom)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왕상 5:12) 하였다”고 단 한 번 나온다. 형용사 형으로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shalom)하고」(창 34:21)에 역시 한 번 나온다. (하물과 그 아들 세겔이 그 고을 사람에게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신약 성경에는 총 19절에 나타나며 추상명사 코이노니아(koinonia)는 친교, 교제, 사귄, 교통, 참여, 도움, 동정, 연보, 구제 등으로 보통 명사형으로 코이노노스(koinonos)는 동료, 참여자, 가담자, 동반자, 동지 등으로, 동사형으로는 코이노네오(koinoneo)으로 공급하다, 나누어 받다, 같이 나누다, 주고 받다 등으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의 용어를 모두는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각기 부분적으로 나타내 줌으로 이들 의미 중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온전히 대변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친교, 즉 코이노니아의 뜻은 포괄적이다.

신약 성서에서 코이노니아를 밝히는 것은 코이노니아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밝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신약에 코이노니아란 말이 19번 사용되는 중 13번이 바울 서신에서 사용되고(롬 15:26, 고전 1:9, 10:16, 고후 6:14, 8:4, 9:13, 13:13, 갈 2:9, 빌 1:5, 2:1, 3:10, 몬 6) 요한 일서에서 4번(1:3상, 3하, 6, 7), 사도행전에 한 번(2:24)과 히브리서에 한 번(13:16) 각각 사용되었다.

동사형 코이노네오은 신약 8번 사용되는 중 6번이 바울 서신에(롬 12:13, 15:27, 갈 6:6, 빌 4:15, 딤후 5:22, 히 2:14)서 사용되고, 베드로 전서(4:13)와 요한2서(11)에 각각 한 번 사용되었다.

그러면, 어스틴 지역 교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웃 교회와 개선해야 할 친목(친교), 즉 코이노니아는 무엇인가? 왜 해야 하는가? 코이노니아는 생명의 본질(본질)이다.

첫째, 우리는 인간 창조 작업에서 원초적인 코이노니아를 본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1:26, 27).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창 2:22). 그러므로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사에서는 하나님-흙(자녀)-남자-여자가 서로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틈 없는 사귄(친목)의 관계에 있었다. 이 사귄의 관계가 바로 생명 현상의 본질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낙원의 본질이다.

둘째, 이 태초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다. 사람이나 자연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피조적인 코이노니아 안에 있으므로 왜곡되지 않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죄로 인하여 코이노니아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으며, 그 결과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 인간은 상호간에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게 되었다.

넷째, 사랑의 하나님은 파괴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셨다. 원초적 코이노니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파괴되고 왜곡된 생명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코이노니아의 「회복 작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맺은 계약의 백성을 통하여 모든 인류와 자연과의 코이노니아를 회복시키려 하셨다.

그러나 백성들은 끊임없는 배신으로 하나님과의 사귄을 회복할 것을 거부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취하셔야 했다. 바울에 의하면 이 코이노니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났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유지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의 과거와 미래적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귄(코이노니아)으로 부르셨다(고전 1:9)고 한다. 이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의 코이노니아이다. 고전 1:4-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미 주어진 은혜를 말하며, 이에 반하여 7절-8절은 기다리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말하므로 과거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미래적인 그리스도 사건이 함께 언급되고, 9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의 코이노니아로 성도들을 부르심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므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의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의 과거 사건과 그리스도의 미래 사건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뜻이 분명해진다. 이 그리스도 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존재와 관계를 결정하며 미래적인 소망의 근거가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규정하고 구원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향과 목표가 그리스도와 그의 코이노니아란 말은 참된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 회복은 그리스도의 과거와 미래 사건에 코이노니오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과 그의 고난에 동참(*κοινωνία*)함으로써 그의 죽음을 본 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고난 자체가 즐겁고 좋은 것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코이노니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위로에도 동참하며(고후 1:5),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기 때문이다(롬 8:17, 딤후 2:11-12, 벧전 4:13).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다. 코이노니아가 함께 공동으로 나누는 사귄다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죽음"이나 로마서 6장 8절과 고린도 후서 7장 3절에서 말하는 "함께 살아날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현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뜻은 이미 고린도 전서 1장 4절-9절의 문맥에서나 고린도 후서 1장 5-7절, 빌립보서 3장 10절 등에 내포되어 있다. 로마서와 고린도서가 미래적 표현을 하는데 반하여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는 과거적인 표현을 한다(골 2:12-13, 엡 2:5-6).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는 시제가 현재적이든지 미래적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란 것이다.

셋째,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담과 대비되며(롬 5:12), 이 아담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파괴한 왜곡된 생명의 원조이며 그 후 모든 인류를 이 잘못된 생명의 현상 안으로 던져 버린 인물이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이 아담의 사슬을 끊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회복시킴으로서 잃었던 참 생명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하는 것이다.

4.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교회를 정의할 때 “성도의 교제”라고 고백하였다. 왜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코이노니아인가?

첫째,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코이노니아가 교회 자체를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바울 서신이 말하는 여러 가지 교회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속에 항상 기본적으로 흐르는 원리가 코이노니아이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일치를 지키는 원리이며 동역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스도와와의 코이노니아로(고전 1:9) 부르심으로 설립되었고, 그 교회 안에서 선포와 고백과 성례전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와와의 코이노니아가 반복되며, 또 그를 통하여 교인들 상호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배우는 신자들 사이에 있어야 할 기본적인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보여 준다. 양편이 다 가르치고 배우므로 복음에 동참하므로써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이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 하신다.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를 만들어 가는 교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들, 교역자와 제직회간에 아무런 갈등이 있을 수 없다.

둘째, 교회는 코이노니아로 “하나의 몸”을 이룬다. 기독교적인 코이노니아와 교회론적인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고린도 전서 10장이다. 16절에서는 성례전적인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가 언급되고, 17절에서는 교회론적인 코이노니아가 나온다.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하나의 몸이 되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건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몸에 동참자들(*κοινωνοι*)이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 몸의 지체들이다(롬 12:5, 고전 12:12). 이 한 몸은 지체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지체들이 서로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이다.

셋째, 교회는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교회간의 일치를 이룬다.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새 창조한 사건이요, 인간을 자신과 화해시킨 사건이다. 하나님은 이 코이노니아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다(고전 1:9). 그러므로 교회의 일치는 코이노니아의 전제이며,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일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바울은 교회간의 코이노니아를 실천한 자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코이노니아를 통한 개교회의 일치와 교회와 교회간의 일치를 힘을 다하여 추진하였다(롬 15:30-33). 초대 교회는 코이노니아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행 4:32) 물질적인 것까지도 함께 나눈 것으로 나타난다(갈 6:6, 빌 4:15).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데서 보여 주듯이 개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회임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5. 어스틴 지역교회들의 두레 공동체 형성

가. 두레 공동체

어스틴 지역의 복음화 전략에 있어서 지역은 단순한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도 지도상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개념은 공동체를 상징하는 “두레”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두레”는 그 내용과 형식이 우리의 역사에서만 볼 수 있는 “두레 공동체”¹⁶³⁾의 그 뜻은 전체를 의미하는 명사이며 공동체의 특징은 “전체성”이기 때문에 두레는 공동체 그 자체를 나타내는 한국의 고유명사이다.

“두레”의 처음 시작은 공동 노동의 필요에 의하여 생겨났다. 김매기, 벼 베기, 도로 보수, 공공시설의 건립, 혼례, 장례, 지붕일 등은 마을 사람들의 상부상조로 이루어졌으며, 두레 공동체의 의식의 가장 특징은 공동 식사와 공동 휴식이었다.¹⁶⁴⁾ 특별히 과부나 노약자들의 경지는 무상으로 경작해 주고, 공동 노동의 수입은 마을의 공동 기금으로 사용하는 상부상조의 자치 회의였다.¹⁶⁵⁾ 개 교회 울타리를 넘어 예루살렘 교

163) 김대경, *도시 근방 지역, 농촌 목회를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 (서울: 감신대 출판부, 1996), 31

164) 신용하, *두레 공동체와 농약의 사회사* (서울: 일지사, 1987), 488-489.

회와의 코이노니아란 바울의 정신을 본받아 두레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를 배워 사도행전 2장의 초대 교회처럼 뜨거운 교제를 하면 이웃 교회와 어스틴 지역 복음화에 큰 역사가 일어 날 것을 믿는다.

나. 교회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 친선 행사

어스틴 지역교회들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다음 행사를 계획하고(도표 12에 의하여),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첫째,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는 9월 26일, 10월 3일, 10월 10일 주일 주보에 친선 행사 소식을 알린다. 둘째, 이 행사를 위하여 각 교회 교역자들은 전 친선 행사에 참여토록 적극 협조한다. 셋째, 행사에 장소를 제공한 교회에서 음료수, 과일, 점심을 제공한다. 주최측인 교역자 협의회에서 음료수, 과일, 점심을 제공한다.

필자가 연구한 교파를 초월한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간의 친선을 중심으로 구약의 코이노니아(왕상 5:12, 창 34:21)와 신약의 바울 서신의 코이노니아와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효과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필수적인 교회간의 친교의 내용을 강의한다. 찬송과 기도로 시작되는 강의 시간은 30분으로 끝내야 한다. 강사는 어스틴 지역 목회자 중 5분을 선정한다.

(가) 친선 탁구 대회

일 시: 2004년 10월 2일 오전 10시-오후 3시

장 소: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친교실

대 상: 어스틴 지역 20개 한인 교회 남녀선교회

(나) 친선 배구 대회

일 시: 2004년 10월 9일 오전 10시-오후 3시

장 소: 어스틴 한인침례교회

대 상: 어스틴 지역 20개 한인교회 청년부

165) 주강현, *노동과 굶-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세계관* (서울: 한민사, 1989), 85-89.

(다) 친선 테니스 대회

일 시: 2004년 10월 16일 오전 10시-오후 3시

장 소: Austin West Park 정구장

대 상: 어스틴 지역 20개 한인교회 남녀선교회

(라) 친선 골프 대회

일 시: 2004년 10월 23일 오전 10시-오후 3시

장 소: 라이온스 골프장

대 상: 어스틴 지역 20개 한인 교회 남녀선교회

(마) 친선 찬송가 경연 대회

일 시: 2004년 10월 30일 오후 7시-오후 10시

장 소: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본당

대 상: 어스틴 지역 20개 한인 교회 교인

이와 같은 친선 행사로 교파의 담이 허물어지고 교회는 하나의 교회란 진리를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제 5 절 교역자의 목회 지도력 향상

1. 설문 응답 내용

어스틴 지역에서 지금까지 이룩한 교회의 발전과 복음화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교역자들의 목회 지도력으로 보았다. (설문 5) 교역자들의 목회 지도력에 응답한 자들은 80명으로 평신도와 집사 및 권사들은 30퍼센트 이상이나, 장로들은 16.7퍼센트로 가장 낮은 비율인가 하면 교역자들은 100퍼센트로 12명 전원이 응답했다.

이와 같은 설문 응답은 앞으로도 어스틴 지역 교회 발전과 복음화에 있어서 이 지역 교역자들의 훌륭한 목회 지도력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어

스틴 지역의 효과적인 복음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의 목회 지도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특히, 어스틴 지역의 완전 복음화를 위한 사명감과 지도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한편, 한인들은 목회자에게 지도력뿐 아니라 도덕적 모범을 원하고 있어서, 이 두 문제는 같이 논의될 것이다. 실로, 도덕적 모범이 결여된 지도력은 옳바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은 목회 지도력이기 때문이다.

2. 지도력의 정의

Richard Wolff는 지도자란 “앞서 가는 자”로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보았다. 그는 리더(Leader)란 “길을 알고 앞에 설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로 따라 오도록 할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을 먼저 행하는 사람, 선두자, 안내자, 그룹의 앞에서 걸어가는 그룹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¹⁶⁶⁾이라고 한다. Lloyd Perry는 지도자를 “공동 목표를 달성하도록 선두에 서는 자”로 보았다. 그의 저서 “가는 길이 분명한 교회”에서 일반 지도자는 그가 생각하는 신념을 그룹 전체의 공동 목표를 달성토록 선두에서 지도하는 자¹⁶⁷⁾라고 한다. Ivan D. Steiner는 지도자를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자”로 보았다.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선택된 자로서 그 지휘와 행동으로 그룹 전체의 행동과 활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¹⁶⁸⁾로 보았다.

강신권은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리더”(Leader)란 선택된 자로서, 집단의 목표를 설치하도록 영향력을 가지는 상호 작용의 복합적인 관계 개념이며 그러나 그리스도교 리더는 선택된 섬기는 자이다¹⁶⁹⁾라고 한다.

그는 이어 교역자의 지도력(Leadership)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간의 모든 뜻과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¹⁷⁰⁾고 한다.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는 “리더쉽”이란 장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특권¹⁷¹⁾ 이라 한다.

166) Richard Wolff, *Man at the Top* (Wheaton: Tyndale, 1979), 19.

167) Lloyd Perry, *Getting the Church on Target* (Chicago: Moody Press, 1977), 3

168) Ivan D. Steiner, *Group Process & Productivity*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17.

169) 강신권, *21세기를 향한 리더쉽* (서울: 쿤란 출판사, 1995), 3

170) Ibid.

171) C. P. Wagner, *교회 성장을 위한 지도력*, 김선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9

이성희에 의하면, 목회자의 지도력은 단순한 일반 지도력과는 달리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영적 감동을 불러 일으켜 영적 존경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직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은 조직의 운영과 성패의 중요한 변수인데, 교회에서의 지도자로서의 목사의 영적 감동은 더 큰 변수이다¹⁷²⁾.

제임스 앤더슨(James D. Anderson)은 교회 지도력의 업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효율적인 조직의 관리를 제공하는 일이다. 둘째는 교회를 구심점을 향해 집중하게 하고, 교인들에게 분명한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자유롭게 의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리고, 셋째는 교인들에게 확실한 영적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의 눈으로 자신과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언행이 일치하고 권위가 있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상담하고 증거하는 일이다¹⁷³⁾.

3. 성경적인 리더십의 형성

가. 모세

신구약에 나타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으셨고, 찾으셨을 때 그들의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채워 주시고, 다듬어 주시어서 끝까지 사용하셨다. 또한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번 내지 두 번의 실패와 낭패를 당해본 경험을 가진 자들로 일치하고 있다. 많은 지도자들이 생의 어느 시점에서 현저하게 실패를 당했지만 그들은 지도자로서 성공을 하게 되었다. 이는 그들이 결코 굽히지 않았고 실패한 것에서 무엇인가를 얻어 깨우쳐서 다시는 후회하는 생을 살지 않으므로 더욱 더 크게 사용되었다¹⁷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대사(大事)를 감당한 대표적 지도자였다. 출애굽기서에 나타난 모세는 4가지 지도력 자질을 가지고 있다¹⁷⁵⁾.

172) 이성희, *교회 행정학*(서울: 장로교 출판사, 한국, 1991), 152

173) James, D. Anderson and Ezra Earl Jones, *The Management of Ministr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8), 78.

174) 황위섭, *그리스도인 리더십* (서울: 한국 로고스 연구원, 1989), 15

175) 홍영기, *교회 성장형 리더십에 대한 연구* (서울: 순신대학교, 1994), 23.

- (a) 모험을 거는 용기(Taking a chance)(출 14:15)
- (b) 책임을 분담함(Sharing Responsibility)(출 18:13-26)
- (c) 재치(Being Tactful)(출 32:7-14)
- (d) 확고부동함(Remaining Steadfast)(출 32:21)

제이 아담스(J. E. Adams)는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급 제도를 도입 활용케 하며, 자신을 리더로서 이미지화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3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고 한다¹⁷⁶⁾.

(a)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즉 재덕을 겸비한 자를 선정하여 자기를 돕게 함.

(b) 자신이 선정한 지도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등의 직위를 비롯하여 배치하므로 효과적인 통솔의 범위를 설정함.

(c) 선정한 지도자를 적절하게 배치한 후에 그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함.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은 직접 담당하고 나머지 일은 다른 지도자들에게 분담함

테드 앙스트롬(Ted W. Engstrom)은 히브리서 11장을 분석하면서 모세의 지도자적 자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6가지를 말한다¹⁷⁷⁾.

(a) 믿음(Faith):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24절).

(b) 성실(Integrity):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 하였다(25절).

(c) 통찰력(Vision):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26절).

(d) 결단력(Decisiveness):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27절).

176) J. E. Adams, *성공적인 목회 지도*, 정삼지 역 (서울: 예수 문서 선교회, 1981), 45

177) Ted W. Engstrom, *The Marking of the Christian Leader* (Grand Rapids: Zondervan, 1976).

(d) 순종(Obedience):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함(28절).

(e) 책임감(Responsibility):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감(29절)

나. 예수님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리더십의 모델은 종(막 10장)과 목자(요 10장)와 청지기(눅 12장)의 모형을 지니신 예수의 지도력이다. 또한 이 세 가지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한 이상적 지도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시다¹⁷⁸⁾. 박영률에 의하면, 성경에서 보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의 동기(motive)는 사랑이고, 방법(method)은 봉사이며, 목표(goal)는 구속이다¹⁷⁹⁾.

(1) 섬기는 종으로서의 리더십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중심으로 볼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하셨다. 진정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사야서 44장 1절-2절을 중심으로 볼 때 구약에서의 종은 이스라엘과 메시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특별히 이 종의 개념이 이스라엘에게 사용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명을 의미했다¹⁸⁰⁾. 이사야서 42장 1절-4절에서 명성훈은 여섯가지 지도자의 원리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¹⁸¹⁾.

- ㉠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Dependence)하는 자(1절)
- ㉡ 하나님께 인정(Approval) 받는 자(1절)
- ㉢ 하나님의 성령(기름 부음)(Anointing)으로 충만한 자(1절)
- ㉣ 하나님의 겸손을 구비(Modesty)한 자(2절)
- ㉤ 하나님의 사랑(공휼)(Empathy)을 가진 자(3절)
- ㉥ 하나님께 소망(Optimism)을 주는 자(4절)

178) 명성훈, *참조적 리더십* (서울: 서울 서적 1994), 29

179) 박영률, *리더십과 교회 성장* (서울: 성광문화사, 1991), 51.

180) 강신권, *21세기를 향한 리더십*, 55

181) 명성훈, *참조적 리더십*, 34

(2) 목자로서의 리더쉽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와 같이 예수님의 두 번째 지도자로서의 모델은 목자로서의 리더쉽이다. 또한 구약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하여 지도자로서의 사랑과 보호를 나타내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양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이시다¹⁸²⁾.

하나님은 목회자가 양떼를 돌보는 일에 실패할 때 주권적인 권위를 가지고 간섭하시겠다는 약속을 구약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다.(렘 23:4, 겔 34:11, 슥 10:3) 목회자의 리더쉽 실패는 대부분의 목자로서의 양들을 사랑하고 치료하시고 보호하는 대신 그들을 이용하는 샅꾼 목자로 전락하게 될 때 일어난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삶의 우선이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사람이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다¹⁸³⁾. 명성훈은 예수님의 목자 리더쉽은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로서의 그의 자질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제시한다¹⁸⁴⁾.

- ㉓ 목자는 양들을 알고 부른다: 지도자들은 개개인을 알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영적 무지와 세상 유혹에서 불러내야 한다.
- ㉔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풍성한 꿀을 먹인다: 목자의 일차적 기능 중의 하나는 우리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과 사단의 책략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다. 또한 풍성한 말씀의 꿀을 먹여서 그 말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반응하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 ㉕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샅꾼 목자는 이리가 오면 도망가지만 참된 목자는 목숨까지 버리면서 양들을 지킨다.

182) 명성훈, *창조적 리더쉽*, 3

183) 강신권, *21세기를 향한 리더쉽*, 15

184) 명성훈, *창조적 리더쉽*, 39.

- ㉑ 목자는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다: 이 눈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눈이다.

제임스 민스(James Means)는 교역자로서의 목자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제시한다¹⁸⁵⁾.

- ㉒ 목자는 자기 밑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돌보아야 한다.
 ㉓ 목자는 양육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
 ㉔ 목자는 훌륭한 설교와 가르침을 해야 한다.
 ㉕ 목자는 남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3) 청지기로서의 리더쉽

예수님의 리더쉽은 청지기의 모델을 제시한다. 청지기는 책임을 강조한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눅 12:42) 하셨다. 영적 리더쉽에는 청지기직이 수반된다. 종이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고 목자가 희생을 상징한다면 청지기는 책임을 강조한다¹⁸⁶⁾.

청지기직의 개념은 구약의 모세(민 12:7)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창 24:2-66)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누가복음 12장 42절-48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¹⁸⁷⁾.

청지기인 오이코노모스(oikonomos)는 “집안일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의미이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의 초대 교회 부자들은 집안일과 종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청지기를 고용했다. 이 청지기는 종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 다음가는 특별한 신임을 받았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의 재산과 종들과 그 자녀 교육까지 관장하는 직무로 자유인인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¹⁸⁸⁾.

마태복음 23장 1절-12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을 보면서 한국 교

185) James E. Means, *Leadership in Christian Ministry*, 주상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60.

186) 명성훈, *교회 성장과 리더쉽*, 2

187) 강신권, *21세기를 향한 리더쉽*, 15

188) 이상근, *누가복음 주석* (서울: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1981), 22

회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지도력의 자질들을 명성훈은 10 가지로 제시한다¹⁸⁹⁾.

- ㉓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자(3절)
- ㉔ 시키지만 말고 함께 일하자(4절)
- ㉕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 하지 말자(5절)
- ㉖ 특권 의식을 갖지 말자(6절)
- ㉗ 칭찬에 교만하지 말자(7절)
- ㉘ 직분의 명칭에 연연하지 말자(8절)
- ㉙ 영적인 관계를 개발시키자(9절)
- ㉚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10절)
- ㉛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자(11절)
- ㉜ 겸손의 삶을 살자(12절)

이상에서 일반 지도력과 교역자들의 지력 및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역자들의 리더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별히 예수님의 종(막 10장)과 목자(요 10장)와 청지기(눅 12장)로서 리더쉽을 생각해 보았다.

앞으로 계속되는 어스틴 지역 복음화에 이 지역 교역자들이 훌륭한 목회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으로 연구하며(총 216명의 응답자 중 80명만 응답함) 특별히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지도력과 목자로서의 지도력과 청지기로서의 지도력을 겸손히 배우고 명성훈의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지도력의 10(6+4)가지 자질들을 참작하여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므로 어스틴 지역의 효과적인 복음화에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4. 도덕적 모범을 보이는 리더쉽

가. 설문 응답 내용

어스틴 지역의 성공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교역자들의 무엇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189) 명성훈, *참조적 리더쉽*, 5.

생각하십니까? 에 교역자들의 “도덕적 모범”에 응답한 자가 56명으로 제일 많았다. 응답자의 직분별로 보면 평신도 64명 중 16명으로 25 퍼센트, 집사 88명중 24명으로 26.7 퍼센트, 권사 28명중 4명으로 16.7 퍼센트, 장로 24명중 12명으로 50 퍼센트, 교역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같은 설문에서 교역자들의 설교의 개선의 변화에 52명으로 평신도 64명 중 8명으로 12.5 퍼센트, 집사 88명중 28명으로 30.4 퍼센트, 권사 28명중 4명으로 16.7 퍼센트, 장로 24명중 4명으로 16.7 퍼센트, 교역자 12명 중 8명으로 66.7 퍼센트이다.

교역자의 도덕적 모범과 설교는 일치한다. 설문 7항의 응답에서 교역자들의 “도덕적 모범”이 56명, 교역자들의 설교의 개선 변화에 52명으로 총 216명 중에서 불과 4명의 차이로 보아서 교역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다 변화되어야 지역 복음화가 성공적으로 이룩될 것으로 본다.

나. 교역자의 도덕적 모범

교역자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이다. 이점에서 평신도와 교역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구태여 이 양자 간에 차별을 둔다면 다만 직무상 구별이 가능할 뿐이다. 교역자는 전임, 평신도는 시간제, 교역자는 신학과 교회 행정에 대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 평신도는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양자 간에는 본질적인 차별이란 없다는 말이다.

교역자는 다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귀감이 되는 인물이요, 평신도들과 함께 도덕의식을 가진 소수의 창조적 무리이고 그 가운데서도 모범이 되는 사람(role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스틴 지역 교역자들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깨어 있어야 한다.

교역자는 도덕의식을 가진 의인(義人)이다. 교역자는 부패하고 타락한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는 소수의 의인들에 비할 수 있다. 가장 부패하고 병든 도시의 전형으로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를 말한다. 이 도시를 멸망에서 구할 수 있는 몇 사람의 의인들이 필요했다. 당시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전체 도시를 파멸에서 구할 수 있는 의인의 수가 10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는 멸망하였다(창 18-32). 여기서 의인은 도덕과 윤리의식을 가진 창조적, 비판적, 소수의 양심적 무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에 비할 수 있다고 본다(마 5:13-14).

교역자들이란 결국 부패를 폭로하고 추방하는 빛이다. 또한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공동체의 건전한 삶을 보장하는 의인 10명에 해당하는 윤리와 도덕의식을 가진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는 자들이다.

교역자는 예언자이다. 교역자는 이 시대의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예언자로서의 교역자들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한 소리로 전해야 한다. 오늘의 교회에 설교는 많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은 인간의 말의 공해일 뿐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어스틴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뜻이 계셔서 이곳으로 파송한 분들로서 소신껏 예언자로서의 말씀을 선포하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교역자는 화해의 사신이다. 교역자는 화해의 사신(고후 5:17-18)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신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이란 뜻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신이란 것은 바울의 사상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원수 관계를 없애고, 다시 화해시킨 화해자요, 평화의 구현자이며, 모든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로 만든 분이며, 그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이 모두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엡 2:14-16), 그를 믿고 그의 뒤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교역자들은 이러한 화해의 사신 또는 화해의 사도로서 대표적 지위에 있는 화해, 평화, 일치를 위해 사역하도록 부름 받은 화해의 사신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도덕의 최후의 보루이다. 교역자는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덕적 공동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회가 온갖 부패와 인간 타락의 전시장이거나 부정의 소굴이 된다면 세상을 구원할 수도 도덕과 윤리의 최후 보루도 될 수 없다.

다. 설교자의 도덕적 모범

교역자는 설교자이다. 설교는 단순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 반드시 설교자의 인격과 삶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져서 전하여 지기 때문에 설교와 설교자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역자들은 설교를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며 또한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한다.

설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calling)을 받아야 한다. 설교는 일차적 작업이 신학적 해석학의 작업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교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정상적인 신학교육을 받아 성경 해석의 본질을 알고 있는 복음의 열정을 지닌 전문가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역자로서 설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이다. 소명감이 없는 사람이 설교자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약화시켜 무생명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 설교는 모범적 인격의 매체를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소명감이 없다는 것은 도리어 복음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바울은 자기 소명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롬 1:1)고 고백한다.

그리고, 설교자는 살아있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교역자가 신학을 마치고, 교회가 요구하는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목사로 안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역자가 그의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 체험이 없이 설교자가 된다면 “복음화 운동”은 “화석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될 당시의 성령께서 설교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므로 살아있는 체험을 할 때 생명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모범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감화력이란 그의 인격과 삶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설교자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을 받아 순종의 삶을 살므로 도덕적인 모범을 보일 때 선포하는 말씀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다.¹⁹⁰⁾ 설교자인 교역자는 주일 하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부가 그리고 삶 전체가 중요한 것이다.

의사는 병만 잘 고치면 그의 권위가 인정된다. 그가 사기를 했거나 돈을 떼어 먹어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병만 잘 고치고, 수술만 잘하면 약간의 도덕적인 스캔들도 문제가 안 된다. 기술자도 마찬가지다. 기계만 잘 고치면 그 권위가 인정된다. 그 사람의 사생활은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설교자인 교역자의 권위는 다르

190) 이종표 외, *교회 발전을 위한 인격 개발* (서울: 쿰란 출판사, 1900), 79.

다. 스캔들이 생기고, 도덕적으로 실패할 때 당장 문제가 된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상담을 잘 해도 은혜가 떨어진다. 그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권위에 흠이 생긴다.¹⁹¹⁾ 사단이 교역자들을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가장 큰 무기중의 하나가 성문제다. 이 강력한 무기로 사단은 교역자들을 쓰러뜨려왔으며, 교회에 상처를 내고, 하나님 나라에 흠집을 내어 왔다. 이와 같이 교역자들의 성적 오류는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각한 영적 상처를 주었다.¹⁹²⁾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일년간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들어온 신고 중에서 성직자에 의한 여 성도의 강간이 16건, 여 성도를 대상하는 성 추행이 8건으로 이 비행 신고 사례는 모두 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통계는 단지 병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¹⁹³⁾

교역자는 도덕의식을 가진 자요,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간의 갈라지고 나누어져 원수 맺는 모든 일에 화해의 사신이다. 이와 같은 소중한 위치에 있는 교역자 자신이 도덕적 결함이 있다면 자기는 물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도 불행하게 되므로 어스틴 지역에 있는 교역자들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삼가 조심해야 한다.

라. 교역자들을 위한 특강과 토론

어스틴 지역 교역자들의 목회 지도력 향상과 도덕적 자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특강을 계획하고(도표 12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준비한다.

일 시: 2004년 10월 4일, 11일, 18일, 25일 오전 9:00-12:00

장 소: 늘푸른 교회 본당

대 상: 어스틴 지역 20개 교회 교역자 (담임목사, 부목, 전도사)

준비는 첫째,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는 9월 19일, 26, 10월 3일 주보에 10월 4-25일까지 매주 월요일 어스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교역자들의 기도회 모임과 도덕과

191) 박희민, *21세기의 영적 리더십* (서울: 보이스사, 2001), 61.

192) 엄두섭, "목회자들의 성적 유혹 극복을 위한 절제 훈련", *목회와 신학*, 1993년 6월호, 85.

193) 이정엽, "목회자의 성적타락과 그 휴유증", *목회와 신학* 2000년 6월호, 94.

설교 변화에 대한 세미나를 알린다. 둘째,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는 늘푸른 교회 여선 교회에서 음료수와 점심을 제공한다.

필자가 연구한 교역자는 (1)도덕 의식을 가진 의인이요, (2)예언자요, (3)화해의 사신이요, (4)설교자로서 이 막중한 의무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수행하려면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 함과 동시에 어스틴 지역 한인 사회의 복음화를 앞둔 시점에서 특별히 이성 문제와 물질 문제에 삼가 조심해야함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강의가 될 것이다. 세미나 강사는 이 분야에 권위 있는 분들을 4분을 모시려 한다. 두 분은 신학교 교수 중에서 다른 두 분은 목회자 중에서 초청하려 한다. 또한, 특강 내용을 주제로 20교회 교역자들이 토론한다.

시간	진행
09:00-09:30	인사와 찬송과 기도
09:30-10:30	특강
10:30-10:50	휴식
10:50-11:40	토론
11:40-12:00	알리는 말씀, 찬송, 기도

제 6 절 신자들의 신앙 성숙

1. 설문 응답 내용

어스틴 지역 한인 복음화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설문 4)은 바로 기존 신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설문에 응한 계층 중 권사가 83.3퍼센트, 교역자는 100퍼센트이므로 비교적 정확하게 본 것 같다. 기존 신자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아무리 불신자들을 복음화 전략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영입한다고 해도 이미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식구들이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자들이며,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사람들도 평신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적 변화가 없어서 불신자보다도 도덕적으로

열등하다면 전도의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

어스틴 지역 복음화에 가장 절실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 신자들의 “신앙의 성숙이 절실히 개선되어야 한다”에 응답한 자들이 96명으로 직분별로 보면 평신도 64명중 40명으로 62.5 퍼센트, 집사 88명중 32명으로 34.8 퍼센트, 권사 28명중 16명으로 66.7 퍼센트, 장로 24명중 8명으로 33.3 퍼센트, 교역자 12명 중 한 명도 없었다. 이 설문 응답에 교역자들은 자기들의 목회 철학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12명 전원이 응답했고,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신앙 성숙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64명 중 40명이 응답하므로 각각 겸손히 자기들의 문제가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것은 귀감이 된다.

어스틴 지역의 성공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신자들의 삶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서 응답자 216명 중 신자들의 인격의 변화에 92명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직분별 내용을 보면 평신도 64명중 8명으로 12.5 퍼센트, 집사 88명중 60명으로 65.2 퍼센트, 권사 28명중 8명으로 33.3 퍼센트, 장로 24명중 8명으로 33.3 퍼센트, 교역자 12명중 8명으로 66.7 퍼센트이다.

인격은 정직한 생활, 진실한 언어와 같다. 설문 9항의 응답 내용에서 이웃의 위한 희생에 60명, 정직한 생활에 36명, 진실한 언어생활에 16명, 대인관계에 8명, 이 모두가 신자들의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모든 항목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응답자들은 설문의 가장 핵심 되는 것에 응답한 것으로 본다.

2.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모범

존 맥아더(John MacArthur, Jr.)는 10주간 목회자들을 위한 수양회 중 많은 도표와 그래프들을 사용한 후 나는 훈련 코스를 총 마무리 할 수 있는 메시지는 한 마디로 요약해서 담을 수 있는데 그것은 모범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능력 있는 것은 본이 되는 것이다¹⁹⁴⁾.

누가는 초대 교회를 복음화 시킨 모범적인 평신도들의 사례를 사도행전 2장 42-47절에서 소개한다. 초대 교회 기존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았다. 기존 신자 상호간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교제를 하며 떡을 떼며,

194) John MacArthur, Jr., *이것이 참된 목자상이다*, 송용필 역 (서울: 나침반사, 1994), 13

기도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한다. 초대 교회 기존 신자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 칭찬을 받으므로 주께서 복음화의 결실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것이다.

기존 신자들은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本)을 보였노라”(요 13:15) 하셨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하므로 하며, 더러운 이(利)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主掌)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벧전 5:2-3) 하였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기존 신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11:1)하고 빌립보 교회 기존 신자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 4:9) 하였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주는 교훈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기존 신자들과 빌립보 교회 기존 신자들에게도 각각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호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스틴 지역의 복음화에 장애 요인이 된 먼저 믿는 우리 기존 신자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 지역의 효과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먼저 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3.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

가. 신앙 성숙의 본질

성경을 통하여 평신도들이 성숙한 신앙을 배워 삶의 현장에서 실천 실행하므로 어스틴 지역 복음화에 촉진제가 되는 것이다. 베뢰아 지역의 복음화에 앞장 선 기존 신자들의 성숙한 신앙을 배우자(행 17:10-15).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뢰아 교인들은 다른 이방인 교인보다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 첫째, 그들의 복음에 대한 자세는 신사

적(εὐγενεῖς)이라 한다. 이 뜻은 공평함과 고상한 마음이란 뜻으로 편견의 색안경을 끼지 않은 자신의 신념이나 삶의 방식만 옳은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태도이다. 베뢰아 지역의 복음화를 성공리에 이룩한 신자들은 시기나 알력으로 무조건 복음을 배격하지 않고 유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수용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신앙을 성경 말씀에 의하여 확립하므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베뢰아 지역 신자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았다. 아집과 죄악으로 완악해진 사람의 마음은 복음의 빛을 본능적으로 거부하지만(요 1:9-11),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뢰아 지역 신자들은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베뢰아 지역 신자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詳考)했다”(행 17:11). 저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가(眞假)를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고 성경의 삶의 표준으로 상고하므로 그 뜻을 바르게 터득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마 1:18-25)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 베뢰아 지역 신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날마다 상고한 것이다. 게네사렛 지역의 복음화에 앞장선 신자들의 성숙한 신앙을 배우자(마 14:34-36). 게네사렛 지역 평신도들은 세 가지 일에 열심이었다. 저들은 전도에 열심(35상)이었다. 봉사(35하)이었고 또한 기도(36절)이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열심의 반대인 게으름은 바로 악한 것과 동일시 하였음을 본다.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마 25:26상)라고 호칭했다.

신자가 성숙하려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마 5:13-14). 소금은 스스로 자기를 녹이므로 자기의 사명을 다한다. 촛불은 스스로 타들어가므로 어두움을 밝히는 자기의 사명을 다한다. 이와 같이 신자(교회)는 스스로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자는 아니다. 예수가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존재(Being for Other)가 되므로 그리스도가 되었듯이 신자도 전적으로 남을 위한 존재가 될 때에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신자가 성숙하려면 베뢰아 지역 복음화를 성공리에 이룩한 평신도들의 성

속한 신앙과 게네사렛 지역의 평신도들의 성숙한 신앙을 본받아 오늘의 세계사의 흐름과 인류 문화사의 발전 전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숙한 신자는 바른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 지금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이 역사의 흐름이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 성숙한 신앙은 언제나 역사와 함수(函數) 관계를 갖고 있다. 역사 현실을 떠난 신앙은 공연불과 같은 것이어서 거기에서 역사적인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다. 때가 차서 예수가 세상에 태어 나셨다는 것은 역사의식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자들은 항상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다. 자다가 깬 때가 되었으면 마땅히 깨어나야 한다. 아침이 되어 밝아 오는데도 신자들이 계속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그 신자들과 교회는 결코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베뢰아 지역 신자들과 게네사렛 지역 신자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각각 자기 지역 복음화에 앞장섰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신앙으로서 어스틴 지역 복음화에 헌신하면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나. 신자들의 성숙한 신앙을 위한 특강

어스틴 지역 신자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다음과 같이 특강을 계획하고(도표 12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준비한다.

일 시: 2004년 8월 7일, 14일, 21일, 28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

장 소: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친교실

대 상: 어스틴 지역 20개 한인교회 평신도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는 7월 29일 주일 후보와 8월 1일 주일 후보의 알리는 말씀에 홍보한다. 행사 주최측인 교역자 협의회에서는 신자들의 성숙한 신앙 강의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 각 교회와 한국 Market, 한국 식당에 보낸다. 이 일을 위하여 교역자들은 자기 교회에서 많은 기존 신자들이 참여토록 적극 협조한다. 음료수, 간식, 점

심은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여선교회에서 제공한다.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성공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먼저 기존 신자들의 “성숙한 신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필자의 연구 내용인 베뢰아 지역 복음화에 앞장 선 기존 신자들의 성숙한 신앙(행 17:10-15)과 게네사렛 지역 복음화에 성공한 기존 신자들의 성숙한 신앙(마 14:34-36)과 어스틴 지역의 효과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세상의 빛과 소금(마 5:13-14)의 사명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강사는 어스틴 신학교 교수 중 두 분과 덕망이 높은 목회자 두 분을 초청한다.

기존 신자들의 성숙한 신앙에 대한 강의가 끝나면 곧 이어서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 남녀 선교회 회원들의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한다. 간증도 한다. 또한 기존 신자들의 성숙한 신앙이 가져오는 축복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시간	진행
09:00-09:30	찬양과 기도
09:30-10:30	특강
10:30-10:50	휴식
10:50-11:50	간증과 축복 사례
11:50-12:00	알리는 말씀, 찬송과 기도

4. 신자들의 인격적 변화

어스틴 지역의 성공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신자들의 삶에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13년간 어스틴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자주 듣는 말이 그 사람이 무슨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도 사회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인격의 이중성을 보여 준 것이다. 우리 신자들은 인격의 어원과 뜻을 바로 알아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의 고귀한 인격을 보여 주어야 한다.

(1) 인격의 정의

인격이란 단어의 어원은 본래 희랍어 “프로소폰”(προσωπον)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어로는 펄슨(person) 으로 번역되었다. 이 “프로소폰”은 연극의 무대에서 연극자가 쓰고 있는 가면, 연극자의 기능, 분장 등을 가리키며, 연극자가 쓰는 마스크 역할(Mask function)과 같은 뜻이었다.

희랍어의 휘포스타시스(υποστασις) 실체(히 11:1)란 단어가 기독교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인격 개념”은 그 사람의 기능이나 사회적 역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가면, 그 사람의 존재 양식을 뜻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과 교체될 수 없는 그 사람 교유의 현존과 개체성(Individuality)으로 이해되었다.

인간에게는 3가지 활동이 있다. 첫째는 무엇을 알려는 학문적 활동, 둘째는 무엇이 아름다운가를 추구하는 예술적 활동, 셋째는 무엇이 옳고 의로운가 하는 찾는 도덕적 활동이다. 학문적 활동의 목표는 진(眞)이고, 도덕적 활동의 목표는 선(善)이고, 예술적 활동의 목표는 미(美)이다. 여기서 지, 정, 의가 종합되어 갖추어진 것을 철학적으로 “인격”이라 한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사람됨”이다.¹⁹⁵⁾

(2)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인격

인격의 궁극적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참 인격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의 원형이다. 또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골 1:15)이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과 품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격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인격을 본받아야 하는지 몇 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예수님은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고(빌 2:7),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마 11:19).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 속에서 참 인간의 모습과 참 인격의 원형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무한히 용서하시는 인격을 본다(마 6:14-15, 18:21-22, 요 8:10-11).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주님의 모습에서 참 인격을 본다(요 10:11-15).

예수님은 옳지 못한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눅 13:32) 책망하였으며, 불의하게 재산을 모은 부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

195) 이종표 외, *교회 발전을 위한 인격 개발*, 102.

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마 19:23-24) 지적하였고, 바리세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마 23:27-28) 비판하였다.

우리는 "주의 은혜의 해"인 희년을 이 땅에 선포(눅 4:16-19)하시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려는 주님의 모습에서 참 인격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의 길을 택하셨다. 이와 같은 이웃의 생명을 구원코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참 인격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신 모습에서 그의 참 인격을 볼 수 있다.

어스틴 지역의 성공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기존 신자들은 예수님의 참 인격을 본받아 예수님의 정직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1997년 말 경제 위기를 맞게 되자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 체결한 길지 않은 약정서에 같은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투명성의 결여"라는 단어이다.¹⁹⁶⁾ 우리 사회 어디를 보아도 부정부패와 거짓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정치인들의 부패, 은행과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의 뒷거래,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의 리베이트, 공금 지출에 있어서의 부정직, 접대비의 낭비, 부실 공사 등 우리 사회를 좀 먹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부정직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의 고급 요정이 잘 되는 것은 직장의 돈으로 흥청망청 낭비하는 사람들 때문이란 것이다. 우리 기존 신자들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예와 아니요를 바르게 하는 투명한 삶을 살므로 지역 복음화에 이바지해야 한다.

(3) 신자들의 인격적 변화를 위한 특별 세미나

어스틴 지역 신자들의 인격적 변화를 위해 특별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도표 12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준비한다.

일 시: 2004년 9월 4일, 11일, 18일, 25일 오전 9:00-12:00

장 소: 말씀의 교회

196) 서울판 조선일보 1998년 1월 1일 1면에 기고.

대 상: 어스틴 지역 20개 한인 교회 교인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는 8월 22일 주일, 29일 주일, 9월 5일 주일 후보에 위의 세미나 소식을 알린다. 그리고, 음료수, 과일, 점심은 말씀의 교회 여전도회에서 제공한다.

필자가 연구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인격-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고(빌 2:7)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마 11:9) 정죄하지 않으시고 무한히 용서하시며(마 6:14-15, 18:21-22, 요 8:10-11)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요 10:11-15) 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중심으로 한 세미나가 4분의 초청 강사에 의하여 진행된다. 이 4분 중 두 분은 어스틴 신학교 교수 중에서 나머지 두 분은 덕망이 높은 현직 목회자 중에서 선정하려 한다.

세미나 내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이 토론회를 통하여 기존 신자들의 인격의 변화가 어스틴 지역 교포 복음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므로 유익한 시간이 된다.

시간	진행
09:00-09:30	인사와 찬양과 기도
09:30-10:30	세미나
10:30-10:50	휴식
10:50-11:50	토론회
11:50-12:00	찬송, 기도

제 7 절 어스틴 지역 복음화 운동의 진행과정 요약

2005년 어스틴 지역 교포 복음화를 기도로 준비한다. 어스틴 지역 20개 한인 교회는 새벽기도회, 화요기도회, 수요일기도회, 금요일기도회, 주일예배 대중 기도 때 2005년 1월-2월까지 계속될 어스틴 지역 교포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한다. 어스틴 지역의 한인 복음화운동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가. 2005년 어스틴 지역 교포 복음화를 위한 준비 모임

나. 어스틴 지역 한인 복음화 운동 실시

일 시: 2005년 1월 -2월 (두달간)

대 상: 어스틴 지역 전 한인 교포

동 원: 어스틴 지역 20개 한인 교회

다. 교역자들의 모임

교역자들의 모임	행사 및 특강 제목
8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기도와 조직
9월 6일, 13일, 20일, 27일	교역자들의 Leadership
10월 4일, 11일, 18일, 25일	교역자들의 도덕
11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	교역자들의 설교
12월 6일, 13일, 20일, 27일	교역자들의 전도

라. 신자들의 모임

기존 신자들의 모임	행사 및 특강 제목
8월 7일, 14일, 21일, 28일	기존 신자들의 성숙한 신앙
9월 4일, 11일, 18일, 25일	기존 신자들의 인격의 변화
10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이웃 교회간의 친목 (친선체육 대회)
11월 6일, 13일, 20일, 27일	각 교회 홍보부 모임
12월 4일, 11일, 18일	교회 교육에 대한 특강

제 7 장 결 론

세계에서 복음 전파와 선교의 기적이 이룩된 곳이 한국 교회와 미주 지역 한인 이민 교회라고 찬사를 받을 때마다 일찍이 복음을 받고 어스틴 지역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긍지로 여기게 된다. 그리고 대형화된 교회가 속출하고 새로운 발전을 도약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 교회의 저력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미주 한인 이민 교회도 화려한 성전과 모여든 성도의 수(數)만을 가지고 긍지와 자랑에 도취되어 살아가야 할 유아기는 이제 지났다고 본다. 그러기에 지금은 성숙한 교회답게 어스틴 지역 한인 이민 교회 현장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설정을 서두르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별히 교회의 일차적인 사명인 복음 전도에 이상(異常)은 없는지 그 실태를 찾아 볼 필요가 있다.

말씀 위주에서 주정주의(Emotionalism)적 신앙의 방향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다. 초대 교회가 철저한 구원관에 입각한 복음 전도가 이룩되었던 점¹⁹⁷⁾에 반하여 60년대와 70년대의 복음은 구원이란 차원을 축복(祝福)이라는 차원으로 개념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증거는 지난 30년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의 기록을 보여 준 교회가 오순절 계열의 교회라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지금은 많은 교회가 부흥회를 연례적으로 가지면서 「신유의 집회」, 「축복의 대성회」로 그 이름을 걸고 사람을 모으기에 바쁜 모습을 손쉽게 볼 수 있다.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요삼 1:2) 종교로서 탈바꿈을 해 버린 복음의 전달은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의 본래적인 모습을 변모시킨 중대한 문제이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온 개혁교회의 전통¹⁹⁸⁾이 혼

197)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2), 127

198)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1566) Chapter 1; Karl Barth, *The Preaching of the*

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설교의 사역에 대한 기본적 신학과 이론의 밑받침이 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적절한 예화만을 나열해도 설교가 된다는 실로 위험한 교역자들의 설교 이해는 복음이 전달되어야 할 오늘의 강단을 지극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말씀의 선포와 해석과 적용이라는 설교의 본래적 형태를 벗어나 흥겹고, 복 받았던 간증과 사례의 나열로 퇴색된 현상을 빚고 있다.

복음의 선포와 전도의 사명이 개인의 구원과 자신의 교파 확장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회와 민족의 구원이라는 시급한 과제는 외면한 채 예언적 사명을 통한 복음의 전달이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도 뒤져있는 현상은 복음의 근본정신을 오늘이라는 현장에 바르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아픔이다. 말씀의 예언적 기능은 상실되고 오히려 현실 도피적인 피안의 세계로 개인을 이끄는 데 급급한 모습을 드러낸 문제점이다.¹⁹⁹⁾

우리 시대, 특히 앞으로의 미주 한인 이민 교회가 맞게 될 시대는 분명히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시대일 것이다. 전통적인 가치 체계는 점차 무너지고,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 구조도 점점 더 세계화의 길로 달릴 것이다. 가정 문제, 빈부 격차 문제, 계층간의 갈등 문제 등의 사회 문제도 점점 더 복잡해지리라는 것이 크게 빛나간 예견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무시한 채 한인 이민 교회가 100년이 넘는 동안에 천편일률적(千篇一律的)으로 적용해 온 획일적(劃一的)인 전도와 복음화 스타일은 앞으로의 교회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전도 방법을 보강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1장에서는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복음화 전략"이란 제목의 논문을 쓰게 된 동기와 연구 방법을 논하였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코자 먼저 어스틴 지역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스틴 지역 형성 과정과 정치, 경제와 산업, 인구의 증가, 교육의 특성 및 주민들의 종교 현황을 연구 조사했다.

3장에서는 어스틴 지역 한인 사회를 바로 알기 위하여 한인 사회의 형성 과정에

Gospel, trans. B. E. Hook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3).
199) Harold S. Hong, "General Picture of the Korean Church, Yesterday and Today", In: Harold S. Hong, ed. *Korean Struggles for Christ*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66), 13-36

서 초기 한인 사회 이민자들(1950년-1960년), 중기(1970년-1980년)와 현재까지(1980년-지금까지)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어스틴 교포들의 종교 현황과 교포 사회의 특성을 조사해 보았다.

4장에서는 어스틴 한인 교회의 형성 과정에서 초기(1973-1976년) 한인 교회들은 미국 남장로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보수성이 강하여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지역 교회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연구 조사되었다. 이어서 이 지역 20개 한인 교회 현황과 그 특성과 과제로서 복음화 전략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논하였다.

5장에서는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의 효과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교파를 초월하여 설문 조사를 목적과 내용과 절차와 조사 결과를 논하였다. 특별히 설문 내용에서 복음화의 장애 요인과 공헌 요인을 비롯하여 복음화를 위하여 단호히 개선해야 할 사항과 변화되어야 할 사항과 바꾸어야 할 사항을 파악하게 되었다.

본 조사를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과연 216명의 설문 응답에는 어스틴 지역 복음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들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그들의 설문 응답이 어스틴 지역 복음화에 유일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설문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은 어스틴 지역 한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단케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 설문 응답자들의 신학적인 이해나 복음화에 대한 중점(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다 다르지만, 저들 나름대로 복음화에 대한 확실한 중심이 서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중심은 전도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면이라고 본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야말로 가장 큰 설득력과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들의 설문 응답에 대한 바른 전략과 대응책을 제시하므로 어스틴 지역의 한인 교회 복음화가 성공리에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제6장은 이 논문의 핵심으로 제5장의 설문 11항에 대한 이 지역 한인 교회의 각 개 각층의 총 216명의 설문 응답을 토대로 어스틴 한인 교회의 성공적인 복음화 전략 5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개인전도의 강화, 교육방법의 현대화, 지역교회간의 관계 개선, 교역자의 목회지도력 향상, 그리고 신자들의 신앙성숙이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어스틴 지역 한인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과제로 제기된 문제들이다. 바라는 것은 이 논문이 어스틴 지역 교포 사회 복음화에 바른 방향 제시가 되기 바란다.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강신권, 21세기를 향한 리더쉽, 서울: 콤란 출판사, 1995
- 계창호, 미국 이민 이야기, 서울: 미주 개척 출판사, 2003
- 김대경, 도시 근방 지역, 농촌 목회를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 서울: 감신대 출판사, 1996
- 김대균, 미국 장로교 한인 교회사,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9
- 김양선, 한국 기독교사 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71, P30
-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자,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8
- 김종판, 교회는 이렇게 성장한다, 서울: 콤란 출판사, 1998, P11
- 명성훈, 교회 개척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사, 1997
- _____, 교회 성장과 리더쉽, 서울: 서울 서적, 1992
- _____, 교회 성장의 영적 차원, 서울: 서울말씀사, 1997
- _____, 당신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 서울: 국민일보사, 1994
-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2
- 박영률, 리더쉽과 교회 성장, 서울: 콤란 출판사, 1995
- 박윤선, 공관 복음서 주석, 서울: 영음사, 1976
- 박희민, 21세기의 영적 리더쉽, 서울: 보이스사, 2001
- 신성종, 이렇게 설교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도서출판사, 1994
- 신용하, 두레 공동체와 농악의 사회사, 서울 일신사, 1987
- 양현승, 윤병욱 공저, 미주 한인 이민 100년사, 서울: 삼화 인쇄소, 2002
- 오성택,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울: 콤란 출판사, 1997
- 육한음,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 제자 훈련원, 2001
- 윤사무엘, 미주 한인 교회 100년의 발자취와 비전, 서울: 보이스사, 2002
- 이광희, 성경적인 교회 성장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글로벌, 1999
- 이기춘, 한국적 목회 신학의 탐구, 서울: 감리교 신학교 출판부, 1991

- 이성희, *교회 행정학*,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1
- 이영아, *미국 땅에 심은 한국*, 서울: 뿌리 출판사, 2002
- 이종성, *목회자와 교회 성장*, 서울: 콤란 출판사, 1992
- 이종운, 전호진, 나일선 공저, *교회 성장론*, 서울: 엠마오, 1993
- 이종표 외, *교회 발전을 위한 설교 개발*, 서울, 콤란 출판사, 1989
- _____, *교회 발전을 위한 인격 개발*, 서울, 콤란 출판사, 1990
- 전호진, *교회 성장론*, 서울: 정음출판사, 1982
- 정사무엘, *교회 성장과 설교*, 서울, 세계교회 성장 연구원, 1985
- 조남홍, *교회 싸움*, 서울: 선교 문화사, 1999.
- 조용기, *교회 성장을 진정 원하십니까?* 서울: 서울 서적 1995
- 조정해, *교회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설교 하십시오*, 서울: 글로리아 1996
- 주강현, *노동과 굶-일하는 사람들의 세계관*, 서울: 한민사, 1989
- 최창욱, 김선배 공저, *전도의 이론과 실제*, Louisville: 미국 장로 총회 한미 목회부
- 최혁순 편저, *이것이 미국이다*, 서울: 삼덕정판, 1997

2 번역 서적

- Adams, J. E., *성공적인 목회 지도*, 정상지 역, 서울: 예수 문서 선교회, 1981
- Anderson, Gerald H. *선교신학 서설 (The theology of the Christian Mission)*, 박근원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5
- Autrey, C. E., *기본 전도학*, 서울: 침례회 출판사, 1990
- Bosch, D. J. *선교신학 (Witness to the world)*,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5
- Braoudakis, Paul, ed. *Willow Creek Community Church*, 김양석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7
- Brammer Lawrence M., *상담 관계의 이론과 진형 (The Helping Relationship)*, 이춘실 역, 서울: 목양사, 1978
- Callahan, Kennon L., *성숙한 교회 12가지 열쇠 (Twelve Keys to an Effective Church)*, 권오식 역, 서울: 도서출판 품만, 1987

- Cantelon, John E. *학원선교 (Protestant approach to the campus ministry)*, 이정기 역, 서울: 보이스사, 1978
- Clinebell, Howard J., Jr. *성장 상담을 통한 부부 성장 과정 (Growth Counseling for Marriage Enrichment)*, 이종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 Gerber, Vergil. *교회 성장 진단법 연구*, 조동진 역, 서울: 그리스도인 헤럴드사, 1974
- Hoekendijk, J. C. *쏟아지는 교회 (The church inside out)*,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 Horne, Herman H. *예수의 교육 방법론 (Teaching of Jesus)*, 박영호 역, 서울: 예수교 문서 선교회, 1980
- Howe, Reuel L. *대화의 기적*, 김관석 역,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65
- Hughes, Kent and Barbara. *당신의 목회는 성공적인가 (Ministry from the Success Syndrome)*, 오현미 역, 서울: 나침반사, 1988
- Kane, J. Herbert *선교의 성서적 기초 (Biblical foundation for Mission)*, 김명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Kennedy, D. James. *현대 전도*, 이동원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2
- McGavran, D. A. *교회 성장학 (Understanding Church Growth)*, 고원용 역, 대구: 보문 출판사, 1974
- _____ and Winfield C. Arn. *교회 성장 십단계 원리*, 정대인 김영봉 공역, 서울: 삼일당, 1983
- Price, J. M. *선생 예수 (Jesus as the Teacher)*, 박영론 역, 서울: 침례회 출판사, 1978
- Russell, L. M. *기독교 교육의 새 전망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정응섭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2
- Shawchuck, Norman. *교회의 갈등과 목회 (Conflict with church)*, 황화지, 김기영 공역, 서울: 성지출판사, 1985
- Shearer, Ray E. *한국 교회 성장사*, 이승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 Stott, John R. W. *현대의 기독교 선교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서정운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2

Tippett A. R. *교회 성장과 하나님의 말씀 (Church Growth and the Word of God)*, 장종열 역, 서울: 보이스사, 1992

Vicedorn, G. H.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 박근원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0

Wagner, C. Peter, *영적 전투를 통한 교회 성장*, 서울: 와그너 교회 성장 연구원
 _____ *교회 성장 원리 (Your Church Can Grow)*,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William, Jarne, *전도 전략 원리*, 이동원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3. 영문 서적

Adams, Jay E. *Lectures on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1978

Autrey, C. E. *Basic Evangelism*,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9

Balswick, Jack O. & Balswick Judith K. *The Family*, Grand Rapids: Baker

Barkley, Mary Starr, *A History of Central Texas, Austin*, Austin: Austin Printing Company, 1970

_____ *History of Travis County and Austin 1839-1890*, Waco, Texas: Texian Press, 1963

Bateman, Audray and Hart, Katherine, *Waterloo Scrapbook 1972-1978*, Austin: Friends of the Austin Public Library, 1976

Brown, Frank, *Annals of Travis County and the City of Austin*, Austin: Archives Collection, Barker Texas History Center

Casey, Daniel T. *The Basic of Texas Public School Finance*, Austin: A Publication of the Texas Association of School Board, 2002

Clinebell, Howard J. *Basic Type of Pastoral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Crosby, Tony, *An Austin Sketch Book*, Austin: The Encino Press, 1978

Eveay C. B., *An Introduction to Evangelical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65

- Hitcock, A. W. *The Psychology of Jesus*, Boston: The Pilgrim Press, 1907
- Goodwin, Dorris Kearns. *Lyndon Johnson and the American Dream*, Austin: UT, Publishing Co.
- Easum, William M. *Church Growth Handbook*, Nashville: Abingdon Press
- Encyclopedia Britannica*, New York: Encyclopedia Britannica Inc., USA, 1973
- Erickson, Virginia and McBee, Sue Brandt, *Austin: The Past Still Present*
- Fehrenbach, T. R. *Lone Star*,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68
- Frantz, Joe B. *Texas*,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1976
- Funkhouser, Charles W. *Education in Texas, Policies, Practices and Perspectives*, Scottsdale, Arizona: Gorsuch Scarisbrick, Publishers, 1996
- Goals 2000: State and Local Education Systemic Improvement Program*
- Hart, Katherine, *A Pictorial History 1830-1930*, Austin: The Encino Press, 1975
- Hastings, James. *The Dictionary of the Bibl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1916
- Hebbard, Don W. *Family Life Ministry*,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5
- Hong, Herold S., "General Picture of the Korean Church, Yesterday and Today", In: Herold S. Hong, ed. *Korea struggles for Christ*, 서울: 기독교서회, 1966
- Horne, H. H. *Jesus the Master Teacher*,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20
- Lee, Sang-Dawn, *Big Brother, Litter Brother*, Austin: UT Publishing Co., 2000
- Lindsell, Harold "The Biblical Basic of Missions and Evangelism", In: Ralph G., Turnbull, ed.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67
- Marquis, John A., *Learning to teaching from the Master*,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13
- McGavran, D. A. & Hunter, G. C. *Church Growth: Strategies that Work*, Nashville: The Parthenon Press, 1980
- McGavran, D. A. & Winfield C. Arn, *Ten Steps for Church Growth*, San

- Francisco: Harper & Row, 1977
- Meredith, William V. *Pageantry and Dramatics in Religious Education*, New York: The Abingdon Press, 1921
- Newcomb, W. W. Jr. *The Indians of Texas*, Austin: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1961
- Patric, John. *A Theology of Servant Leadership*, Chicago: Moody, 1977
- Religious Institution: Greater Austin Religious Directory*, Austin: Austin Press, 2002-2003
- Schaller, Lyle E. *The Seven-Day a Week Church*, Nashville: Abindon Press, 1992
- Scott, Foresman.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Volume II: 1865 to the Present, 1990
- State of Texas, *The Texas Conference Committee Report*, House Bill No. 1 (General Appropriations Act), 1995
- Steinbeck, John Ernst. *The Grapes of Wrath*, 1939
- Texas Education Agency, *Texas School Law Bulletin*, Texas: Texas West Publishing Co., 1996
- _____. *Snapshot 96: 1995-96*, School District Profiles (Internal Reference Material), 1997
- _____.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ustin: Texas Association of School Board, 1998
- _____. *Texas Education Code*, Austin: Texas Education Agency, 1999-2004
- _____. *Education Improvement Plan*, 1999
-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 Vonberg, James A. *Texas Public School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Texas: Kendal/Hunt Publishing Company, 1996
- Walker, Alan., *The New Evangelism*, New York: Abingdon Press, 1975
- Williamson, Roxanne Kuter, *An American Architectural History*, San Antonio: Trinity University Press, 1973

Willoughby, Larry. *Austin: A Historical Portrait*, Austin: The Donning Company Publishers, 1998.

[Http://Austin TX, Areacomet.com/statistics.htm](http://AustinTX.Areacomet.com/statistics.htm)

4 정기 간행물

김종희, "학원 선교의 본질과 사명", *기독교공보*, 1986년 6월 15일자

엄두섭, "목회자의 성적 유혹 극복을 위한 절제 훈련", *목회와 신학* 2000년 6월호.

이광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상관성", *교회 교육*, 1987년 1월호, 14-19

이용원, "어떤 지도력이 차세대에 적합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1994년 7월호

이재범, "지도자와 함께 대형 교회는 성장한다", *월간 목회*, 1995년 10월호

이정엽, "목회자의 성적 퇴락과 그 후유증", *목회와 신학* 2000년 6월호

조 만, "교회 생활과 성숙", *기독교 사상*, 1981년 9월호

최효섭, "이민의 나라", *그리스도인 타임즈* 1998년 5월 15일자

홍동근, "전도와 평신도", *기독교 사상* 1968년 9월호

Austin Journal

Austin American Statesman

Austin City Gazette

Austin Daily Tribune

Austin Democratic Statesman

Christian Today

News Korea

Texas Democrat

Texas Sautinet

Texas Siftings

The Gold Dollar

The Rolling Stone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5. 교회 자료

(1)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주소록 1993년도

사무실 자료 제공, 2003년 12월 1일

2003년 11월 김문석 장로 자료 제공

1973년 5월 개척 당시 회의록

1976년 2월 제직회 회의록

1982년-1984년 당회록

1991년 12월 건축 위원회 회록과 동 회록

1976년도 교회 사무실 통계철

2003년도 교회 사무실 통계철

2003년도 주소록

(2) 어스틴 한인 연합 감리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2003년 12월 2일

허 명 장로 자료 제공 2003년 12월 5일, 12월 7일

이충남 장로 자료 제공 2003년 12월 7일

(3)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2003년 12월 12일

김성배 목사 자료 제공 2003년 12월 13일

(4) 늘푸른 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2003년 12월 1일, 12월 5일

정기영 목사 자료 제공 2003년 12월 5일

(5) 라운드락 한인 장로교회

김광석 목사 자료 제공 2003년 12월 1일

사무실 자료 제공 2003년 12월 1일

(6) 말씀의 교회

손성권 목사 자료 제공 2003년 11월 22일

(7) 예수 찬양 교회

사무실 자료 제공 2003년 12월 1일

(8) 하이드팍 한인 침례교회

원로목사 차영훈 자료 제공 2003년 11월 1일

사무실 자료 제공 2003년 11월 1일, 12월 22일

(9) 어스틴 교역자 협의회

자료 제공 1991년-2003년

Vita of
Eun Kyu Park

Present Position:

Pastor Emeritus,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Texas

Personal Data:

Birth Date	Nov. 16, 1933
Birth Place	Daegu, South Korea
Marital status	Married to Sun Ae Park in Dec. 2, 1957
Home address	7405 Potters Trail, Austin, TX 78729
Denomination	P.C. USA
Ordained	June 12, 1967

Education:

B.A	Kaemyung University, Daegu, 1961
M. Div(Equiv)	Daegu Theological Seminary, Daegu, 1958
Th. M	Immanuel Baptist Seminary, Atlanta, 1983
Ph. D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1974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Personal Experience:

1961-67	Associate Professor, Daegu Theological Seminary, Daegu
1968-70	Associate Professor, Young Nam Theological Seminary, Daegu
1968-70	Senior Pastor, Nam Duk Presbyterian Church, Daegu
1975-90	Senior Pastor, Korean Garden Presbyterian Church, Hollywood, CA
1990-2003	Senior Pastor,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Austin, TX
1991-2003	Non-Resident Faculty, Aust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